



1

1994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4. 1호

(루게 555)



## ◆◆◆◆◆◆◆◆◆◆ 차 례 ◆◆◆◆◆◆◆◆◆◆

친애하는 지도자 <b>김정일</b> 동지의 문학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	4
우리는 한마음 .....	6
신년세배 드리웁니다 .....	7
새해의 첫인사 .....	8
명 언 .....	9
천금보다 귀중한것 (외 1 편) .....	9
그이께서 오시는 날 .....	10
구장땅이 전하는 이야기 .....	11
수령님과 비료산 .....	14
위대한 수령 <b>김일성</b> 동지께 영광을 .....	15
친애하는 지도자 <b>김정일</b> 동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	15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 비가 온다 .....	16
1. 인민의 념원을 담아 .....	18
하늘에서 내려온 송아지 .....	21
1 시간 5 분 .....	23
<b>김정일</b> , 그이는 우리 아버지 .....	26
친애하는 지도자 <b>김정일</b> 동지 령도선은 현실주제작품의 기본생리 .....	27
위대한 빛발 .....	31
한번만 .....	32
그립던 모습들 .....	32
명제해설 .....	33
아동문학의 형태적특성에 대한 옳은 이해와 그 구현에서 나서는 문제 .....	34

심장의 불꽃으로!.....	39
당의 기초축성에 이바지하는 소설을!.....	39
위대한 송가창작에 모든 정열을!.....	40
빛나는 애기별을!.....	40
평론의 사명을 자각하고... ..	41
삼지연 물맛을 다 알려면... ..	41
망부암 .....	42
호성의 꽃이 되겠어요.....	56
여섯남매의 아버지.....	57
청춘과의 담화 .....	61
락동강할아버지 .....	62
별에서 만난 소조원 .....	69
녀의사.....	70
용해장에 새로운 말 생겼다.....	70
철길과 함께 .....	71
그 처녀를 사랑한것은.....	72
철산봉이 키를 낮춘다.....	73
약산의 진달래 .....	73
렬차는 잠들지 않는다.....	74
내 고향의 붓나무.....	74
위원장 어머니 .....	75
어머니의 고통앞에.....	80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학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자

우리 문학은 지금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뚫고 줄기차게 전진하고 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 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우리 문학이 력사의 소용돌이가 류레없이 간고하게 사뭇치는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림없이 주체사실주의 기치를 높이 들로 사회주의위업을 문학으로 옹호보위하며 힘차게 전진할수 있는것은 위대한 령도자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문학을 령도하시며 이룩하신 업적을 모든 작가들이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데 있다.

우리 작가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학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 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인다는것은 당이 제시한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문예리론, 창조체계와 창작방법을 견결히 옹호하며 당의 지도밑에 창작공연된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창작력량을 보존강화한다는것을 말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문학을 지도하시면서 이룩하여놓으신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것은 주체문학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문학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룩하여놓으신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며 영화혁명, 가극혁명의 나날에 높이 발양된 혁명정신과 창작기풍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날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문학작품창작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 세대에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며 영원히 우리 문학을 참다운 주체의 혁명적문학으로 찬란히 꽃피우기 위한 투쟁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체문학건설에서 이룩하여 놓으신 령도업적을 빛내어나가는것은 우리

작가들의 숭고한 시대적임무이다. 우리 작가들과 문학에 있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업적은 주체문학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발전시키는데서 더없이 귀중한 재부로 된다. 작가들이 자기 령도자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하자면 이 귀중한 재부를 눈동자와 같이 고수해나가야 한다. 이 귀중한 업적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것은 작가들의 충실성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된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혁명과 건설이 멀리 전진하여도 당과 수령의 업적을 잊지 않고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는 사람,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아글타글 애쓰는 사람이 참다운 충실이며 효자이다.

우리 작가들은 유구한 민족문학과 인류문학발전에 길이 빛날 불멸의 령도업적을 이룩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스승으로,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창작하는 가장 긍지높은 영예와 특전을 누리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인간학의 새 경지를 개척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주체문학의 명맥을 확고히 이어주는 고귀한 령도업적과 경험을 이룩하시였으며 우리 문학에 대한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지도를 통하여 주체문학발전의 빛나는 로정우에 불멸의 공로의 자욱을 아로새기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룩하신 문학령도업적은 그 다방면성과 풍부성, 내용의 심오성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며 그것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있다. 여기에는 주체문학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과 지침으로부터 문학의 모든 형태들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향, 창작실천적방도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다 밝혀져있다.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백과전서적인 문학건설의 고귀한 재부를 가지고있는것보다 더 큰 영광과 행복은 없다.

우리 작가들은 이미 이러한 무상의 영광과 행복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학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문학창작에서 많은 귀중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우리는 지난 시기에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이 사업을 계속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오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학령도업적을 빛내어나가는것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고수하며 문학으로 당을 받들어나아가 할 우리 문학의 근본사명으로부터 나서는 가장 중대한 사업으로 된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질식말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이러한 때일수록 혁명의 필봉을 굳건히 틀어쥐고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자면 당과 혁명의 문학령도업적을 튼튼히 고수하여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룩하신 문학령도업적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중한가 하는것을 신념으로 체득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룩하신 문학령도업적은 우리 문학의 만년토대이며 생명선이다.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학령도사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학습함으로써 지도자동지께서 민족문화와 인류문화발전에 얼마나 특출한 공로를 쌓으시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도 특히 중요한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심오하게 발전풍부하시키신 주체적문예사상을 뼈와 살로 만드는것이다.

주체적문예사상을 사람위주의 철학적세계관에 기초한 문예학설로서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을 위주로 보고 대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원칙에서 풀어나가는 창작의 근본원리를 밝혀준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가장 올바른 지도적지침이다. 주체적문예사상에는 우리 문학예술건설의 총적방향과 작품창작의 근본원칙과 구체적인 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우리 문학예술이 나아갈 곧바른 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경험은 주체적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모든 문학예술활동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아야 우리의 문학예술을 끊임없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룩하신 문학령도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또한 모든 작가들이 당과 수령의 문예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창작적열정과 탐구와 사색을 다 기울이는것이 중요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학령도업적을 빛내기 위한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당과 수령의 의도대로 우리 문학을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이다. 당과 수령의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는것으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체적문예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그이께서 마련하여놓으신 창조체제와 창조방법, 창작력량들을 보존강화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열성을 다 바쳐야 한다. 특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작가들의 창작을 지도하시여 시대의 명작으로 완성된 작품들의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을 보장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작가는 창작으로 당과 수령의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어나가야 하며 그러자면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하여 창작완성된 작품들의 형상수준을 철저히 보장한 명작들을 창작하여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을 훌륭히 반영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문학작품창작으로 당의 업적을 고수하는데서 창작적관심을 집중하고 힘을 넣어야 할것은 우리의 작품들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선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우리는 현실주체의 모든 작품들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선이 기본생리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당에서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중시하는 문제들을 작품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자애로운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꽃피어나고있는 공산주의적미풍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작품에 반영하는것이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와서 숭고하고 아름답게 펼쳐진 새로운 인간세계를 예술적으로 생동하게 재현하는데 계속 힘을 넣어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학령도업적을 끊임없이 빛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모든 작가들과 창작지도일군들이 영화혁명, 가극혁명을 수행하던 그날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혁명적으로 창작하며 생활하여야 한다.

오늘 조성된 정세와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사상미학적요구를 놓고 볼 때 문학의 모든 부문들에서 혁명적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우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긴장하게 생활하며 창작하여야 하며 모든 창작단위들에서 일대 창작적양양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작가는 창작으로 당과 수령의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 특수한 재간을 가지고있는 혁명가들  
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언제나 우리  
작가들을 나라의 귀중한 인재로 여기시고 애지중지  
아끼고 사랑하시며 언제나 크나큰 정치적민음과 배  
려를 안겨주고계신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의 이 자애로운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심장깊이 간  
직하고 자신들의 창작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피라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창작  
적재능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자신들의 재능을 더  
욱련마하기 위하여 탐구하고 사색하고 열정을 기  
울일 때 당과 수령의 문학령도업적이 빛나게 고수  
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학령도업적을 끊임없  
이 빛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모든 작가들이 높은  
자각을 가지고 당의 위업고수에 모든 심혈을 다 바  
쳐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당과 수령의 문예전사,  
당사상전선의 초병이라는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  
고 당과 수령에 대한 순결한 량심과 불타는 충성심  
을 신념으로 간직하여야 우리 당의 문학령도업적을  
건결히 고수하고 빛내어나갈수 있다. 모든 작가들  
은 당 건설과 활동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 당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  
적인 관철자로서의 높은 자각과 영예를 깊이 간직  
하고 자신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효  
성을 지닌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  
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학령도업적을 옹호고  
수하고 빛내어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작가동맹 각  
분파들과 문학부문 창작단위들에서 창작조직사업  
을 잘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우리 창작지도일군들과 창작부문들에서 친  
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학령도업적을 빛내어나가  
는 사업보다 더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은 없다. 모든  
창작기관들에서는 언제나 당이 이룩해놓은 문학령  
도업적을 건결히 옹호하고 더욱 빛내어나가는 사업  
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창작조직사업을 전개해나가  
야 한다. 특히 작가동맹 각 분파들에서는 작가들속  
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문학을 령도하  
시며 이룩해놓으신 업적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중한  
가 하는것을 신념으로 체득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특히 우리 작가  
들과 창작지도일군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  
체적문예사상과 리론과 방침을 모든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그이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의 문예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  
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학령도업적을 건결히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는 사업은 작가들이 주  
체문학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우리 식 사회  
주의를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더 잘  
이바지하기 위한 숭고하고 영예로운 사업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학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가는 여기에 주체문학의 찬란한 개화발전  
이 있고 빛나는 미래가 있다.

모든 작가들은 시대와 혁명, 우리 문학의 년대기  
우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창작하며 혁명하는 커다란 긍  
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전  
원회의 결정관철에로 힘있게 추동하는 문학작품창  
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 가사

# 우리는 한마음

김 속

봄철에 영양단지 함께 내던 그 처녀  
흙밭이포전에서 오늘 다시 만났네  
수령님 부르시면 달려오는 한마음  
비단짜던 그 솜씨로 알뜰살뜰 흙을 까네

강냉이 가을하며 낫을 익힌 저 총각  
아는듯 모르는듯 한삽 더 없으라네

수령님 부르시면 달려오는 한마음  
쇠물뽑던 그 자랑을 농장벌에 펼쳐가네

앞장선 저 처녀 뛰어가는 저 총각  
흙밭이 경쟁속에 새봄을 불러오네  
수령님 부르시면 달려오는 한마음  
이 벌이 옥토되어 풍년나락 설레이리

# 신년세배 드리웁니다

한원희

큰절을 드리웁니다  
새해의 설인사를 드리웁니다  
끝없는 기쁨속에 행복속에  
어버이수령님 우러러  
한없는 감격에 목메입니다

해와 해가 바뀌고  
년년이 새해를 맞이할수록  
가슴에 뜨겁게 사무쳐웁니다  
수령님 이룩하신 크나큰 위업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절세의 위인을 모셔가는 영광을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높은신 뜻

놈들이 우리의 사회주의를 훼방하고  
사랑하는 조국땅을 핵탄으로 위협해도  
불굴의 의지로 인민을 이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생각할수록  
수령님의 그 사랑 가슴을 칩니다

위대한 수령님만이  
인민에게 주실수 있는 사랑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인민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행복  
우리 당이며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신 기쁨

그이 아니시라면  
우리 어이 맞이할수 있었으리까  
이처럼 환희로운 승리의 새해  
이처럼 신심과 락관에 넘쳐  
미래를 내다보는 영광의 새해

친히 거느리신 무적의 사단과 군단들  
천리방선을 굽어살피시며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켜주시는 그이  
이 땅에서 오곡을 가꾸어 인민에게 주시고  
이 땅에서 천을 짜서 인민을 입히시며  
이 땅우에 주체의 보루를 높이 쌓아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아, 때없이 가슴뭉클 젖어듭니다  
몸소 열어오신 백두의 혁명위업을

**김정일**동지 역세계 이어가신다고  
그리도 기쁘시여 송시를 지우시던  
수령님의 그 심중

**김정일**동지가 계시여 오늘도 위대하고  
래일도 영원히 영광스러운 시대로 될것이라고  
친애하는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야  
우리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한다고  
조국의 천만년 미래까지 열어주시는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시던 그 음성

우주처럼 끝없는 수령님의 사랑은  
친애하는 그이의 사랑으로 우리 몸에 닿고  
해빛처럼 밝은 수령님의 미소는  
친애하는 그이의 미소로 우리 몸을 감쌉니다

친애하는 그이는 조국의 운명  
영광스러운 우리의 사회주의입니다  
그이의 백전백승하는 령도가 있기에  
조국의 존엄은 만방에 빛나고  
어버이수령님 만시름 놓으시나니

우리는 압니다.  
**김정일**동지 높이 모셔가는 길이  
어버이수령님께 한없는 기쁨을 드리고  
**김정일**동지 끝까지 따르는 길이  
가장 큰 만족을 드리는 길임을

아, 우리 인민이대를 이어  
절세의 위인을 모셔가는 영광  
수령님 안겨주신 그 사랑은  
인민앞에 주시는 최대의 사랑입니다!  
조국앞에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입니다!

큰절을 드립니다.  
온 나라 인민이 신년세배 드리웁니다.  
끝없는 감격속에 감사속에  
어버이수령님 우러러 목메입니다.  
친애하는 그이 계시기에  
어버이수령님의 위업은 천대만대  
영원합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 새해의 첫인사

량덕모

새해아침  
첫인사를 드립니다  
솟는 해처럼 그 영상 어려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여  
누구보다 당신에게 먼저 올리는 설인사입니다.

한없이 인자하고 열렬하신  
당신을 그려보며  
기쁨속에 맞이하는 새해  
내리는 눈송이도 꽃보라같고  
찬바람 불어쳐도 후덥기만 합니다

당신은 이 땅의 새해빛발  
그 빛으로 더 밝아진 우리의 하늘  
더 눈부신 우리의 대지입니다  
당신은 이 땅의 새해공기  
그 숨결로 더 활기로와진 우리의 삶  
더 부풀어오르는 우리의 긍지입니다.

아, 당신이 계시여  
사회주의 새해가 있습니다!  
원썩들은 피를 문 승냥이처럼 으르렁대도  
겁을 모르는 인민의 희열  
집집의 웃음으로 노래로 떨기집니다  
사회주의를 버린자들이  
갈길 잃고 황야에서 헤매여도  
인류의 리상으로 아름다운 나날  
우리의 눈앞에 선명히 다가옵니다

세월이 우리에게 준 새해가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당신의 신념으로  
희망차게 열리고  
당신의 의지로

걸음걸음 힘이 나는 1994년—

참기 어려운 봉쇄와 질식이  
우리를 위협하여도  
천백배 분발하여 이겨낼 새해  
사회주의기치를 곳곳이 추켜드신  
당신의 그 모습은  
진리의 등대  
승리의 기발

돌아가는 기대와 기계마다  
《우리 식 사회주의총진군속도》 창조자  
번개치고 우뢰울게 하렵니다  
뿌려가는 씨앗마다  
농촌테제 만세를 부르는  
풍년나락으로 가꾸렵니다  
당신의 담대하신 결심대로  
사회주의위용을 만천하에 펼치렵니다!

오, 당신의 건강은  
새해의 운명  
새해의 기쁨  
이 아침 나의 첫생각  
가식없는 진정과 흠모를 담아  
매혹된 온 넋을 담아  
당신에게 첫인사를 드립니다

나의 작은 삶도 다 살피시며  
민족을 한품에 안으시고  
세계를 이끌어가시는 오직 한분  
인류의 태양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여  
무궁토록 젊어계십시오!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주대지를 뛰여다닐 때 우리에게 밥을 지어주고  
 문전을 모아 학비와 로자를 쥐여주던 그 많은 은인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그런 은인들중에는 아직도 생사와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이제라도 그런 사람  
 들이 나타난다면 마음속에 맺혀있는 한이 다 풀릴것 같다. 그 사람들에게 밥이라도 한끼 대접하고 한  
 자리에 앉아 수십년동안 쌓이고 쌓여온 회포를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지난날 그들이 나에게 바친 그 로고와 지성을 죄다 보상할수 있겠는가.

인민을 더 잘 살게 하고 우리 인민에게 더 큰 복리를 마련해주며 인민의 지지성원속에서 개척한 혁  
 명을 완성하는것이 그들에게 바치는 최대의 보상이며 선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인민에게 이런 보상  
 을 하기전에는 어느 누구도 공산주의자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고 말할수 없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2)중에서

답시

## 천금보다 귀중한것 외 1 편

김창식

시간은 흐르고  
 현장의 로동자, 기술자들  
 토론도 끝났건만

아버이수령님께서  
 먼길의 피로도 잊으시고  
 이윽도록 앉아계시여라

몸소 소집하신 협의회  
 기업소의 계획수행보다  
 한 일군의 문제를 놓고 심증이 무거우시여...

자책속에 머리들지 못하던  
 머리 회숙한 지배인  
 자리에서 일어섰다

기업관리에서 틈있는 일  
 욕심스레 포치한 사업  
 거뒀들이지 못한 일

그리하여 기업소가  
 온 나라의 벽찬 숨결과  
 걸음을 맞추지 못한 일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무거운 표정으로 물으신다

—자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장내를 짹 채운  
 무거운 침묵  
 숨소리도 멎은듯

바로 그때였다  
 기업소 당일군이 일어섰다  
 자세를 바로가지며

—아버이수령님  
 제가 구실을 못하고  
 잘 도와주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지배인동무를 돕겠습니다

머리 떨구고 선  
 지배인결에  
 가지런히 나선 짧은 당일군

수령님 엄하신 기색 푸신다  
 —그래 당비서동무가  
 책임지고 돕겠단말이지...

당비서동무의 말이야  
내가 믿어야지  
그럼 그렇게 합시다

순간 주르륵  
지배인의 두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

당비서의 넓은 어깨에서  
눈길 떼지 못하는  
로동자들이며 기술자들...

저런 당일군과 함께라면  
내 무엇을 못하랴 하는  
뜨거운 그 눈빛과 눈빛

우리 당일군들에게 있어서  
그런 눈길을 받는것보다  
더 큰 기쁨 있으랴

—저런 당일군과 함께라면...  
오늘 우리 사회에 차넘치는  
숭고한 이 사상감정

그렇구나, 당일군에게 있어서  
그것이 천금보다  
천금보다 귀중한것이구나

우리 수령님께서  
크게 믿으신것  
바로 그것이였다

## 그이께서 오시는 날

친애하는 그이께서  
이제 오신다는 기별  
그거면 나도 그분을  
뵈옵게 된다는 기쁨

옷단장, 몸단장 서두르며  
거울앞에 다가선 내  
머리에 내린 백발에서  
눈길 떼지 못하겠구나

먹은 나이와 함께  
일해온 나이 말해주는 백발  
내 이 백발을 이고  
어찌 그이앞에 나서랴

한일이, 몇몇이 한일이 무엇인가  
이 순간엔 자부할 일 너무도 없구나  
그러고도 내 흰머리카락을 엮고  
그이앞에 감히 나설수 있으랴

그순간 떠오른 생각  
진작 검은 물 들이였다면  
그 모습으로 그이앞에 나선다면  
덜 송구스러우리라는 생각

하지만, 하지만 내  
얼굴 붉히며  
아쉬움없이  
그 생각 털어버렸다

마음과 함께 몸도  
이제껏 그이 받들어온  
끝이끝대로 나서는것  
그것이 전사의 자세 아니랴

그리하여 내  
죄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  
그 마음 가득한 가운데  
거울앞에서 물러섰다

이제 정문으로 들어서실  
친애하는 그이를 마중하러  
동무들의 물결에 휩쓸리며  
달음박질하였다

친애하는 그이앞에  
백발도 부끄럼없을  
그러한 일 하고 또 할  
철석의 결의 다지고 또 다지며

《월탄을 거쳐 오가산을 넘은 다음에는 화평, 흑수, 강계, 성간, 전천, 고인, 청운, 희천, 향산, 구장을 지나 개천에 이르러 거기서 기차를 타고 만경대로 나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중에서

## 련속기행

# 구장땅이 전하는 이야기

구장역에서 향산쪽으로 도로를 따라 얼마쯤 가느라 면 나지막한 산기슭에 자리잡은 7자형의 옛집이 보인다. 그 집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70여년전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실 때 하루밤 묵어가신 구장려인숙이다. 울바자를 나지막하게 둘러친 조용한 트락으로 들어서면 마음은 자연히 70여년전 그 시절로 거슬러오르며 열두살 어리신 나이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천리길을 걸으신 우리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정을 금할길 없다.

력사의 그날 그이께서는 이 집 가운데방에서 하루밤을 묵어가시었다.

너무도 수수한 방... 한 가늠에는 앉은뱅이책상이 있고 그우에 붓과 벼루, 객부책이 소중히 놓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팔도구를 떠나신지 열하루째 되는 밤을 이 려인숙에서 묵어가시며 객부책에 〈김성주〉라는 존함을 남기시였습니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려인숙주인은 객부책에 남기신 그 존함을 잊지 못하며 감동깊이 회상하곤 하였습니다.》

너강사는 우리에게 20년대 그밤의 려인숙에서 려던 대유동광산 로동자들의 한숨, 류광객들의 탄식에 대하여 방불하게 이야기해주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손수 앉은뱅이책상에 마주앉으시여 붓을 드시고 객부책에 자신의 존함을 쓰시였으며 길손들의 이름도 하나하나 적어주시었다. 또한 방안을 오가는 길손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도 다 들어주시고 왜놈들이 망하기전에는 조선사람들이 잘살수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70여년전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객부책에 천필로 써주신 길손의 이름들... 그것은 곧 조선사람은 조선사람으로의 이름이 있어야 하며 빼앗긴 말과 글을 되찾기 위해서는 일제놈들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불같은 선언이기도 하였다.

《그때로부터 구장려인숙은 우리 혁명력사에서 불멸할 사적건물로 되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실 때 이 집에서 묵어가신 그 하루밤은 이 지방 인민들속에서 여러가지 전설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강사의 조용조용한 이야기는 우리를 그 시절에로 이끌어갔고 전설같은 이야기속에 잠겨들게 했다. 그 《전설》들중의 한가지만을 여기에 소개한다.

## 신기한 글발

해방전 어느날 봄날저녁...

구장려인숙에 한 젊은이가 들었다. 그는 14년전 아이적에 하루밤 묵어간적이 있다며 주인에게 인사했으나 주인은 먼 옛날 하루밤 묵어간 아이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런대로 려인숙법도대로 방문을 열어주고 들여보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방에 들어가 앉도니 길손들의 이야기에 끼기는커녕 귀도 기울이지 않고 한쪽 구석에 앉아 하염없는 슬픔에만 잠겨있었다. 어둡시그레한 등잔불의 빛은 젊은이의 얼굴에 비낀 질은 슬픔으로 하여 더 어두워졌다.

길손들은 젊은이의 눈가에서 번쩍이는 눈물방울을 보고 놀랐다.

《왜 그러우, 젊은이?》

젊은이는 도저히 입을 열것 같지 않더니 다시 한번 묻자 동이 터친듯 자기의 설움을 터쳐놓았다.

...그의 고향은 숙천이었다. 지주놈의 빚값에 몇명 안되는 땅땀기를 떼우고 팔마저 부엌데기로 끌려가자 아버지는 처서판에 가서 돈을 마련하여 딸을 찾겠다면서 랑림으로 떠나갔다.

딸을 빼앗긴 어머니는 심화병으로 앓아눕고말았다.

그런대로 갖은 고생을 밭처럼 씹어삼키며 해를 넘겼는데 숙천땅을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랑림의 한 처서판에서 아버지가 나무에 치워 사경에 처했다는것이였다. 그 소식에 자리보전이나 하던 어머니는 그만 기절해버렸고 다시는 피어나지 못한채 저세상으로 가버렸다. 게다가 지주집에 끌려간 누이동생마저 어데 알수 없는곳으로 또 팔려가버렸다.

차라리 죽고싶었으나 아버지의 초상이나 치르고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길을 떠난것이였다. 그는 소식을 전한 길손의 낮빛에서 벌써 아버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던것이다.

그는 죽으러 가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말로 그를 위안하며 돌아서라고 권고했으나 그

는 다음날 아침 일어나기 바쁘게 표연히 길에 나섰  
다.

《주인님, 하루밤 신세지고 갑니다. 오래오래 사  
시우.》

젊은이는 지난밤에 눈물은 다 말리워버린듯 메마  
른 암담한 눈으로 신작로를 따라 랑림쪽으로 가버  
렸다.

려인숙주인은 그의 뒤모습을 보다가 꺼지게 한숨  
을 쉬었다.

이 집에 한 젊은이에게서 마지막 려인숙이 되다  
니...

그때부터 그는 그쪽 도로를 매일 바라보는 버릇  
이 생겼다. 젊은이의 걸음을 멈춰세우지 못한 자책  
때문이였는지, 허무한 인생에 대한 쓸쓸함때문이였  
는지...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다. 하루에도 수십명  
씩 맞고 보내는 려인숙주인에게 한 젊은이의 일이  
무슨 대수랴! 또 기막힌 슬픔과 불행의 보따리들이  
하루도 빌사이 없는 려인숙이였다. 그런데는 이미  
습관된 주인이였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젊은이의  
일만은 무슨 귀신이라도 부적을 했는지 기억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력저력 열여드레째 되는 날이였다. 저도 모르  
게 또 갈마드는 저세상사람이 되였을 젊은이의 생  
각을 하며 토방에 앉아있는데 누군가가 삼작문을  
밀어젖히고 마당으로 쏙 들어섰다.

《주인님, 안녕하십니까?》

《영?!》

려인숙주인은 눈이 휘둥그래져 벌떡 일어났다.  
저 세상으로 간다고 떠났던 그 젊은이였던것이다.

《아버님은 어떻게? 소식이 ,잘못된것이였나?》

《아닙니다. 아버지 돌아갔어요.》

그런데 젊은이는 사연을 이야기할대신 방문부터  
열어 제졌다.

《주인님, 객부책을 좀 봅시다레.》

《객부책? 무슨 객부책?》

《아, 객부책이 객부책이지 뭐갔소?》

젊은이는 다짜고짜 앉은뱅이책상우의 객부책을  
와락 집어들었다.

그러나 곧 털썩 내려놓았다.

《이건 아니구만!》

젊은이는 방안을 휙 -돌러보더니 다시 물었다.

《옛날 객부책은 어디 있습니까?》

《옛날 객부책?》

젊은이의 심상치 않은 거동에 얼떨떨해진 주인은  
저도 역시 방안을 둘러보고서야 말했다.

《헛간이나 얼마 있을라는지...》

《헛간이요?》

젊은이는 헛간으로 달려갔다. 주인은 멍하니 있  
다가 그를 쫓아갔다. 젊은이는 어느사이 헛간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있었다. 주인은 아침에 헛간문에  
꼭직한 봉어자물쇠를 잠근어놓았던것이 생각났다.  
젊은이가 어떻게 열었는지 알수 없었다.

헛간안은 별의별 잡동사니로 가득차있었다. 주인  
은 어느 구석에 낡은 객부책들을 틀어박아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런데 젊은이는 이것저것 척척  
 옮겨놓더니 한구석에서 낡은 객부책봉테기를 끄집  
어내는것이였다. 이것 역시 주인을 놀라게 했다. 젊  
은이는 마치 그 무엇이든 꿰뚫어보는 신기한 눈을  
가지고있는듯했다.

주인은 그의 거동을 놀라움에 차서 지켜보기만  
했다. 젊은이는 객부책들을 뒤져보더니 책 집어던  
졌다. 비에 젖어 알아볼수 없게 되였거나 애너석들  
이 딱지를 만드느라고 뜯어냈거나 휴지로 써서 두  
껍만 있는것들이였기때문이였다.

젊은이의 눈길은 헛간안을 두리번거리더니 한쪽  
선반에서 뗏으며 번쩍하고 빛났다. 그는 선반우에  
서 종이묶음을 집어들었다.

《이게 아닙니까? 1923년? 옳구나. 이겁니다!》

주인은 더욱 땡 - 해졌다. 매일같이 헛간에 드나  
들면서도 그곳에서 객부책을 본 기억이 없었고 또  
그우에 열다섯해전의 객부책이 놓여있을리도 없었  
다. 그러나 젊은이의 손에는 바로 그 객부책이 들려  
있었다. 게다가 먼지 한점 오르지 않은채로였다. 이  
상한 일이였다.

젊은이는 객부책을 벌컥벌컥 뒤지더니 한곳에서  
눈을 딱 멈추었다. 그리고는 우뢰같은 소리를 냈다.

《틀림없구나! 틀림없어!》

《?!》

젊은이는 객부책의 그곳을 주인에게 가리켜보였  
다.

《이걸 보시우! 이걸! 이 글씨를 모르시갔소?

틀림없수다! 틀림없어요!》

주인은 객부책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보기만 했다.  
젊은이는 그제야 객부책부터 찾게 된 사연을 이야  
기하기 시작했다.

...그가 랑림의 처서판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아  
버지가 땅속에 묻힌 뒤였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 저세상에서 만나서 인사올리고 실컷  
울겠수다. 조금만 기다리시우.》

그는 숲속으로 들어가 든든해보이는 나무가지에  
바오래기를 걸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갑시다.》 하고 중얼  
대며 목에 올라미를 걸던 그는 맞은편에 서있는 나  
무에서 이상한 글발을 보았다. 나무껍질을 벗기고  
먹으로 쓴 또렷한 글씨들이였다.

《조선동포들이여, 착취부시고 왜놈에게 항거하  
자!》, 《독립의 날은 곧 온다!》

태어나 처음 보는 삶의 호소였다.

그는 어느사이 목에서 올라미를 벗어버렸는지 몰랐다. 어떤분이 여기에 이런 글을 썼을가. 그런데 그 글씨들이 어데서 본듯한 생각이 들었다.

계속 두리번거리던 그는 그앞 나무에서 또 다른 글발을 발견했다.

《조선청년들이여, **김일성** 장군님의 두리에 뭉쳐 항일대전에 떨쳐나서자!》

**김일성** 장군, 아, 그러니 이 글발들은 모두 장군님의 부하들이 쓴것이였다. 그런데 왜 글씨가 이렇게 눈에 익어보일가...

《그러자 갑자기 이 려인숙의 객부책이 떠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인님은 기억 안나시우? 열네해 전에 우리 이름을 객부책에 써주시던 그 어린분이 말입니다. 자- 이제 내 이름이 아납니까?》

그때 난 글로 쓴 내 이름을 처음 봤수다! 그러니 이 글씨에 기억이 생생할수밖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달려왔는데... 틀림없단말입니다!》

그제야 주인의 기억도 되살아났다.

《가만, 그날 그분도 자기의 성함을 쓰셨는데?》

두사람은 객부책의 이름들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러자 단번에 두사람의 앞에는 세글자가 불로 쓴듯 두드러지게 안겨왔다.

《김성주...》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백두산에서 싸우는 **김일성** 장군님이시란말입니다!》

14년전 그밤의 일이 똑똑히 떠올랐다. 등잔불이 어둡시그레하던 밤. 그분께서 붓을 드시였을 때는 붓끝에서 오색령롱한 불빛이 반짝거렸었다.

《내 그때는 등잔불빛이 비쳐 반짝거리는가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붓이 빛을 뿜었어! 응?》

《그리구 이름을 쓸 때마다 이름쓴 사람들의 얼굴도 환해졌디요. 다른 사람이 되는것 같았수다.》

《옳거니!》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그들은 객부책을 얼른 덮었다. 그러자 헛간안은 캄캄해졌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제야 그들은 자기들이 캄캄한 헛간안에서 객부책을 읽었고 글자들을 보았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신기한 글발의 조화였음을 깨달았다. 든든한 자물쇠를 잠그었던 헛간문이 젊은이의 앞에서 저절로 열렸던것도, 젊은이가 처음 들어온 헛간에서 객부책이 있는곳을 단번에 알아낸것도 바로 이 신기한 빛을 가진 글발이였다.

《틀림없네! 틀림없어! 장군님께서 벌써 열네해 전에 여길 지나가셨구만. 응?!》

《그분의 부하들은 모두 그분에게서 글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글씨도 그분의 글씨를 배웠겠지요. 나무에 쓴 글씨가 바로 이 글씨였단말이우다.》

젊은이는 려인숙에서 목지 않고 그밤으로 다시 떠났다. 고향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전하겠다는것이였다.

주인은 전에없이 손님을 멀리 구장역말까지 바래더니 다음날 아침에는 그자신이 온다간다 소리없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는 열흘이 썩 지나서야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로 헛간에 들어갔다. 문을 꼭꼭 닫아걸고는 캄캄한 속에서 객부책을 펼쳤다. 그리고는 연신 고개를 끄덕거렸다.

《틀림없구나! 바로 그 글씨야! 나무에 글을 쓴 것이 장군님께서 가가거거를 배운 장군님의 부하들이겠은즉 장군님의 필체와 같을수밖에 없지! 이제야 이 나라에 해들 날이 왔구나!》

그는 젊은이가 갔었다는 랑림의 그 숲에 가보고 왔던것이다.

열흘나마 어데론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는가 했더니 또 없어진 그를 찾아헤매던 집식구들은 그를 킁킁한 헛간에서 찾아냈다. 문틈새로 들여다보니 그는 무엇인가 손에 들고있었는데 거기에서 빛이 뿜어나오고있었다. 문을 열자 그 불빛은 사라져버렸다.

주인이 객부책을 덮었던것이다...

그때부터 이고장에서는 백두산 대장수가 소년으로 변신하여 려인숙에서 하루밤을 묵어가며 온 조선땅을 굽어보았고 신기한 글발을 남겼다는 소문이 돌았다.

소문은 소문을 낳았고 이고장사람들의 캄캄하고 암담한 기나긴 밤에 끝날줄 모르는 전설로 되였다.

그리고 그 소문을 어떻게 알게 된 왜놈순사가 려인숙으로 달려들었는데 온 집을 수색하고 헛간도 발각 뒤집었으나 객부책은 종시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 이상한것은 그놈이 돌아간후에 보니 객부책은 여전히 그 선반위에 그대로 놓여있더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또 다른 말에 의하면 헛간에 들어가 객부책을 발견하고 뒤지던 왜놈순사가 그 신기한 글발이 썩여있는 장을 펼치자 갑자기 소경이된듯 더듬더듬 물러나와 허둥지둥 도망쳤다고도 한다...

×

전설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는 채 완성되지 않은 전설을 그대로 여기에 옮겼다. 이제 몇년후에 오면 완전한 전설을 들을수도 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옥자옥은 아무리 퍼내도 마를 줄 모르는 전설의 무진장한 샘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글줄을 따라 걷는 이 전설의 길은 과연 어데서 끝날것인가!...

# 수령님과 비료산

최창근

새 조국 년대기에 기념비로 솟아  
무궁한 세월속에  
인민의 전설 수놓으며  
키솟구는 비료산 비료산

지금도 저 비료산 헤치면  
그날의 발자국 뜨겁게 찍혀있으리  
그날의 모심자리  
영원의 초석으로 놓여있으리

비료산에 술문 세우고  
붉은 연단 만들고  
젊으신 장군님 처음 모셨던 그날  
우리 흘린 감격의 눈물  
저 비료산밑에 그대로 젖어있으리

비료산을 마주하니  
큰상을 받은것 같다고  
한줌의 비료 손에 드시고  
기쁘시여 하늘가득  
새봄빛 뿌리시던 그 모습

아 조국에서 맞으신 첫 봄날  
천리 먼길 찾아오신 그 사랑  
온 나라 인민을 성찬에 부르시듯  
비료산앞에서  
평생의 기쁨 안아보시던 그 심중

그날의 모습은  
동상으로 모셔져있고  
흘러간 세월은  
어느덧 반세기를 이루어어도  
수령님께서 언제한번 비료산을 드신적 있었던가

해토무렵이면 의례히  
포전보다 비료산을 먼저 찾으시고  
비료산을 마주하시면  
해종일 하조장을 못떠나시던

그 자욱자욱을 넘어  
몸은 비록 먼데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비료산에 있다고  
외국방문의 려로에서도  
현지지도의 들길에서도  
자주 전화로 찾으시는

회고많은 나날들을 넘어  
90 년대의 비료산은  
대형화 현대화의 나래를 펼쳤거니

충성의 마음들이 합쳐진 대형 합성탑앞에  
효성의 마음들이 숨쉬는 대형 압축기앞에  
그날의 젊으신 모습으로 서계시며  
영원의 목소리 울려주시는 우리 수령님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곧 공산주의입니다

쌀로 먼저 꽃피우는  
사회주의 내 나라  
농촌테제 완성의 한길우에  
만복으로 쏟아지는 인민의 기쁨인양  
은백색 보라되어 여울치는  
비료산, 비료폭포여

아, 수령님 한평생속에  
언제나 젊음의 메부리로 빛나는 비료산이여  
비료산전설속에  
언제나 청춘으로 서계시는 수령님이시여

인민은 대를 두고 노래하리  
세세년년 만풍년이 시작되는 첫기슭에  
언제나 그날의 모습으로 서계시는  
우리 수령님을  
언제나 축원의 기념비로 키솟구는  
홍남의 비료산을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영광을

혜수 교호비

오. 위대하여라  
민족의 태양 **김일성** 동지  
그이는 용감하고 대담하신분

세계인민들은 노래하여라  
조선의 자유와 번영을 안아오신  
그이의 현명성과 영웅적위훈을

**김일성** 그 이름  
평화와 영광, 정의와 자유의 상징  
불타는 조국애로  
나라를 광복하시고  
오늘은 나라의 발전을 위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이끄시나니

그이의 령도아래  
조선인민은

근면하고 정력적인 인민으로  
세계의 산 모범으로 되었어라  
인류의 해방이시고  
진보의 등대이시며  
정의의 대변자이신  
**김일성** 동지

세계인민들은 그이를 우러러 따르고  
베닌청년들은  
평화의 구현자이신 그이께  
영광을 드리며  
만수무강을 축원하여라

하늘의 태양과도 같이  
그이의 사상은 인류의 앞길을 영원히 밝히리

(필자는 베닌교수임)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다비드 치리키 리자

청청하늘의 태양과도 같이 찬란하게  
백두광명성 정일봉에 솟아오르시였어라  
오늘도 하늘중천에 높이 솟아오르시여  
암흑속에 헤메이는 피압박인민들에게  
봄을 주시고 삶을 주시는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인민들은 영광을 드립니다

한 나라 계선넘어 세계 진보적인민들을  
위대한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여라  
온 세계 인민들의 자주위업 진두에서 향도하시여  
도탄속에 헤메이는 인류에게  
희망을 주시고 앞길을 밝혀주시는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인민들은 영광을 드립니다

투쟁과 창조 생활의 교훈을 밝혀주시여라  
사회주의를 튼튼히 지켜나가시며  
주체형의 사회주의본보기 창조하시고  
절망에 우는 인민들을 꺾기시키시는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인민들은 영광을 드립니다

사회주의성새 허물려는 온갖 책동 짓부시며  
사회주의 붉은기치 끝까지 지켜주시여라  
반동의 무리 이리떼처럼 덤벼들어도  
일심단결의 힘 신념과 의지로  
인민의 념원 인민의 행복 지켜주시는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인민들은 영광을 드립니다

(필자는 탄자니아 쉬하타통신사 기자임)

사회주의는 망했다고 세계가 아우성칠 때

##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 비가 온다

언제 누가 먼저 낸 소문인지는 모르나 한때 서간도일대에서는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 비가 온다는 말이 돌았다.

소문에 의하면 어느해 봄에 가물이 몹시 든적이 있었다.

씨를 붙인 밭에서는 싹이 트지 않았고 어쩌다 싹이 튼 곡식은 노랑게 다 말라죽어버렸다.

사람들은 모두 올해농사는 폐농이라고 한숨을 쉬며 하늘을 원망하고있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허연 수염을 가슴노리에까지 내리드린 풍채좋은 한 로인이 나타났다.

그 로인은 밭머리에 앉아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고있는 마을사람들을 동정 어린 눈으로 한참동안 바라보더니 느닷없이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천천히 마을을 지나 백두산쪽으로 걸어가는것이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를 넘어간다

풍채좋은 로인이 처음으로 부르는 웅글은 노래소리는 가물이 든 밭과 잎이 시든 숲을 지나 태양이 작열하는 뜨거운 하늘가로 조용히 울려갔다. 바로 그날저녁 구름 한점 없던 하늘이 갑자기 시커매지더니 비가 흠뻑 쏟아졌다.

정말 말그대로 이 비야말로 약비였고 금비였다. 아니 생명수였다.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뿔쳐나와 그 비를 흠뻑 다 맞았다.

그들은 로인이 지팡이를 짚고 노래를 부르면서 넘어간 동구박 고개길을 바라보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해 씨불임은 여느해보다 더 잘되였다.

그런데 실은 이 일이 있기 얼마전 **김일성** 장군님께서 일제침략자들을 몰살시킨 한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아리랑노래를 부르면 비가 온다는 소문이 났던것이다.

그때 전해진 이야기가 바로 소낙비에 대한 전설이다.

장군님께서 부대를 이끄시고 장백현의 어느 한 산마루에 오르신 그날은 구름 한점 없는 말짱 개인 날이였다.

천하명장 **김일성** 장군님께서 오르시니 하늘은 더 푸르러보이고 산마루도 한층 더 높아보이고 숨엄해 보였다. 태고의 밀림도 창검이 늘어선것처럼 장엄하게 안겨왔다.

장군님께서서는 주변의 지형을 두루 살피시고나서 부대에 휴식명령을 내리시였다.

그러시고는 지휘관들을 부르시어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래일아침 해 떠오를무렵에 1000명의 왜놈들이 여기로 달려들거요. 그러니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대원들을 꼭 휴식시키시오.》

장군님의 말씀을 들은 첫순간 지휘관들은 어리둥절해졌다.

누가 적후정찰을 갔다온것도 아니고 왜놈밀정을 잡아다가 심문한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실가? 언제 어느 시각에 몇놈이 달려든다는것까지 미리 다 알고 계시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였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것은 대원들에게 전투준비명령을 내리시지 않고 휴식명령을 주신것이였다.

아무리 휴식이 필요하다 해도 싸움준비는 해놓고 봐야 하지 않을까? 대원들은 못내 궁금하였다.

그러나 장군님의 말씀을 언제나 무조건 그대로 따르는 그들은 그이의 명령대로 꼭 휴식을 하였다.

그 이튿날 아침 여전히 날씨는 청명하였다.

동녘하늘에 아름다운 감빛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방금 해가 떠오르려는 순간이였다.

바로 이때 산아래에서 절버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왜놈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에 왜놈들이 나타난것이였다.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제스스로 전투준비를 갖추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이 일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태연하게 앉아 책만 보고계시였다.

대원들은 모두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장군님만 살피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여전히 책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였다.



왜놈들의 발자국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고 말소리는 그 뜻을 헤아릴 정도로 분명하게 들려왔다.

어떤 대원들은 저도 무르게 총알을 재우고 방아쇠에 손을 가져갔다.

이때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드디어 보시던 책을 덮고 움쭉 일어서시더니 산아래를 굽어보시었다.

《허허, 이놈들이 많이도 게바라울랐군.》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혼자말씀처럼 하시었다.

그러시면서도 장군님께서서는 그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자 동무들, 노래나 부릅시다!》 하고 대원들을 향해 말씀하시었다.

노래를 부르다니? 대원들은 영문을 몰라 모두 얼터름해있었다.

오직 한 대원만이 조용히 《아리랑》을 불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를 넘어간다

그 대원이 선창을 떼자 아연해서 장군님만 쳐다보던 대원들도 하나 둘 《아리랑》을 따라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맑은 하늘에 구름 몇장이 모여들더니 갑자기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조용히 내리는 부슬비소리는 마치도 누에가 뽕잎먹는 소리처럼 은은하게 울렸다.

대원들은 모두 신비경에 사로잡혀 눈을 슴벅거리면서 부슬비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에 잠겼다.

부슬비소리는 무엇인가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대원들은 노래를 부르자 온몸에서 힘이 부쩍부쩍 솟구쳤다.

그 노래소리와 함께 이상하게도 비발은 점점 다 굽어지며 후두둑후두둑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아리랑》의 노래가락은 온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노래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발은 점점 더 굽어져서 창살같은 소낙비로 변했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낙비에 함뿍 젖은 왜놈들은 강물에 빠진 꽃병아리꼴이 되고말았다. 놈들은 겁이 잔뜩 났다.

《김일성장군이 천지조화를 부린다더니 그게 정말이구나!》

왜놈들은 수군수군 이런 말을 하며 공포감에 사로잡혀있었다.

적들은 제놈들의 기침소리, 삭정이 부러지는 소리에 도 와들 놀라군하였다.

유격대원들은 산마루에서 그냥 《아리랑》 노래를 신이 나서 불렀다.

산우에서 울려 퍼지는 《아리랑》의 노래소리는 왜놈들의 총소리를 짓누르며 바다처럼 가없이 펼쳐진 백두밀림을 뒤흔들었다.

너대원들이 멋들어지게 넘기는 가락에 남대원들의 굵직한 목소리가 받쳐지니 산악이 온통 《아리랑》 소리에 휩싸여버렸다.

나무도 바위도 아니 온 산천이 《아리랑》 노래를 부르는것 같았다.

왜놈들은 비에 젖고 기가 질려서 온몸은 사시나 무처럼 떨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놓았다.

놈들은 하늘땅을 울리는 《아리랑》의 노래가 그 어떤 하늘의 계시같기도 하고 김일성장군이 도술을 써서 무거운 죽음을 안기려고 내리는 신호같기도 하여 더 올라가지 못했다.

《아리랑》의 노래소리는 왜놈들의 사지를 얼कु어 놓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소낙비는 이번엔 폭우로 변했다. 마치도 바다를 거꾸로 엮어놓은듯하였다. 게다가 태풍까지 일었다.

썩! 썩! 억수로 쏟아지는 폭우는 골짜기들에 물이 사뭇치며 흘러들게 하였다.

그리하여 산골짜기들엔 어느새 호수가 생겼다.

태풍이 들이닥쳐 호수에서는 세찬 파도가 일고 물갈기가 날렸다.

물에 빠진 왜놈들은 살아보겠다고 물을 팔짝팔짝 먹으면서 허우적거렸다.

그러나 일렁이는 파도에 묻혀 왜놈들은 물속에 영영 다시 솟구치지 못했다.

왜놈의 군사는 총 한방 쏘아보지 못하고 몽땅 물귀신이 되고말았다.

그때부터 이 근방에서는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 비가 온다는 말과 함께 그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하군하였다.

그런데 그후 언젠가 이 소문을 들은 풍채좋은 한 백발로인이 가물이 든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저도 모르게 《아리랑》 노래를 불렀는데 그날 정말 비가 흠뻑 내렸던것이다.

그후부터 서간도일대에서는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 비가 온다는 소문이 더 자자하게 퍼지게 되었다.

《영화예술부문에서 당면하게 틀어쥐고 나가야 할 주공전선의 다른 하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반영한 새로운 혁명영화를 창작하는것입니다.》

김정일

위대한 업적

## 1. 인민의 념원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혁명적가정을 영화화면을 통해 보고싶어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절절한 소망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소망을 깊이 헤아리시고 작가들을 혁명영화창조어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혁명적가정을 취급한 혁명적인 영화문학을 훌륭히 창작하여 혁명영화창조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세심히 지도하시였다.

##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와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형상한 영화문학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창작하는 문제를 중요한 사업으로 제시하시고 이를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실재한 력사적사건과 생활적사실에 기초하여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며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하는 문제를 수령의 혁명력사와 혁명가정을 형상하는 영화문학창작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이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혁명적가정을 형상할 첫 작품으로서 혁명영화 《누리에 붙는 불》창작을 발기하시고 그의 영화문학창작으로 작가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그런데 작가들은 처음 영화문학을 그이께서 의도하시는데로 만들지 못하였다.

작품에 력사적사실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주제를 옹계 살리지 못하였고 당대의 생활도 바로 그리지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미숙한 작품을 친히 보아주시고 수정방향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실재하였던 력사적사실에 철저히 의거하여 작품의 이야기를 꾸리고 인간관계를 설정하도록 하시였으며 귀중한 력사자료까지 알려주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격에 매우 활달하시였다는것, 김형권동지를 일제에게 밀고한 최가놈이 독립군에서 총관까지 하던자이며 강반석어머

님의 손에서 3년간이나 밥을 얻어먹였고 김형직선생님의 장례식때에는 배감투를 쓰고 노죽을 부리던 자라는것 등은 모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들려주신 자료들을 그대로 옮겨놓은것들이다.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고 흥분된 심정으로 영화문학을 다시 썼고 이에 따라 영화를 완성해나갔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앞둔 1977년 4월 12일에는 혁명영화 《누리에 붙는 불》의 두번째 작업필름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올리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새벽 5시가 넘도록 영화를 보시고나서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영화는 인간학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취급하는 작품이라고 하여 격식화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혁명영화에서 인간을 잘 그리는것이 중요하며 그러자면 형상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혁명가를 인간에도 없는 그저 공식적이고 딱딱한 사람으로 그려내다보니 영화가 인간학으로 되지 못하고 강연제강처럼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영화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레를 들어 분석해주시였다.

작가들은 혁명영화로서의 교양적가치와 의의를 생각하면서 형상을 정중성있고 존엄성있게 그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여 영화문학에서 그 일면만을 강조하였다.

그러다보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안도집 장면에서 강반석어머님과 김형권동지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도 형수분과 시동생

분이 서로 다정한 가정적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야겠으나 마치 어머님께서 어느 지하공작원을 만나 파업을 주시는 식으로 격식을 차리고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는것으로 처리 되어있었다.

김형권동지와 다른 무장소조원들과의 관계도 지도하는 사람과 지도받는 사람의 관계로 격식화하고 있었다.

이러한것은 당시의 력사적사실로 보나 생활적형상을 창조할데 대한 요구로 보나 진실하지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적인 영화문학 창작에서 작가들이 오늘의 견지에서 작품을 쓰기때문에 형상이 어색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창작가들은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형상하는 작품에서 존엄성있게 대하는것과 형상을 생활적으로 창조하는것을 같이 보아서는 안된다고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였다가 창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과 혁명적가정을 형상할 자격을 아직 갖추지 못하였다고 심각하게 지적하시였다.

창작가들이 공산주의적인간학의 요구를 구현할 대신 정치성일면만을 내세우면서 형상을 격식화하여 딱딱하게 묘사한것은 단순한 기량이나 기교문제가 아니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같은 그런 높고 숭고한 세계를 그릴수 있게 창작가들이 준비되어있지 못하였으며 또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있는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책감으로 하여 머리를 들지 못하고있는 창작가들을 둘러보시며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에 대한 영화는 분장술만 있으면 해결되는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인간들의 형상을 깊이있게 창조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위대한 인간들의 생활을 잘 아는 창작가들만이 위대한 작품을 창조할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은 공산주의인간학의 요구를 구현하기 위한 근본방도와 창작가들의 기본 자세와 립장을 밝혀주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그이께서는 혁명가의 인간적품모를 생활을 통하여 진실하게 그려내지 못한 장면들을 하나하나 분석하시면서 혁명영화에서 위대한 인간들의 생활을 깊이있게 그리기 위한 구체적인 형상방도들을 일깨워주시고 수정대안까지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영화에서 보는것과 같이 강반석어머님께서 소담한 꽃들이 만발한 들판으로 청년들에

게 에워싸여 밝은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시는 자로운 모습이 불멸의 화폭으로 형상되게 되었다.

그리고 여름밤 안도의 추너낮은 초가집에서 날이 새면 간고한 국내진출의 길로 떠나실 시동생분을 위하여 가물거리는 등잔불밑에서 밤이 깊도록 새옷을 지으시며 시동생분과 함께 떠나오신 만경대집에 대한 그리움에 잠기시여 잊을수 없는 추억을 더듬으시는 부드럽고 인자하신 어머님의 모습을 담을수 있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이처럼 인정깊고 다정다감하신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지니신 강반석어머님의 형상과 살뜰하고 정다운 시동생분과의 관계가 생겨날수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국내에서의 밤장면도 것처럼 정서가 넘치는 시적인 장면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형상할수 있었다. 그이께서는 처음 이 장면이 인간학적으로 잘 그려지지 못하고 지내 딱딱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산속에서 그런 정황에 부닥치게 되면 자연히 지난날을 회고하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던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여 그런것만큼 김형권선생도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도 조선식 별이 더 빛나고 아름답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김형직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김형권선생이 혁명의 길에 나서서 지난날 형님에게서 교양받은 인상깊은것들을 회고하게 하여야 형님과 혈연적으로 련계된것을 보여주고 혁명전통의 뿌리도 옳게 보여줄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김형직선생에 대하여는 《지원》에 대한 이야기, 애국지사들을 불러다 교양하신 이야기, 일제놈들의 눈을 피해다니면서 별의별 고생을 다하시던 이야기를 비롯하여 할것이 많다고 하시면서 산속의 밤장면을 기쁨지게 형상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이 장면에서 김형권동지께서 밤하늘에 아름답게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시를 읊으신 다음 우리 형님이 시를 좋아하시고 조카들도 아버지한테서 풍금을 배워 잘 타신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시는것으로 형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김형직선생께서 혁명활동을 하시기 위하여 가시는곳마다 의원간판을 걸어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약처방을 떼주셨는데 그것은 단순한 약처방이 아니라 혁명의 처방이었다는 뜻깊은 이야기로 보충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온 일가가 김형직선생님을 따라 혁명의 길에 나섰고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원》의 애국사상으로 수많은 청년들을 교양하시었으며 오늘의 투쟁뿐아니라 독립된 조국의 미래를 꿈꾸시었다는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새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처음에 형상되었던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산속의 밤장면은 정서적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인상깊은 장면으로 완성될수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김형직동지와 다른 무장소조원들과의 관계도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는 조선의 진정한 공산주의자들 사이의 아름다운 인간관계로 감명깊게 보여줄수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렇듯 비상한 열정과 빛나는 예지로 매 장면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 주심으로써 사상에술적으로 완벽한 혁명영화로 완성시켜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한 혁명영화 《백두산》 창작과정도 세심히 지도하여주시었다.

1980년 4월초 어느날 밤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영화 《백두산》의 영화문학을 쓴 작가들을 비롯한 창작가들과 함께 이 영화의 작업필름을 보아주시었다.

깊은 사색속에 영화를 다 보고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영화의 첫부분은 좋고 눈물나는 장면들도 있다고 하시었다.

그이의 말씀이 계시자 창작가들은 감격과 기쁨을 금할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의도를 다는 깨닫지 못하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영화가 좋기는 한데 어쩐지 허전한감이 있다고 하시면서 영화의 구성형식을 통일시키지 않았기때문에 시적형식으로 된 장면들도 있고 극적으로 생활을 전개한 장면들도 있다고 지적하시었다.

그제서야 창작가들은 자신들이 이 영화의 독특한 문법을 찾지 못하고있었다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작품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섣뜻 결심이지 않았다.

창작가들은 작품에서 시의 흐름을 타면서 공백을 둔데가 있었는데 그 공백을 마치도 형상적인 의도가 있는 비약의 수법처럼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이제 이 모든 공백을 생활적인 화면형성으로 메우게 된다면 영화제작은 그만큼 늦어질것이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바라시는대로 영화를 4월 15일에 위대한 수령님께 드릴수 없게 될것이었다.

창작가들의 마음이 다 그러하였지만 특히 작품의 각색자인 영화문학작가는 난감해지는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창작가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라신듯 예지로 빛나는 안광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시를 혁명가극의 방창식으로 주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이 영화의 문법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는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순간 창작가들은 그이의 비범한 예지에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대로 시를 방창처럼 쓰면 떠있는 모든 장면들에 생활적진실감을 주면서도 영화에 강한 정론성을 주게 될것이었다.

시를 혁명가극의 방창형식으로 쓰는 영화!

그것은 인류의 영화사가 아직 모르던 새로운 형식의 영화였다.

창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것처럼 비범한 예지앞에 깊이 머리숙이며 그이의 가르치심을 하나하나 심장깊이 새겨나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어 영화를 완성하면 원작인 서사시보다 낫게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원작에 있는 시라도 1980년대 사람들의 사상감정에 맞지 않으면 고쳐써넣어야 하며 원작에 없는 시라도 장면에 필요하면 새로 만들어 넣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이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작품에 더 잘 모실수 있는 방도를 비롯하여 작품의 완성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영화문학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대로 영화문학을 다시 완성해나갔다.

그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시는데로 시를 혁명가극의 방창식으로 주는 영화문법의 요구를 하나하나 구현해나감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한 혁명영화 《백두산》이 사상에술적으로 훌륭히 창작완성되게 되었다.

## 하늘에서 내려온 송아지

언젠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서부지구에 자리잡고있는 어느 한 목장을 현지지도하신적이 있었다.

그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젖소우리에 들리시여 여러가지 품종의 젖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해당부문 일군들을 부르시여 순수한 우량품종의 젖소를 사올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곧 일군을 외국에 파견하기 위한 조직사업이 진행되였다.

이 과업을 받은 일군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짐무실로 들어섰다.

《운동무, 어서 오시오.》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기다리신듯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였다.

《이번에 좀 힘든 과업을 수행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순수한 우량품종의 젖소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이 세상 끝까지 다 훑어서라도 돈을 아끼지 말고 젖소 한마리를 꼭 사와야 하겠습니까. 어디에든 반드시 있을것입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많은 우유를 먹이려면 지금 있는 젖소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품종의 젖소를 사와야 하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꼭 사오겠습니다. 그런데 ...》

그 일군은 더 말씀을 드리려 하다가 무엇이 주저되는지 말끝을 잇지 못했다.

《무슨 애로가 있습니까? 어서 말하십시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심한 어조로 물으시였다.

《저 ...》

그는 여전히 말을 떼지 못했다. 그는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오래동안 일해온 일군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도 여러번 만나뵈워 웬만한 문제는 별로 스스럼없이 말씀드리곤하였다.

그런데 말을 자꾸만 갑자르는것을 보신 그이께서는 매우 딱한 어떤 일이 제기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였다.

그러니 더 궁금하고 마음이 조급해지시였다.

《어서 말하십시오. 일없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인정어린 말씀에 그는 그제야 기운을 얻은듯 자세를 바로하고 말씀드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젖소를 한마리 더 사왔으면 합니다.》

《한마디 더 사오다니? 그럼 두마리 사온단말입니까?》

《예, 그래야 젖소를 더 빨리 번식시킬수...》

드디어 그 일군의 마음을 아신 지도자동지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알겠습니다. 동무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운동무, 걱정말고 제일 훌륭하고 순수한 우량종 젖소 한마리를 사오도록 하시오.

그 젖소가 동무의 마음을 다 풀어줄겁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들은 일군은 그제야 마음이 놓이였다.

그는 자기 사무실로 돌아오자 우선 여러 나라에 나가있는 대사관들에 전화도 걸고 전보도 치고 편지도 썼다.

그런다음 순수한 우량종 젖소가 있을만한 몇개 나라는 자기가 직접 가보기로 하였다.

이내 려행준비를 갖춘 그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횡단하며 여러 나라를 가보았으나 어디에도 이렇다할 우량종 젖소가 없었다.

무리등이 휘황한 외국의 어느 한 호텔의 폭신한 쏘파에 몸을 맡긴 그 일군은 마음이 조급해났다.

어떻게 할것인가? 그는 다음날 또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찾아가보기로 하였다.

이때 호텔관리원이 방금 온 신문을 탁자우에 조심스레 놓고 나갔다.

그는 무심결에 신문을 펼쳐들었다.

그 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이름있는 신문이었다.  
건성으로 신문을 훑어보던 그는 광고란에 눈길을 멈추고 잔잔히 읽어나갔다.

거기에 바로 자기가 가려는 북유럽의 어느 한 목장에 순수한 우량품종의 젖소가 있다는 소식이 실려있었던것이다.

그는 그 길로 달려나가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를 찾아갔다.

수도에서 800여키로 떨어진 깊은 산골, 산림이 우거진 골짜기에 자리잡은 목장에 얼마 안되는 우량종 젖소가 있었다.

(이젠 됐구나!) 그는 한시름이 놓였다.

뭐니뭐니해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기뻐하실것을 생각하니 마음은 하늘을 날것만 같았다.

그는 제일 크고 영양상태가 좋은 젖소 한마리를 샀다.

다음날 비행기가 도착하자 그는 젖소를 싣고 조국을 향하여 떠났다.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신 과업을 수행했다는 안도감으로 하여 어느정도 온몸의 탕개가 좀 풀리는듯싶었다. 그리면서도 무언가 가슴한구석엔 채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남아있어 마음이 허전함을 어쩔수가 없었다.

얼마나 오래간만에 찾아가는 조국인가. 그 일군은 마치 몇년만에 찾아가는것처럼 마음은 벌써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는 조국에 가있었다. 그는 눈을 스르르 감았다.

얼마후 눈을 떠보니 시창에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이 비껴들었다. 저 멀리 아름다운 조국의 산천도 내려다보였다.

그는 얼른 젖소를 싣은 비행기 뒤편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오면서 30분이 멀다하게 젖소 있는곳으로 가보군하였는데 그때마다 편안하게 엎디어 새김질을 하던 젖소가 갑자기 두마리로 늘어난것이였다.

한마리는 엄지소요 다른 한마리는 송아지였다.

자세히 보니 젖소가 새끼를 낳은것이였다.

(어떻게 되어 젖소가 새끼를 낳았을가?)

방금전까지도 젖소는 새끼를 뺀 그 어떤 징후도 없었었다.

의아한 눈길로 여기저기 살펴보던 그는 시창밖으로 조국의 산천이 굽어보이자 불현듯 짐작되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젖소 두마리를 사왔으면 한다고 하였을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며 그 심정을 알만하다고 하시더니 바로 이것을 예견하시고 하신 말씀이시였다.

비행기가 조국의 령공에 들어서자 젖소가 새끼를 낳은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르게 생각할수가 없었다.

비행장에 내린 그는 젖소와 송아지를 안전하게 목장에 실어보낸 다음 이 사실을 보고드리기 위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찾아갔다.

그이께서는 그 일군을 만나시자 수고했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그가 비행기안에서 젖소가 송아지를 낳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이미 알고계신듯 《그 송아지는 하늘에서 내려온것입니다. 잘 길러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하늘에서 내려온 송아지!》

그는 저도 모르게 따라외었다.

그 일군은 송아지가 태어난것이 우연한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였다.

젖소를 한마리만 사오자고 하신것도 다 이런 기적과 관련이 있는것 같았다.

이때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오자 그이께서는 수화기를 드시였다.

(우리 인민들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용암처럼 뜨거운 사랑은 이런 기적을 낳게 하였구나.)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뜨거운 마음으로 경건히 우러러보았다.

그이께서는 태연한 표정으로 여전히 전화를 받으시였다.

그후 사람들은 이 송아지를 하늘에서 내려온 송아지라고 하면서 매우 신성하게 대하였다.

그로부터 한해가 지난 다음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목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수령님이시는 벌써 크게 자라 엄지만해진 송아지를 보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송아지》라고 하시면서 잘 키우라고 말씀하시였다.

《하늘에서 내려온 송아지》는 2년도 안되어 엄마젖소보다 더 많은 젖을 짜게 되였다고 한다.

그때 가져온 젖소는 벌써 많이 번식되어 우리나라 여러 목장들에서 우유를 생산하고있다.

하늘에서 내려 온 송아지! —이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사랑의 정화이다.

련시

## 1시간 5분

김정근

### 마당에서

《팀 스피리트》의 검은 선단이  
조선해협을 물머리를 일컬 때  
전쟁광신자의 담배진 오른 누런 손끝이  
우리의 동해를 가리킬 때  
세계의 팽팽한 신경줄이  
위도와 경도의 얽음새처럼  
지구의 흥벽을 조일 때

#### 김정일령장

그이께서는  
그 어느 군단도 아닌  
전연초소도 아닌  
송도원 숲숲우에 나래 펼친  
국제소년단야영소  
처마밑에 들어서신다

만면에 담으신 미소  
활달하신 걸음  
기쁘시여 만족하시여  
정문 손잡이를 잡으시다가  
걸음을 돌려 다시 마당에 내리시여  
야영소 전경을 바라보시는 그이

평장하다고  
아쌀하게 잘 지었다고  
볼수록 멋이 있다고  
마당을 뜨지 못하시는 그이

3월의 술바람이  
그이의 옷자락에 매달려 어리광치고  
백사장에 밀려오는 흰파도  
웃는 아이처럼

팔벌려 그이앞에 달려오고...

그 안팎에서 뿜는 빛발에  
처마들이 저리도 밝아진것인가  
창문도  
벽체도  
잔디도  
온통 환희의 빛에 싸이는데

우리 《왕》들이 살 집이라고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다고  
자본주의나라에서나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에서는  
애당초 엄두도 낼수 없다고  
찌렁찌렁 선언처럼 울리는 음성  
지붕들도 활개치며 더 높아지는듯

검은 포신을 울리며 발작하는  
제국주의의 허장성세가  
창창한 미래를 안고 담보하는  
사회주의 조선의 위용앞에  
저 방과제 한끝에 뛰어올랐다가  
말라버리는 물거품같이  
시시풍덩 자취를 사렸으니

5대양 6대주의 세계지도가  
야영소 하얀 벽에 옮겨앉아  
가벼이 마당을 건너시는  
희세의 령장 그이의 자욱을  
경건히  
경모에 차  
우러르고있어라

### 아주 좋아!

여기가 생일식당이란말이지  
집떠난 아이들  
여기서 생일상을 받는단말이지  
좋아!

생일상을  
부모되어  
우리가 차려준단말이지  
좋아!

한학급의 꼬마손님들  
모여앉아  
축하도 해준단말이지  
아주 좋아!

청하면  
우리도 다아—  
와야 한단말이지

아주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사회주의가 뭐겠소  
이것이  
사회주의가 아니겠소

하하하...

## 사회주의가 아이들 눈빛이라면

사회주의가  
미래로 향한  
아이들 밝은 눈빛이라면  
자본주의는  
태일을 잃은  
김빠진 폐인의 흐려진 동공

사회주의가  
푸른 하늘에 펼쳐이는  
랑만에 찬 야영기발이라면  
자본주의는  
시궁창에 떨어진  
자락없는 결레쪼각

사회주의가  
흰 파도를 헤가르며 내젓는  
아이들의 싱싱한 두팔이라면  
자본주의는  
마약중독자의 피기 가신  
늘어진 두팔

사회주의가  
밝은 처마를 떠받든  
야영소 기둥이라면  
자본주의는  
도살장 검은 추녀아래 허리 굽은  
구새먹은 곱새기둥

사회주의는  
해돋이 바다 향해 달려가는  
아이들의 고고성  
자본주의는  
떼까마귀 해를 치는  
북망산의 단발마소리

송도원야영소 이 하늘밑에선  
광명과 암흑처럼  
두 세계가  
쪽을 가르듯  
명명  
백백하다!

## 하늘과 땅의 대화

하늘 - 땅아  
나와 자리를 좀 바꾸자구나  
나도 한번  
아이들의 궁전 품어보게

땅 - 하늘아  
시샘 말거라  
네 우에야  
천당이 있지 않느냐

하늘 - 천당도 극락도  
다 내려보낼테니  
아이들의 궁전을  
올려보내주려마

땅 - 아이들의 웃음이  
나의 천당이란다  
아이들 기쁨이  
나의 극락이란다



## 춤추고 싶다

여기 정문에 들어서면  
어른들도 아이되어  
나뭇기는 야영기 자락에  
제 마음을 싣고 날아본다

여기 창문을 열면  
세계가 황홀해지고  
삶의 환희로움이  
가슴에 굵는다

여기 로대에 나서면  
밝은 미래가 깃을 치며

파도를 넘나는 흰새같이  
머리위로 날아옴다

우리 세상 너무 좋아  
누구라없이  
마주 잡고  
춤추고싶다

오!  
휙어지는 지구를 불안고  
춤추고싶다  
춤추고싶다!

## 인류에게 고향

세계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지구의 어느 땅덩이가  
고아들의 눈물에 젖고  
아이들이 동냥질을 하고  
둥지없는 들새처럼  
황막한 불모지에 조막발을 찍으며  
고사리손을 흔들며 호곡하는  
어린것들의 때이른 너두리가  
당신들 가슴팍을 저미는 이 세기에

동방의 사회주의나라 조선  
여기 해쫓는 명당자리에  
아이들의 희망을 처마끝에 날리며  
이런 궁궐이 솟아올랐다는것은  
얼마나 큰 인류의 경사인가

자본주의 독해물이  
물목이 막힌 시궁창의 오물처럼  
지구의 골목골목들에 쓸어들어  
순진한 어린 뉘에까지 스며들며  
무지와 타락과 말세기적꼭두각시춤에 휘말려들 때

사회주의 신선한 바람을  
어린 가슴에 부어주며  
인간의 참삶을 그 뉘들에 심어주며  
그처럼 창창한 래일을 펼쳐간다는것은  
얼마나 큰 인류의 자랑인가

돈이 남아돌아 세운 집이 아니다  
강도늑시같은 딸라가  
눈먼 《고기》들의 아가미를 걸며

지구를 희롱하는 혼탁한 세기에  
어려움을 헤치며  
《봉쇄》환을 박차며  
인류의 희망봉으로 줄리차게 오르며  
그 봉이에 날아옴 미래의 나래를  
이처럼 억세게 키워감은  
얼마나 큰 인류의 기쁨이나

아버지들  
어머니들

때로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진펄길을 헤쳐간들 어떠며  
때로 휴식날에  
목고채를 떠멘들 어떠랴

우리 아이들이  
저런 궁전에 앉아 노래부르고  
세상이 밝아지도록  
저렇게 웃음을 날리며 소리치며 크는데...

아이들이 없어보라  
그애들이 굶주려보라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그늘져보라  
세계는 얼마나 어두워지고  
우리들 또한  
무슨 재미로 산단말인가  
밝은 래일을 보며  
오늘에 살며 일한다는것은  
얼마나 큰 인류의 행운이나

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이런 정치를 펴시고  
혁명의 사령탑에 서시어  
광명한 세계에 우리를 이끌어가심은  
다시없는 인류의 영광!

세계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힘을 내라  
용진가를 부르라

머리를 들고  
앞을 보라!

희망의 횃불 치며  
아이들을 떠메고가는 조선!  
광희로운 미래는  
누구와 손을 잡는가  
보라!  
두고 보라!

## 1 시간 5 분

오셨다  
가신 시간은  
1 시간 5 분  
무한대한 시공간에는  
흔적도 없을  
짧은 한토막

그이의 자옥따라 흐른  
그 시간에  
미래로 향한  
조국의 보폭 얼마나 커졌는가

아이들  
미래...  
이 싱싱한 단어들이  
그이의 품에서 솟아나  
사회주의가 뿜는 빛으로  
세계는 얼마나 밝아졌는가

폭풍을 헤치며  
파도를 가르며

조선의 림름한 채구가  
그 시간에  
아이들의 기쁨에 부풀어  
지구우에 얼마나 더 높이 키를 솟구었는가

시간으로 잴수 없으라  
어제와  
오늘  
먼 미래까지를  
준마의 고삐처럼 튼튼히 거머쥐시고  
사업하시고 사색하시고 떨쳐가시는  
그이의 일과

아아!  
1 시간 5 분  
**김정일** 동지  
누리에 펼칠 새 세계를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얼마나 더 가까이  
우리 앞으로 당겨오셨는가!

## 가사

# 김정일, 그이는 우리 아버지

박필모

이 땅의 험한 령을 넘고넘으며  
인민 위해 베푸신 그 사랑 얼마이시랴  
농장마을 탄전마을 가시는곳마다  
위대한 사랑의 새 전설 꽃피어나네  
**김정일**, 그이는 우리 아버지  
**김정일**, 그이는 인민의 아버지

웃자락 날리시던 날바다우에  
후손만대 행복누릴 기념비 솟아나고  
하늘땅을 길들이며 천지개벽 이룩하니

위대한 향도의 새 력사 이 땅에 흐르네  
**김정일**, 그이는 우리 아버지  
**김정일**, 그이는 인민의 아버지

인민을 위해가는 그 길이라면  
때식도 잊으시고 눈비도 맞으시네  
이 땅의 한끝까지 가고 또 가시며  
주체의 혁명위업 누리에 펼치시네  
**김정일**, 그이는 우리 아버지  
**김정일**, 그이는 인민의 아버지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령도선은 현실주제작품의 기본생리

최길상

문학에 내용을 주는것은 작가자신이 아니라 먼저 그 시대의 생활이다. 작가는 자기 세대 생활이 그에게 가리켜주고 암시하는것을 누구보다도 뜨겁고 예리하게 감수하면서 시대와 생활의 의미를 미학적으로 분석평가하고 형상으로 구현하게 된다. 따라서 작가는 동시대인들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시대정신과 생활의 내용, 그 본질을 앞장서서 대변해나서게 되며 시대와 생활을 이끄는 전위적기수, 그 선도자로 되는것이다.

사회주의위업, 인류의 자주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이 류레없이 간고하고 참예하면서도 신념과 투쟁이 락관으로 일관된 현시대에 우리 문학을 일관하는 내용과 특징도 바로 이렇게 하여 규정된다고 말할수 있다.

오늘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력사의 이 엄숙한 진리는 자주적인류의 신념의 기치로 되고있다.

이것은 인류가 근 한세기동안 간고한 시련의 언덕을 넘으며 전인민담의 사회주의길을 개척하면서 생활체험을 통하여 터득한 의지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고립시키고 파괴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이 전례없이 악날해진 엄혹한 정세하에서도 추호의 주저와 동요도 없이 주체의 궤도를 따라 승승장구하는 우리의 현실은 력사의 이 진리를 생동하게 립증하고있으며 사회주의가 좌절된 많은 나라들에서 인간의 자주적인 모든것이 여지없이 유린말살되고있는 파국상이 또한 이를 반증해주고있다.

이 엄혹한 력사의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 문학에 내용을 주고있으며 그 특징적면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문학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으며 그 생명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형상으로 확증하여야 한다.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이 중대한 사명을 다하기 위한 근본담보가 바로 현실생활을 반영한 모든 작품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선을 기본생리로 하는것이다.

문학의 모든 형상요소는 생명유기체와 같이 긴밀히 련관되어있고 작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체의 생리에 따라 썩트고 자라나며 움직여나간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의 생리란 형상을 하나의 생명유기체와 같이 서로 조화시키고 살아 숨쉬게 하며 생활을

그자체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진실하게 재현하는 원리를 말한다.》

문학의 생리는 문학이 문학으로서의 생명을 가지게 하며 작품의 형상을 유기체와 같이 살아움직이도록 맞물려주고 이끌어나가는 원리이다.

작가가 주관에 사로잡혀 작품의 생리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면 형상을 죽여버리고 성격과 생활을 외곡하게 된다.

모든 현실주제의 작품에서 기본생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선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선이 현실주제의 모든 작품들에서 기본생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시대정신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 문학의 본성적요구로부터 나서는것이다.

시대정신은 문학의 생명이라고 말할수 있다. 시대정신을 옳게 반영하여야 사람들에게 시대의 산뜻을 고취할수 있고 문학이 시대와 생활을 이끄는 선도적기치로 될수 있다. 어떤 경우를 물론하고 시대정신을 옳게 반영하지 못하면 그 문학은 시대의 지향과 념원을 대변할수 없으며 생활의 교과서로 될수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령도에 충성과 효성을 다하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옹호고수하려는것을 우리 시대의 지향과 념원이며 의지이다.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의 좌절과 함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치열한 대결전이 첨예하게 벌어지고있는 이때 세계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사회주의의 재건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회주의가 최악의 역경을 겪고있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기에 자주적인류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재건을 위하여 힘차게 싸우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에 지금 세계는 경탄을 금치 못해하며 끝없이 매혹되고있으며 우리 시대가 낳은 걸출한 위인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현시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선을 현실주제의 모든 작품들에 형상의 필수적인 요소로, 기본생리로 하는것은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에 이바지하는 문학에 있어서 그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우리의 조국도 없다는 시대의 울림은 바로 당신이 없으면 사회주의위업, 인류의 자주위업도 없다는 보다 더 큰 의미를 안고 온 지구를 세차게 진감시키고있다.

한마디로 오늘의 시대정신은 가요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에서 격동적으로 노래한 것과 같이 《사나운 폭풍도 쳐몰아내고 신념을 안겨준》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사회주의운명의 향도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칭송하며 그이의 탁월한 정도를 떠나서는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도 민족의 번영도 있을수 없다는것이다.

우리 문학은 시대정신을 투철히 반영함으로써만이 그 생명력을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으며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백방으로 높일수 있다. 이 근본담보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도선을 형상의 기본생리로 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정도선이 현실주제의 작품에서 기본생리로 되는것은 또한 주체사실주의창작 방법의 근본요구를 실현하는 담보로 되기 때문이다.

주체사실주의는 인류문예사상 현실과 문학과와의 관계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정확히 해결하고있다.

우리 문학은 현실에 대한 가장 진실한 반영을 통하여 그 생명력과 감화력을 강화해나가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진실성은 문학의 본성적요구이다.

진실성은 작품에 그려진 생활이 현실과 같은가, 같다면 어느 정도 같은가 하는것을 재는 척도로 된다. 아무리 묘사가 세련되고 구성이 짜인 작품이라 하여도 그것이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한것이라면 쓸모가 없다. 문학작품창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진실성문제이다.

문학작품에서 진실성을 살리자면 형상에 생활의 본질을 반영하여야 한다. 작품에 그려진 형상이 생활과 현상적으로는 같아도 생활의 본질에 어긋날 때에는 진실성을 가질수 없다. 오직 형상이 생활의 본질과 일치하고 본질적인 세부로 차넘쳐야 작품이 진실하게 된다.

오늘 우리 인민의 모든 현실생활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도와 운명적으로 밀착되어있다.

오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위대한 정도자로, 민족과 운명의 화신으로 높이 우러르는것은 우리 인민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며 사상과 리념에 관통되어있는 근본핵이다.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를 두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정도에 대하여 생각하며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누리고있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과 민족적존엄과 긍지를 두고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도의 위대성과 혈연성속에서 심장으로 느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도를 떠나서는 민족의 운명도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도 있을수 없으며 지어 생활의 사소한 부문의 레사로온 일까지도 그이의 정도가 비껴여 락으로 되고있다는것이 우리 시대와 인간의 온 뉘을 지배하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숭배심과 신뢰심은 청신한 대기와도 같이 우리 생

활과 운명의 모든 세포들에 뜨겁게 호흡되어 짝 들어차있다.

이것은 격변하는 첨예한 정세속에서 민족의 운명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이 전례없는 엄혹한 시련을 겪고있는 현시점에서 더욱 사활적인 것으로 되고있다.

바로 이 위대한 현실이 우리 생활의 본질이다. 시대정신과 생활의 진실한 반영으로써 사람들에게 참다운 삶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투쟁으로 고무하는 생활의 철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은 응당 우리 시대의 호흡과 지향과 념원을 옹계 반영하여야 한다. 이 생활의 본질을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문학작품창작에서 현실과 문학과의 관계를 가장 올바르게 해결할수 있으며 문학작품의 생명인 진실성을 보장할수 있다.

현실주제의 작품에서 현실생활문제를 가장 올바르게 해결하며 문학의 본성적요구인 진실성을 옹계 살리기 위한 근본담보가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도선을 기본생리로 하는것이다.

현실생활을 반영한 작품창작에서 이 기본생리를 옹계 파악하지 못하면 작가의 주관적의도와는 관계없이 생활을 외곡하게 되며 작품의 진실성을 살리지 못하게 된다.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이 무한히 다양한것만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도선을 구현하는 문제도 다양하게 실현되어야 한다.

종자의 특성과 주제의 요구에 따라 중편소설 《들쭉령의 세집》(신용선)에서와 같이 같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도선을 직접 체현시킬수도 있고 단편소설 《마지막 수표》(림재성 《문학신문》 1993년 27호)와 최근에 창작발표된 단편소설들에서 긍정적으로 시도되고있는것과 같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도를 받은 주인공의 체형세계를 통하여 구현할수도 있다.

여기에서 중편소설 《들쭉령의 세집》은 매우 좋은 시사를 주는 작품이다. 무엇보다도 중편소설양식에 처음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도선을 정면으로 그린데도 의의가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그이의 정도선이 깊이있으면서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간사랑의 서사시로 되게 큰 의미를 담고 형상적으로 구현되고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여기에서 중편소설 《들쭉령의 세집》은 매우 좋은 시사를 주는 작품이다. 작품에는 높은 산간지대인 들쭉령의 세집에까지 텔레비존을 보도록 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덕성에 대한 이야기가 기본줄거리로 놓여있다. 그러나 작품은 덕성자체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지니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인덕정치를 높이 배찬하는 송가로 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도는 들쭉령에 있는 세집에까지 텔레비존화를 실현해주시는 숭고한 사랑으로뿐아니라 우리 일군들로 하여금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바치며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되도록 해주시는 정도도 다시말하여

참다운 인민관을 소유하도록 해주시는 인간학적인 문제로 형상되고있다. 이리하여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은 모든 일꾼들이 참다운 인민의 봉사자, 인민에 대한 진정한 복무정신을 지니도록 이끌어주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이와는 달리 단편소설 《마지막 수표》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선을 정면으로 그리지는 않았지만 주인공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이를 부각하고있다. 작품은 화차생산과 수리에서 제일 긴요한 부분인 차축을 재생리용함으로써 수많은 특수강을 절약하기 위해 교통위원회의 한 책임일군이 오래동안 사장되어있던 설계도면의 마지막 비준란에 수표를 하는 이야기를 담고있는 짧고 아담한 이야기이다. 마모된 차축을 용착의 방법으로 재생리용하는 문제는 몇해전부터 지도되었으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그 설계도면의 마지막 수표란에 지배인은 지금껏 이름을 써넣지 못하고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교통위원회의 책임일군은 지난날 화선의 옛 전우였던 지배인에게 1211고지예로 직사포를 끌어올리던 때의 그 정신을 되살려 주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늘어 나는 수송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송혁명을 할데 대하여 밝혀주신 강령적가르치심을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체득시켜준다. 하기에 그는 어떤 타산으로 그 누구도 꺼려하는 마지막 비준란에 수표를 했는가고 묻는 《나》(취재하러 간 기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머 특별히 타산한것은 없었소... 비여있는 그 비준란을 보노라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하신 말씀이 그 모든 생각을 밀어버렸소.》 하면서 그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자기의 손을 꼭 잡으시고 해방직후부터 오늘까지 당에서는 철도운수부문에 많은 힘을 넣어왔지만 아직도 수송은 긴장하다고 하시며 철도수송을 꼭 한계단 추켜세우기를 바란다고 믿음을 주시던 그 신임을 안고 살기에 어떤 난관이 앞을 막아도 타산보다도 꼭 수행해야 한다는 신심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물론 이 작품이 당의 령도선구현에서 만족할만한 경지에 이르렀다고는 볼수 없다. 그러나 짧은 단편소설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선을 기본생리로 하고 주인공의 체험세계를 통해 이를 해결한것은 긍정적인 시사를 준다.

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선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령도자와 인민의 혈연적인 령계를 작품에 잘 반영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와 인민의 혈연적련계는 오늘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믿고 따르는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성이 있으며 지금 우리 나라에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쳐있다. 위대한 령도자를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력사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인간세계이다. 이 하나의 대가정속에

서 령도자와 인민의 혈연적단결이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있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고락을 같이해나가는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에게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충직하게 싸워나가는 오늘처럼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가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른 때는 일찌기 없었다.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혁명적풍모는 위대한 령도자를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따르는 절대적인 신뢰의 숭고한 발현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의 령도자와 인민들사이에 사랑과 믿음이 담긴 뜻깊은 회답서한들과 충성과 효성이 담긴 수많은 편지들이 오고가고있다. 여기에는 오직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만을 마음의 기둥으로, 위대한 어버이로 믿고 따르며 기쁜일도 가슴속 깊은 사연도 다 아뢰고 모든 운명을 맡기려는 우리 인민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

령도자와 인민의 혈연적련계에 기초하여 서로 돕고 고락을 같이해나가는 미더운 동지관계가 활짝 꽃피어나고있는것은 오늘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면모이다.

위대한 령도자의 숭고한 인간애, 동지애가 그대로 구현되어있기에 우리 사회에서는 날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가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위기일발의 순간에 서슴없이 한목숨바쳐 동지를 구원하며 사경에 처한 혁명동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피와 살도 아낌없이 떼주는 미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고 의지가치 할데 없는 늙은이들을 친혈육과 같이 돌봐주며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는 아름다운 공산주의적미풍들은 우리 나라의 그 어디에나 수없이 많다.

우리 사회에서 활짝 꽃피어나고있는 인간에 대한 사랑은 오직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바라시는것이라면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을 참된 삶과 행복으로 여기는 주체의 인생관, 미학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일이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사회에는 생기발란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노래가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오늘 영광스러운 우리 시대에 와서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인간세계,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진실하게 반영하려면 창작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선을 기본생리로 하여 령도자와 인민의 혈연적련계를 감동깊게 보여주어야 한다.

오늘 영광스러운 우리 시대에 와서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인간세계,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진실하게 반영하려면 창작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선을 기본생리로 하여 령도자와 인민의 혈연적련계를 감동깊게 보여주어야 한다.

최근에 작가들속에서 우리 시대에 발양되고있는 공산주의적소행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작품에 반영

하고있으며 특히 실화문학을 활발히 창작하려는 좋은 시도들이 경주되고있는것은 널리 장려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있어서 단편실화소설들인 《축복》(백철수 《조선문학》 1992. 10호), 《영웅의 모습》(김대성 1993년 14호)등은 좋은 탐구적노력이 깃든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우리 시대에 발양되고있는 숭고한 공산주의적소행들을 위대한 령도자와의 혈연적관계속에서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특히 《영웅의 모습》에서는 주인공 박순호분대장이 위기일발의 순간에 몸을 던져 도화선에 달린 불을 꺼서 사고를 방지하는 영웅적행동을 한 사실을 반영하면서 최고 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이 사실을 료해하시고 그를 영웅으로 높이 평가하시며 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배려하신 내용을 그리고있다. 주인공의 형상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사랑과 령도에 대한 묘사가 깔려있다.

이 작품들은 령도자와 인민의 혈연적관계에 기초하여 생활을 그리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선을 기본생리로 하고있기때문에 우리 생활의 본질을 진실하게 반영하고있으며 그만큼 예술적감화력이 크다.

이와 같이 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선을 직접 체현시킬수 있고 당조직선을 비롯한 정치조직선의 설정과 당일군의 형상,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통한 간접적인 형상방법으로도 구현할수 있다. 어느 경우를 물론하고 명백한것은 모든 현실주제의 작품들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선이 필수적인 형상조건으로, 기본생리로 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을 망각하고 옳게 구현하지 못할 때 그 작품은 시대와 인간과 생활의 지향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한 작품으로 될것이며 현시대가 제기하는 인간학적물음에 옳은 해답을 주지 못하게 될것이다.

아직 일부 작품들은 시대의 이 절박한 미학적요구를 창작에 옳게 구현하지 못하고있다.

여기에서 지금 두가지 편향이 나타나고있다. 그 하나는 작품의 종자와 생활내용으로 보아 반드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선이 주인공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구현되여야 할 작품들에서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있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형상생리에 맞지 않게 몇마디의 대사나 지문으로 령도선구현을 대치하는것이다.

전자의 경우나 후자의 경우나 다같이 작품의 진실성에 손상을 주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이것은 작가의 창작적기량문제와 같은 창작실무에 대한 문제이기전에 작가의 량심과 관련되는 보다 심중한 문제이다. 작가는 량심을 가지고 사회앞에 나서야 하며 시대의 량심을 버린 작가는 우리의 위대한 현실에 진심으로 공감할수 없고 따라서 자식을 가지고 작품을 쓰게 된다.

당의 작가라는 높은 정치적자각이 결여되고 깨끗한 창작적량심을 가지고 뼈심을 들여 탐구하고 사색하고 모대기지 않는 작가에게서 참말로 당의 령도선이 형상적으로 타당성있게 구현된 작품을 기대할수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선은 소설뿐아니라 시와 극문학 등 문학의 모든 형태들에서 철저히 구현하여야 할 필수적인 문제이다. 여기에서도 특히 시문학에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의 위대성이 날을 따라 뚜렷이 과시되고 당을 따르는 인민들의 충성심이 비상히 높아지고있는 조건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직접 노래한 송가문학이 활발히 창작되고 있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 일부 송가작품들에서는 요란한 수직사와 험란한 미사려구를 랍발하면서 정치적인 내용을 직선적으로 노래하거나 사실을 분석하고 공허하게 웨치는 경향이 없어지지 않고있다. 이러한 현상도 역시 시인의 량심문제와 관련된다. 시인의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에서가 아니라 의무감에 못이겨 꼬집어내는 《서정》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선을 구현하는 문제는 현시기 우리 문학의 총적방향이며 목표이며 창작의 근본요구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위대한 시대가 우리 작가들에게 준 영예이며 특전이다.

문학작품창작을 넘두에 두고 말할 때 시대가 준 영예와 특전은 작가라고 하여 누구나 다 누릴수 있는것은 아니다. 작가는 창작을 통하여 이 영예와 특전을 쟁취하고 빛내여야 한다.

작품은 작가의 사상의식의 반영이다.

우리 작가들은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가져야 하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민족의 운명과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의 화신으로뿐아니라 자기 운명의 은인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신념을 변함없이 간직하여야 한다.

창작적재능은 작가의 생명이다.

현세기 인류가 낳은 문무를 겸비하신 탁월한 지도자의 위대한 령도선을 작품에 구현하는것은 각자의 높은 창작기량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의 문예관에 기초한 높은 미학적안목에서 생활사실의 옳바른 선택과 평가, 그것을 지배함에 있어서 작가의 심중한 사색과 진지한 탐구, 생동한 창작적허구와 예술적일반화의 훌륭한 기능 등이 통일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그래야 지도자동지의 령도선구현에서 진실성을 보장할수 있다. 예술적진실성은 생활 그자체에 뿌리박으면서도 그것의 단순한 전달이나 기록에서가 아니라 생활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형상을 통하여 구현되기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류레없이 복잡다단한 오늘의 현실 생활사실들속에서 그것을 미학적으로 분석평가하면서 그가운데서 본질적인것과 합법칙적인것을 찾아내어 당의 령

도선을 형상생리로 하는 창작과정의 필수적인 요구이다.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우리 문학에 있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선이 모든 현실주제작품의 기본생리로 된다는것을 리론적으로뿐아니라 창작실천적으로 깊이 파악함으로써만이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고 인민의 지향과 념원에 맞는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이것은 우리 작가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가장 숭고한 역사적 사명이다.

이 숭고한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자각과 의무여야 하며 량심과 도덕여야 하며 탐구와 열정여야 하며 인간에 대한 애호여야 한다.

우리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령도선을 형상적으로 투철히 구현하는 문제를 신념과 의지,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창작실천으로 해결함으로써 우리 시대 작가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할것이다.

## 위대한 빛발

홍창원

새겨져있도다  
밀림속 구호나무엔  
글발이 아닌 조선지도가...  
백두광명성 거기서부터 퍼져간 팔도강산  
여덟개의 눈부신 빛줄기

숨막히면  
세월의 어둠을 밀어내며  
민족이 터쳐올린 대통운을  
글발에 다 담을수 없었던가  
아, 지도우에 새겨넣은  
찬란한 향도성의 빛줄기 빛줄기...

오, 자랑하노니  
망국노의 슬픔속에  
조선이란 이름이 빛을 잃고 꺼져갈 때  
암운을 밀어내는 새날의 려명이 되어  
조선의 밤하늘을 밝게도 비친  
조선의 밤하늘을 밝게도 있었구나

여기서  
빛발쳐갔도다  
얼어붙은 가슴들에 삶의 꽃 피워준  
새 세기의 위대한 봄빛이  
삼천리 강토에 찬란히도 밝아온  
장엄한 우주의 해돋이가...

정녕 저 빛발이  
해빛으로 이어갈 맹세되어  
통남산 기슭에 비꼰도다  
저 빛발이  
사나운 날바다를 길들여  
갑문의 언제우에 등대마냥 빛났고

광복거리 창가에  
검덕의 로동자도시에  
오늘은 통일거리 창문가에  
불야성으로 내린것 아니던가!

빛발이여, 빛발이여  
너는,정녕  
이 땅우에 천년세월 앞당긴  
위대한 향도의 새 려사 수놓고  
흐르는 사랑의 해와 달 다 합쳐  
오늘의 빛나는 세월이 된것 아니던가

생명의 첫줄기로 간직하노라  
운명의 빛줄기로 받아안노라  
빛발이여, 빛발이여 너는  
위대한 후계자의 탄생만을 전하지 않았구나

위대한 수령님을  
대원수로 높이 모신 영광의 이 세기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받들어가는  
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랑

아, 정녕  
친애하는 그이는  
우리의 운명이시며  
사회주의 내 조국  
영원한 이 행성의 태양이심을  
그날에 벌써  
세월에 빛나게 새겼도다!  
세기에 무궁토록 받들어올렸도다!

## 가사

### 한번만

(총련)오홍심

푸르른 평양의 하늘아래 서니  
설레는 이 마음 달리어가네  
조국을 어머니라 부르는 넋을  
심어주고 키워주신 **김정일**동지  
아, 한번만 한번만 그이곁에 있고싶네

거치른 이역의 하늘아래서  
평양을 우러러 애타는 마음  
아버이 부름안고 여기에 오니

안기고싶은 마음 더욱 간절해  
아, 한번만 한번만 그이곁에 있고싶네

아버이 그리며 살아온 한생  
마음은 그이곁에 먼저 가있네  
친근한 그 영상 그리여보니  
하늘땅 모두다 밝아만지네  
아, 한번만 한번만 그이곁에 있고싶네

### 그립던 모습들

주경옥

언제 이렇게 다 모여왔는가  
전승기념탑 이 마당에  
그리움에 타는 세월속에  
못견디게 참아들던 모습들

언제인가 인천항부두가에  
우리의 지성어린 원호물자 부리울 때도  
자꾸만 바라보게만 되던  
월미도의 우렷한 자태와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들던 모습들

그대들의 피가 스민 격전터에  
꽃 한송이 놓지 못하고  
배고동 높이 울리며 돌아오던 마음에도  
못견디게 못견디게 그립던 모습이여

조국을 위해  
생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  
조국의 기억속에 항시 있던 그대들이어서  
위대한 사랑의 해빛은

하나하나 그들모두의 모습을 안아  
영생의 이 언덕에 세워주셨구나

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그대들을 다 불러주셨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게  
조국과 인민 앞에 산 모습으로 세워주셨구나

마지막결사전을 벌리던  
월미도의 빛나는 최후의 그 순간으로  
오,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날 한점없는 모습으로  
후대들과 떳떳이 만나라고  
우리앞에 세워주셨구나

월미도영웅들이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높이 세워주신  
전승기념탑 이 광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만났구나



# 명제해설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령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을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며 문학발전의 성과를 담보하는 근본요인이다.》

김정일

로동계급의 문학의 역사적사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 수행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은 로동계급의 당의 위업이며 따라서 그것은 당의 령도밑에서만 승리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당의 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 문학에 있어서 당의 령도는 생명선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구현한 문학창작과 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며 작가들과 광범한 대중이 문학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정치적으로 이끌어주고 밀어준다.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는 본질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 창작과 건설에 대한 정책적지도이며 정치적지도이다.

당은 모든 작가들에게 문학창작에 대한 당의 요구가 무엇이며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작품을 훌륭히 창작하기 위하여 나서는 문제는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가르쳐준다.

당의 령도밑에서만 작가들이 로동계급의 문학을 건설하는데서 그 담당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작가들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창작활동을 벌려나갈수 없다.

력사적경험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을 건설한다고 하면서도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하고 《자유화》하면 문학이 반동적인 사조에 오염되어 혁명적이며 로동계급적인 본성을 잃게 되며 나아가서는 부르췌아문학에로의 복귀의 길로 떨어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이 문학사업에 대한 지도를 포기하면 작가, 예술인들이 변질되고 불만을 품고있던자들, 서방부르췌아문학에 환상을 가지고있던자들이 앞장에 나서서 《창작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당과 혁명에 도전해나서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이 반사회주의적공세를 벌리고있는 일부 나라들에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그 어

느때보다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는 작가의 창의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문학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보다 힘있게 이바지하도록 이끌어 준다. 우리 당은 언제나 작가의 창발성과 창작적개성을 발양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있다.

당의 령도밑에서만이 오늘과 같이 우리 작가들의 창작적개성이 활짝 꽃피나고 우리 문학의 화원이 다채롭게 장식될수 있는것이다.

문학의 본성과 역사적사명을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규정하고 문학발전의 앞길을 정확히 제시하며 작가의 정치적생명과 창작활동을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받는것은 작가에게 있어서 최상의 영예이며 최대의 행복이다.

우리 작가들이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지도제를 더욱 튼튼히 세워야 한다.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령도이다.

당의 방침은 다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작가들은 당의 의도와 방침을 절대화하고 모든 문제를 오직 당의 유일적결론에 의해서만 풀어나가는 엄격한 제도를 세워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모든 문학사업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진행하는것이다. 모든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문제를 실현하기 위한데로 창작을 철저히 복종시켜야 하며 지도자동지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문학창작사업을 진행해나가야 한다.

문학창작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적문예사상과 방침을 무조건 관철하는것이다.

모든 작가들은 당의 령도를 받들며 오직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시는대로 문학창작활동을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아동문학의 형태적특성에 대한 옳은 이해와 그 구현에서 나서는 문제

정릉진

진실로 아동문학다운 작품을 창작하자면 무엇보다도 작가들이 아동문학의 특성에 대한 옳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아동문학은 어린이를 상대로 하여 그의 시점에서 형상을 창조하는 문학이다. 아동문학은 묘사대상보다 묘사시점에서 고유한 특성이 나타난다.》**

묘사시점에서 아동문학의 형태적특성이 나타난다는 이 고전적명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밝혀주신 독창적인 문예리론이다.

이 리론의 과학성과 정당성은 무엇보다도 작품에 어린이들의 구미에 맞고 이해와 흥미, 감동을 주는 생활을 펼쳐놓게 함으로써 명실공히 아동문학다운 문학을 창조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작품에 그려진 생활이 어린이들의 구미에 맞고 이해와 흥미, 감동을 주려면 그것이 어린이의 시점으로 조명되어야 한다.

시점에 대한 어휘론적의미는 《보는 점》이라고 간단히 해설할수 있지만 문예학적범주로서의 시점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간단한 말로 설명을 대치할수 없다. 여기에는 누구의 눈의 높이에서 생활을 보고 평가하는가, 또 누구의 눈의 높이에서 생활을 체험하는가 하는 깊은 뜻이 내포되어있다.

시점을 어린이의 눈의 높이에 맞추어놓고 생활을 보고 평가하게 되면 어린이의 마음에 들지 않고 흥미가 가지 않는 모든 어른스러운 생활은 뒤전에 물러나게 된다.

중편소설 《1학년생》(김정)에는 인민학교 1학년 학생들이 어디에나 있는 수자들의 세계를 인식하는 생활이 펼쳐져있다.

우편함에 새겨진 수자, 축구선수들의 운동복에 새겨진 수자, 《9월 15일부터 전국체육선수권대회》라고 쓴 선전화에 새겨진 수자...

수자들이 사는 집은 정말 많다. 시계처럼 생긴 둥그런 집도 있고 담벼락처럼 생긴 살림집도 있다.

그밖에도 수자는 돈, 신발, 출생증, 성적증, 석유공급카드에도 있다. 그리고 수자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아동백화점의 학용품매대에 가서 《크레용 한통 줘요!》 하면 판매원누나는 가늘고 긴 종이띠에 《40×1=40》이라고 써갈진다. 그 수자우에 출판원의 도장만 받아오면 크레용 한곽씩 받을수 있다.

방송에서 《래일낮 제일 높은 기온은 25도입니다.》라고 하면 어머니들은 입었던 내의를 벗어놓고 출근길에 오른다. 수자는 사람들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며 성나게도 한다.

이런 생활은 어른으로서는 상상할수도 없거니와 전혀 흥미가 없는것이다. 이런 생활이 탐구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작가가 어린이의 시점에서 생활을 보고 평가하는 창작자세를 견지하고있었기때문이다.

시점문제로 하여 아동문학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하는 정식화는 선행한 리론으로써는 풀어나갈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게 한다.

아동문학의 특성에 대하여서는 지난날에도 논의가 있었으나 어느 경우에도 과학적인것으로는 되지 못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아동문학의 특성을 인민창작과 고전문학의 합법적인 상속자의 견지에서 고찰하였고 다른 경우에는 학교교육과의 련관속에서 보면서 보다 많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하는 견지에서 고찰하였다.

또 다른 논의들에서는 아동문학은 아이들의 대상에 맞게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구성조직이 단순해야 한다든가 이야기가 풍부해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몇가지 측면에서 요구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런 고찰방법이 전혀 근거가 없다거나 허황한것으로 된다고는 할수 없다.

그러나 논의들은 다같이 아동문학의 특성을 규제하는 본질적속성을 밝히지 못하고있음으로 하여 일면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아동문학의 특성을 력사주의원칙에서 고찰하는 경우만을 놓고보자.

물론 인민구두창작과 고전문학유산이 당대의 어른들뿐만아니라 아이들속에서도 사랑을 받아온 사실은 그 유산속에 어린이들의 미학정서적요구를 담은 아동문학적요소가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므로 력사주의원칙에서 아동문학이 형태적특성을 밝히자면 먼저 유산속에 내포된 아동문학적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이 시대의 발전과 향유자들의 미학정서적구에 따라 어떻게 변화발전되어 오늘의 형태적특성으로 고찰되었는가를 해명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적으로 불변성을 지닌 형태적특성의 진면모가 드러나게 되고 작가들에게 날로 높아지는

독자들의 미학정서적요구에 맞게 형태를 부단히 갱신하여나가기려는 욕망도 안겨줄수 있다.

아동문학의 특성을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하는 견지에서 논의하는 경우를 놓고보면 우선 문체 고찰방법이 일면적인데 허약성이 있다.

문학예술에서 형태적특성은 형상화를 실현하는 모든 공간, 모든 공정들에서 통일적으로 나타나는 것만큼 어떤 내용을 담는가 하는데 따라 특성이 나타난다는 식으로 서둘러 어느 한 측면에만 력점을 찍는 놀음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아동문학이 아이들의 대상에 맞게 형상을 창조하는 문학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본다.

물론 이 말자체에는 모순이 없지만 이 논의에서 강조하고있는것처럼 구성조직을 단순하게 하고 이야기를 풍부하게 설정하는것만이 아동문학의 특성을 살리는것으로 되는가.

작품창작에서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게 형상을 창조하는 수법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그렇다고 그 여러 수법들을 죄다 열거하면서 형태의 특성은 바로 이런것이라고 결론할수는 없다.

문제는 모든 수법들을 종합일반화하여 규정적으로 특징지을수 있는 본질을 찾아내는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어른들을 위한 작품과는 전혀 비슷지도 않은 아이들을 위한 참다운 작품을 창작할수 있는 비결을 한마디로 정식화하면 그것은 오직 어린이의 시점을 바로 세우는것뿐이다.

시점을 바로 세우면 이야기는 자연히 단순해지고 명확하고 활동적인 성격이 등장하게 되며 아이들의 심리에 맞는 뚜렷한 묘사가 설정되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문학창작에서 시점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문학이라는 테두리안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들에서 유독 아동문학만을 골라낼수 있는 시금석으로 되며 작품에 동심에 절은 아이들의 생활을 기쁨지게 재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적중한 방법론으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천명하신 아동문학의 특성에 대한 리론의 과학성과 정당성은 또한 아동문학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데 기초하여 나온 리론이라는데 있다.

아동문학이 발전하여온 전력사적로정은 한마디로 말하여 시점을 바로세우기 위한 탐구와 노력으로 일관되어왔다고 할수 있다.

아득한 옛날 사람들이 어린이들에게 옛이야기와 민화, 전설을 이야기해주면서 대상의 리해에 접근시키기 위한 부연윤색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누구든지 단정할수 없다. 아이들의 대상에 맞게 진행하는 부연윤색작업은 곧 아이들에게 리해를 주고 흥미를 주고 감명을 주기 위한 작업이다.

이런 작업은 시점을 얼마만큼 바로 세웠는가에 따라 그 성과의 크기가 결정된다.

물론 고대, 중세 시기에 산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이런 노력이 있었다는 그자체가 아동문학은 자기존재의 첫시기부터 벌써 어린이의 시야에 비친 생활을 보여주는 방향에서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는것을 보여준다.

그후 오랜 력사적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동안 이런 탐구와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되었다.

아동문학의 발전력사, 그것은 시점을 바로 세우기 위한 탐구의 련속이며 독자들의 구미에 맞는 형태완성을 위한 탐구의 련속이다.

×

오늘 아동문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탐구와 노력은 보다 높은 단계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 독자들의 미학정서적요구가 끊임없이 높아지는것은 필연적이며 합법칙적이다.

그 누구도 이 필연과 합법칙성을 거역할수 없다. 더우기 최근시기 아동문학의 체모를 갖추지못하고 있는 작품들이 일부 나타나고있는 사실은 이에 대한 논의를 창작실천과 결부하여 더욱 심화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에 와서 아동문학의 형태적특성에 대한 논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주신 불멸의 사상을 드팀없이 구현하기 위한 립장에서 성과와 교훈을 찾고 결함을 극복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것이다.

론의에서 문제로 세워야 할것은 무엇보다도 작가들이 주인공의 모습을 어린이답게 그리기 위한 방법론을 더 깊이있게 탐구하는것이라고 본다.

아이들을 위한 작품에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것은 시점을 바로세울수 있는 전제로 되는것이지 그자체가 곧 시점문제해결의 전부로 되는것은 아니다. 문제는 어린이의 시점에서 생활을 탐구하고 형상을 창조하는데 있다.

중편소설 《순천소녀》(리준길)를 보면 열살잡이 소녀 전순경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의 생활을 축으로 하여 작품의 기본대를 세우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작품을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일관시킬수 있는 전제로 될뿐이다.

작품을 읽노라면 작가가 전순경을 개성있는 어린이로 그리기 위하여 애써 탐구한 생활국면들이 적지 않다는것을 느끼게 된다.

전순경이 자기를 알락고양이라고 놀려주는 동생에게 물벼락을 들뜨우는 이야기, 늘 동생을 고와하던 어머니가 《순경이 아버지에게》라는 첫말로 편지 쓰는것을 보며 은근히 기뻐하는 모습, 순경이 우등생으로 떨어진 성적증을 받아안고 불안과 고민에 잠겼다가도 아버지의 려행용가방에서 군밤봉지를 꺼내어 밀창을 드러내는 장면, 서예공부를 하다가 예술선전대로 그리고는 다시 서예부문으로 자리를 옮기는 늙쟁개비같은 생활, 건설자아저씨들이 저마

다 힘든일을 하겠다고 싱갱이질하는것이 결코 재미나서 그러는것이 아님을 알았을 때 자기가 걸어온 길이 그릇된것임을 느끼게 되는 생활 등이 바로 그러하다.

작품은 주인공을 개성적인 인물로 안겨오게 하는 이런 생활을 진실하게 펼쳐놓으면서 독자들을 이야기의 세계에 이끄러가고있다.

그러나 어떤 작품들을 보면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는 있으나 그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생활국면은 탐구하지 못하고있다.

단편소설 《정다운 목소리》(리봉림 《아동문학》 1992년 10월호)는 고등중학교 2학년생의 시점에서 처녀소년단반장의 아름다운 소행을 보여주려고 한 작품이다.

남자인 2학년생은 겨울방학이 되어 수학문제풀이와 외국어단어외우기가 제기되었을 때 그것을 못마땅히 생각한다. 그것은 학교적으로 조직하는 빙상경기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서는 연습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소년단반장은 매일 학습반실에 모여 수학문제 10개와 외국어단어 10개를 학습할것을 강경히 요구한다.

2학년생이 학습반실에 가지 않고 빙상장에 나가면 따라나와서 데리고 들어갔고 학습노트검열을 꼬치꼬치하면서 불성실한 그를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소년단반장은 그에게 오전에는 학습반실에 모여 공부하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스케트훈련을 하고 그다음에는 또다시 다른 과목숙제를 해야 한다고 하루의 행동방향까지 제시한다. 마음이 토라진 2학년생은 반장의 시계치와와도 같은 생활방식에 불만을 느끼고 엇나가기 시작한다.

그러거나말거나 소년단반장은 빙상장에 자주 찾아와서는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하면서 시끄럽게 잔소리를 한다.

물론 생활에는 소년단반장과 같은 모범학생이 있을수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작품에서는 그것이 아름답고 진실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작가가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있으나 생활은 어른(작가)의 시점으로 그리고있음을 알수 있다.

어린이들은 인생의 문어귀에 금방 들어선 그 연령적제한성으로 하여, 어른들처럼 세상리치를 꿰뚫어보는 견문과 지식, 체험이 부족한것으로 하여 우에서 본 소년단반장의 모범을 가지고있는 경우에라도 그것을 자기만이 좋아하고 리해하는 생활영역과 생활방식속에서만 나타낸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어린 주인공을 등장시켰다고 안심할것이 아니라 생활이 그의 시야에 비끼고 체험된것으로 일관되도록 시점을 어린이의 눈의 높이와 일치시키는데 더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시점문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창작실천에서 가끔 보게되는 외형상 어른의 시점으로 아이들의 생활을 그리고있는 작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부 론의에서는 시점을 어른의 눈의 높이에 세운듯한 그 형식을 문제시하면서 무작정 아동문학이 될수 없다고 주장하고있으나 그렇게 속단할바가 아니라고 본다.

더우기 어른중에 아이들을 혼시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생동한 아이적형상으로 감동을 주는 작품들이 있다는 사실을 녀두에 둘 때 더욱 그렇다.

1960년대에 나온 단편소설 《길가에서 만난 소녀》(김룡익)를 보면 자동차운전사의 눈을 빌어 한 처녀애의 생활을 그리고있다.

할머니의 집에 왔다가 발을 상한 평양시의 어느 천리마학교 분단위원장이 개학전날에 역으로 나가는 길에서 세멘트와 목재를 실은 자동차를 만나 태워달라고 애원하는 생활, 뺑각수를 구하러 운전사가 자리를 뺏을 때 분단위원장이 적대함우에 판자를 썩워 폭우속에서 세멘트를 구원하는 생활, 그리고 운전사를 기다리던 분단위원장이 시간이 급하여 쪽지편지를 남기고 떠나는 이야기와 주인공의 소행에 감동된 운전사가 역으로 달렸으나 기차가 떠난 뒤에서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 이것이 작품의 내용이다.

여기에는 어른만이 발견하고 느끼고 공감하는 생활은 주어져있지 않다.

최근에 나온 동시 《영광의 군상앞에서》(정덕철 《아동문학》 1992년 4호)도 시인자신의 시점을 내세운듯하나 만수대연덕의 영광의 군상속에 서있는 마안산소녀와 시인과의 교감과정을 아이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시인은 예나 지금이나 한모습으로 서있는 소녀의 조각상을 바라보며 몇발자국을 옮기기만하면 무지개 비진 아름다운 분수가에 닿을수 있으련만 왜 그냥 서있는가고 노래한다.

이것은 벌써 시적대상에 대한 아이적과악이라고 할수 있다. 여기에는 과거와 현재의 시간관념이 단순한, 지나온 나날의 역사적화폭도 오늘의 현실과 어울려보기를 즐기는 어린이다운 천진관만함이 있다.

어른이라면 영광의 군상앞에서 먼저 숭엄한 감정에 잠기게 될것이다. 군상에 깃든 심오한 사상과 의미를 대번에 알아차릴수 있기때문이다.

아이들처럼 소녀의 부동의 자세에서 안다까움을 느낀 시인은 그 시점을 줄곧 유지하면서 이번에는 소녀를 단잠든 아동단원들의 머리맡에 색연필을 짊아놓으시고 또다시 싸움의 길을 떠나가신 장군님을 그리워하는 인물로, 그래서 그이의 결을 떠나지 않는 인물로 노래하다가 드디어 자신도 결에 함께 세워달라고 소녀에게 부탁하는데까지 이른다.

시의 이런 주정은 시인자신의것임이 틀림없으나 독자들의 심금에 와닿는다. 그것은 시상이 환기된 것도 군상속의 소녀이고 감정이 승화되어나가는 파정도 소녀와의 관계에서 실현되고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감정의 시작도 전채도 마감도 소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있다. 시인만이 체험하는 감정, 정서, 심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작품은 어린이들에게 리해를 주고 공감을 주며 끝까지 읽도록 독자들을 추동하고있다. 만일 어느 한대목에서라도 어른만이 알고 어른만이 체험할수 있는 그런 심리, 그런 감정, 그런 정서를 펼쳐놓는다면 사정은 달라질것이다.

이상의 실례에서 보느바와 같이 작품들은 어른의 시점으로 생활을 그리고있는듯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을뿐이지 실지에 있어서는 어린이의 심리와 정서를 자극하는 생활국면들을 펼쳐놓으면서 흥미와 감동을 주고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어린이의 시점으로 생활을 그리고있는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런 작품들을 그 형식상특성만 보고 아동문학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놀음은 성급히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어른만이 아는 느낌과 정서를 퍼놓는 작품들에 대하여서는 문제가 다르게 제기되어야 한다.

론의에서 문제로 내세워야 할것은 다음으로 어린이의 시점으로 어른의 생활을 보여주는 경우의 형상작업을 잘하는것이라고 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아동문학에서는 주로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어린이의 생활을 묘사하지만 가끔 어른의 생활도 어린이의 시점에서 그리게 된다고 지적하시였다.

물론 이런 작품들은 량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아동문학의 변두리안에 자리잡고있는 이상 아동문학의 특성의 원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어린이의 시점에서 어른의 생활을 보여줄 때 작품의 교양적목적은 어른의 형상을 통하여 실현되는데 시점이 어린이의 눈의 높이에 있는것만큼 어른의 성격적전모를 보여주는것이 결코 쉬운일로 될수 없다. 그러므로 자칫하면 어른의 모범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데 그칠수 있다.

단편소설 **《발동소리》**(한기석 **《아동문학》** 1992년 11호)를 보면 어린 손녀의 시점에서 할머니의 인간적전모를 비교적 무리없이 형상하고있다.

외가집에 간 손녀는 어느날 할머니가 열이 오르고 앓으면서도 트랙또르발동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는것을 목격하게 된다.

어느날밤 손녀는 트랙또르를 찾아 들판으로 나가다가 마을사로청위원장 언니를 만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든 내막을 알아차린다.

서른해전 어느날 운전수가 병석에 눕게 되어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트랙또르가 논판에 서있게 된 일, 이때 제철소로 나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몇어선 트랙또르와 힘든 손로동을 하는 농장원들을 바라보시며 빨리 기술자를 키워야겠다고 말씀하신 일, 한 녀성농장원이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트랙또르운전법을 익히고 얼마후 운전수가 되어 포전에서 다시 수령님을 만나뵈고 그이께 기쁨을 드리게 된 일... 그런데 그 녀성농장원이 바로 자기 할머니임을 알게 되었을 때 손녀의 감격은 말할수 없이 컸다.

작품에서 손녀가 발동소리에 관심하는 할머니의 심정을 알아차리게 되는 순간과 독자들이 할머니의 형상에서 감동을 받는 순간은 일치한다.

마을사로청위원장이 손녀에게 이야기해주는 대목은 원고지로 몇매밖에 되지 않는 적은 분량이지만 그 사연이 감동적이고 인상깊어서 할머니의 웅심깊은 내면세계를 충분히 예측할수 있게 한다.

이렇게 어린 주인공의 시점으로 밝힐수 없는 내용을 방계인물을 통하여 감명깊게 개방한 결과 작품에서 할머니가 차지하는 형상의 몫은 커지게 되고 그를 통한 교양적목적도 비교적 원만히 달성할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작품들을 보면 작가의 이런 오묘하고 치밀한 작업이 선행되지 못하여 어른의 형상이 문학적으로 뚜렷하지 못하고 미담의 경지에 떨어지고있다.

단편소설 **《상등병의 모습》**(홍일화 **《아동문학》** 1992년 4호)은 인민군대의 두 상등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민군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희생성을 발휘한다는 의의있는 사상을 천명하려고 지향하였다.

지난 전쟁시기의 상등병은 당시 소년이었던 아버지를 위기에서 구원하였고 오늘의 상등병은 아들인 명철이를 사고현장에서 구원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종자천명을 위하여 사건을 인위적으로 조직한 작가의 서툰 솜씨를 느끼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다음기회에 논의하도록 하고 어찌하여 두 어른의 모습이 감명깊게 안겨오지 않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전쟁시기의 상등병은 방계인물인 아버지와 관련되어있으므로 주인공인 명철이의 시점에서 그릴수 없었고 오늘의 상등병은 주인공의 시점에 그려지고는 있으나 그의 위훈이 주인공과 생활적으로 밀착되지 못함으로 하여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 전달에 그치고있다.

그리하여 문학적인 성격으로 되자면 웅당 밝혀져야 할 문제인 인민군대가 인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것은 그 어떤 의무감이나 논리적귀결에 기초하고있는것이 아니라 서로 위해주지 않고는 잠시도 실수 없는 주체형의 인간들의 생존방식에 기초하고있다는 사상을 잘 보여줄수 없었다.

그러므로 아이의 시점으로 어른의 생활을 보여줄 때 작가의 기량은 어린 주인공과 어른을 생활적으로 밀착시켜놓은 주인공의 시점에 비친 어른의 생활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그것을 형상으로 실현하는 데서 나타나게 된다.

론의에서 문제로 내세워야 할것은 또한 창작에서 아이의 다양한 양상을 적극 실현하는것이라고 본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아동문학작품창작에서는 유년기와 소년기의 일반적인 연령심리적특성을 잘 살리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년기와 소년기에는 흔히 사고가 단순하고 솔직하며 생기발랄하고 행동이 빠르며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활동적인 성미를 가지게 된다. 그들은 모든 것을 사정기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방하기를 좋아한다. 유년기와 소년기에는 사고와 행동이 민첩한 대신 지속성과 인내성이 부족하고 감성과 정서에 민감한 대신 추상적인 사고가 약하며 섬세하고 영동한 대신 시야가 좁은 특성을 가진다. 어린이라 하여도 유년기가 다르고 소년기가 다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어린이들에게는 아이이라고 하는 연령심리적특성이 있으나 그것의 표현형태는 각이하게 나타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아이의 다양한 표현형태들이 명백해진 오늘에 와서도 그저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식으로 일반적인 요구를 제기하는것은 창작실천에 도움을 줄수없다.

아이의 다양한 형태들은 호상 연관되고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생활에는 보다 솔직성으로 특징되는 아이, 또한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활동적인 성미를 가진 아이, 모방하기 좋아하는 아이, 민감한 정서와 영동한 기질을 가지고있는 아이들이 있는 법이다.

작품이 처한 구체적정황에 맞게 아이의 어느 한 측면을 두드러지게 살리면서 성격을 개성화하면 아동문학의 다양한 화원을 위해서도 매우 좋을 일로 된다.

이런 견지에서 볼때 최근에 창작되어나온 일부 작품들이 색깔이 뚜렷한 아이를 들고 나오는것은 반가운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우리 시대 어린이들의 티없이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씨를 생동하게 보여준 동화 《인형아기의 옛동무》(최낙서 《아동문학》 1992년 4호), 시야는 좁으나 영동한 기질을 흥미있게 보여준 동시 《정답게 주고받는 말》(문희서 《아동문학》 1992년 6호), 그리고 행동성과 모방성을 실감있게 보여준 중편소설 《순천소녀》(리준길), 단순한 사고와 솔직

성을 돋구어낸 단편소설 《사진》(고상훈 《아동문학》 1992년 7호) 등이 바로 그러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 작사들은 아이의 다양한 면모를 살려내기 위한 작업을 잘하지 않고있다.

잡지 《아동문학》에는 만병초를 노래한 어스비슷한 시작품이 편이며 세련적이나 발표되어 독자들의 주목을 끈바 있다. (동요 《백두산의 만병초》 리정남 1983년 10호, 동요 《백두산의 만병초》 류정화 1990년 2호, 동시 《백두산의 봄맞이》 김정란 1992년 2호)

제명부터 같거나 비슷한것은 둘째치고라도 서정적주인공들은 한모습으로 사색과 명상에만 잠겨있는 아이들이다.

그 사색마저 서로 다른 내용으로 특징된다면 몰라도 혁명전적지에 피어난 만병초를 바라보는 승엄함, 투사들의 발자취를 그려보는 류다른 회억, 그분들의 뜻을 이어나가려는 결의로 일관되어있다.

시적대상이 같다고 서정적주인공이 체험하는 감정의 색깔마저 꼭 같아야 하겠는가. 또 혁명전적지를 노래한다고 모든 시들이 일관하게 승엄하고 엄숙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하겠는가.

서정적주인공이 각이한것만큼 그들이 체험하는 사색의 세계는 승엄할수도 있고 정색할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해학적일수도 있고 락천적일수도 있을것이다.

이런 작업을 잘하지 못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출판물들에는 서정적주인공의 개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작품들이 자주 나타난다.

년말 년시를 노래한 시, 기념일을 노래한 시들에서 지난해의것과 새해의것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고 류사한 모양새를 갖추고있는것도 그 대표적실례라고 할수 있다.

아이의 다양한 국면을 탐구할데 대한 문제는 창작실천에 훨씬 높은 수준의 요구를 제기하는것으로 된다.

아동문학작가들은 어린이들의 연령적요구의 참다운 대변자가 되기 위하여 묘사대상의 폭을 넓히는것과 함께 구체적인 조건과 환경에서 발현되는 아이를 본색그대로 보여줄수 있는 창작적기량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모든 작가들을 색깔이 다르고 특색이 있는 개성적인 작품으로 이끌어올릴수 있다.

아동문학의 형태학특성에 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게 된것은 아동문학발전로정에서 하나의 사변으로 된다.

우리는 이 불멸의 창작적지침을 심장깊이 아로새기고 창작실천에 더 높은 요구성을 끊임없이 제기함으로써 어린 독자들의 구미와 미학정서적요구에 맞는 훌륭한 아동문학작품들이 더 많이 창작되어나오도록 해야 할것이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사상전선을 지켜선 초병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일

## 새해결의

### 심장의 불꽃으로!

새해가 밝았다.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따라 날과 날을 주체의 신념과 의지로 빛내여갈 조선의 새해가 밝았다.

뜻깊은 이해 나는 무엇을 할것인가?...

참으로 할일이 많다. 조국을 안고 우리 제도를 안고 그리고 병사들과 우리 청년들을 안고 몸부림치며 불같은 시작품들을 쓰고싶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일들을 뒤로 미루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그이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이와 마음속 뜨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온 한해 달려갈 결심이다.

그이께서 석탄을 두고 넘려하시면 수천척 지하막장길을 선참 걸으며 그이의 심중의 호소를 듣고 강철을 두고 걱정하시면 쇠물이 사품치는 로앞에서 땀방울을 흠치며 그이의 절절한 말씀을 새겨안을것이다.

그렇다. 나는 눈이 오는 날이면 내리는 그 눈이, 비가 오는날이면 내리는 그 비가 그이께서 기뻐하시는 눈과 비인지 걱정하시는 눈과 비인지 마음속으로 그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로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해 사색하고 창작할것이다.

어찌 달리야 숨쉴수 있겠는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그이는 조국의 운명, 나의 운명이며 조선의 새해 1994년의 운명이 아닌가.

서투어도 열화같은 진정을 담아 그이를 흠모하고 찬양하는 시작품을 쓸것이다.

그리하여 위대한 인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매혹된 이 심장의 불꽃 주옥같은 서정시들로 한다발의 꽃묶음을 엮어 1994년 우리 주체의 시문단에 정히 증정할것이다.

시인 박 철

### 당의 기초축성에 이바지하는 소설을!

사람이 후회없이 산다는것은 참으로 행복하다.

그러나 나는 커다란 죄책속에 한해를 보냈다.

1993년은 우리 혁명의 년대기에 가장 충격적인 사변들을 기록한 영광의 한해였다.

우리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으로 국제반동들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시였다.

전승 40돐을 계기로 수령, 당, 대중의 충효일심을 과시한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당의 혁명적인 경제전략을 훌륭히 관철하였고 레년에 없는 대풍을 마련하였다.

참으로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치여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많은 일을 해놓았다. 하지만 나는 부끄럽게도 한일없이 나이 한살을 또 먹었다.

나는 새해에 지난해에 못다한 몫을 높은 창작적 열정으로 보상하려다.

일감이 많은 사람에겐 래일이라는 시간을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

무한대로 이어지는 래일에 비하면 인생은 너무도 짧다. 그런데 나는 그 래일을 바라고 많은 일을 미루며 살아왔다. 오늘에 할 일을 더는 래일에 맡기지 않으려다.

새해에 나는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한 단편소설과 함께 중편소설 《세포비서》를 완성하려다.

이전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이 일시에 무너진 력사적교훈이 그러한 주체의 작품을 쓰도록 나의 량심에 호소하였다.

친구들은 나에게 권고한다. 농촌당세포비서를 원형으로 한 소설을 쓰는것만큼 흠내가 폭폭 나게 쓰라고... 이것은 상식과 도식에서 탈피하여 생활을 풍만하고 생동하게 그리라는 뜻이다.

나는 동지들의 권고를 고맙게 받아들이고 실천으로 대답하고자 한다. 나는 내가 쓰는 소설이 우리당을 받드는 초석이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진지로서의 당세포를 강화하는데 다소라도 기여하도록 사색과 심혈을 깡그리 쏟으려다. 욕망을 현실로 꽃피워 독자들의 기대에 만족을 주겠는지 그것은 아직 예측할수가 없다.

기량의 부족에서 오는 불안때문일것이다.  
나는 지식의 그릇을 넓히고 붓끝을 예리하게 다듬으며 현실에 몸을 꼭 잠그는것으로 그러한 부족을 메꾸련다.

하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나가겠다.

소설가 백은팔

## 위대한 송가창작에 모든 정열을!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시대의 나팔수, 시대의 가수인 저의 심장은 크나큰 흥분으로 하여 끝없이 설레입니다.

력사에 없었던 시련을 이겨내고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친 우리 모두의 가슴가슴에 승리자의 자부심을 안겨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러르며 맞이하는 새해 1994년,

우리 작가들을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불러주시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각 더더욱 그리워지고 달려가 안기고싶은 그이의 품입니다.

우리 조국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영광의 새해에 그이께서 믿어주시고 내세워주시는 작가된 본분을 어떻게 다할것인가 하고 생각하면 가슴은 끓어오르고 심장은 높칩니다.

저는 시대의 가수로서의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무엇보다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날이 갈수록 더욱 절절해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흠모의 마음을 뼈속깊이 절감하며 그들의 사상 감정을 대변한 명가사를 창작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인민들이 우러러 흠모하는 사회주의승리의 기치이시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이신 **김정일**동지에 대한 송가창작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여 이 땅 그 어디나 친애하는 그이의 노래가 울리게 하며 그 노래 높이 부르며 사회주의대건설 장마다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 총진군속도》창조의 불꽃 날리게 작가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시인 문기창

## 빛나는 애기별을!

영광의 새해를 맞고보니 가슴은 벅차오르고 심장은 높인다. 아동소설가로서 지나온 해를 돌이켜볼 때 현실에서 꽃피어나는 우리의 재간둥이들을 더 많이 그리지 못한 자책이 나의 흥벽을 친다.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년간 수많은 나 어린 재간둥이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김광숙, 오은별, 김일신, 최은하...

나는 얼마전부터 꼬마화가로 세상에 이름난 오은별에게 주의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의 생활을 들여다보노라면 우리 나라에서는 재능의 애어린 싹을 적극 찾아내어 그 망울이 활짝 꽃피어나도록 한량없는 사랑을 기울인다는것을 뜨겁게 느끼게 된다. 하여 나는 오은별의 생활을 가지고 지체없이 중편실화문학 《애기별》을 쓰기로 결심했다.

사실 그자체에 이야기거리가 있고 감동주는바가 있다면 굳이 허구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가.

아이들은 꾸민 이야기보다 실재한 생활에 더 흥미를 느낄것이다.

작가인 나는 자기의 창작을 놓고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호평을 받는 작품을 쓸것인가.

《책을 정말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소설보다 좋습니다...》

어린 독자들의 이런 평을 받는다면...

나는 올해에 단단히 마음먹고 중편실화문학 《애기별》을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으로 완성하기 위해 온 심혈을 깡그리 바치겠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재능의 애기별들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사랑의 빛발아래 어떻게 찬연한 빛을 뿌리는가를 온 세상에 대고 자랑할것이다.

아동문학작가 리동섭



## 평론의 사명을 자각하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평론의 근본사명은 문학예술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희망찬 새해 1994년을 맞이하는 나의 가슴은 지금 평론가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다할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그것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화론》에서 밝혀주신 우리 식 평론에 대한 독창적사상에서 무한한 힘과 고무를 받았기때문이다.

문학예술을 시대와 력사 발전의 요구에 맞게 창작하도록 선도하는것이 평론의 기본과업이다.

평론의 선도성을 보장하려면 평론가가 우리 식 평론의 본질과 특성을 잘 알고 그에 맞게 평론활동을 진행하여야 할것이다.

나는 새해에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을 창작실천에서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문제에 모를 박고 평론활동을 벌림으로써 문학창작을 선도하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 우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형상과 령도선구현문제, 3위1체의 원칙을 구현하는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돌려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우리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위력의 원천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잘 형상하도록 하는데 산 도움을 주려고 한다.

욕망은 크나 힘이 부친다. 딸리는 힘은 탐구와 사색, 피타는 노력이 보충해줄것이다.

내 비록 70고개에 올라 육체적로쇠는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신만은 로쇠하지 않고 언제나 위대한 우리 당의 사상과 의지에서 마를줄 모르는 지혜와 청춘의 활력을 얻어 주체문학의 찬란한 개화발전과 그 세계사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식 평론의 무기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곧바로 전진해나가겠다.

평론가 장형준

## 삼지연 물맛을 다 알려면...

리 영

물맛을 보려고

서로 먼저 물맛을 보려고

삼지연 기슭에서

와-답사대오는 흠뻑 젖다

조국땅 찾아온 투사들 가슴에

그 한방울한방울이 피로 뿔던 물

간고한 싸움길 다시 떠날 때에도

그 한방울한방울이 살로 되던 물

나도 그네들처럼 무릎꿇고

두손 모아 그 맑은 물 정히 떠올렸다

허나 문득 가슴치는 생각에

선뜻 입술을 댈수 없음이여

제 하나 갈증을 추길 물이라면야

어이 다 알랴 이 물맛을

조국 위한 사랑없이야

어이 깨칠수 있으나 이 물맛을

진정 삼지연 물맛을 다 알려면

그 물맛 보기전에

투사들의 넋을 안고

조국 위해 흘린 땀 있어야 하리

## 망부암

리 명

## 1

극장이 터질 듯한 박수갈채... 촬영렌즈에서 번쩍거리는 섬광... 무대위로 날아오르는 갖가지 꽃송이들...

신예림은 관객들한테 거듭거듭 사례하며 분장실로 바빠 들어섰다. 그의 출연을 두고 관중은 퍼그나 인상적인듯 아직도 텅빈 무대를 향해 박수소리를 보내고있었다. 중앙무대에 독창가수로서 처음 나서게 되어 내내 흥분과 초긴장으로 죄여있던 그의 가슴은 숨막히는 환희의 물결로 그들먹이 차올랐다.

문화예술부에서 주최한 이번 중앙독창경연무대에는 지방예술단과 각급 예술선전대들에서 선발된 신진배우들이 출연하게 되었다. 신예림은 도예술단에서 추천되어 경연무대에 나섰던것이다.

연보라빛 어둠이 찾아든 극장정원에는 정향나무꽃의 진한 향기가 창문으로 흘러들었다. 그 신선한 향내에 땀을 들이던 신예림은 지금 현지상황으로 전국에 방영하고있는 텔레비존화면에서 자기의 출연을 보았을 다정한 친지들과 이웃들이 눈앞에 안겨와 가슴은 점점 더 부풀었다. 하지만 이 시각 누구보다 먼저 기쁨을 나누고싶은 남편 리우진의 얼굴이 떠오르자 맑은 하늘에 비구름이 비끼는것처럼 마음이 어수선했다.

떠나올 때 반생을 바쳐가는 연구사업의 실패로 오열에 떨던 남편, 그러면서도 안해의 성공을 기원하여 역흠에서 오래오래 손저어주던 그, 신예림은 잠시나마 남편의 피로움을 잊은 죄스러움에 젖어들었다.

(그인 지금 뭘하실까? ... 해안방풍림의 죽은 나무모를 안고 몸부림치지 않는지... 아니면 이 저녁에도 어둡컴컴한 서재에 묻혀있을까?..)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극장안내원이 분장실 문을 조용히 열고 신예림에게 알렸다. 신예림은 기쁨과 피로움이 엉킨 상념을 털어버리며 나들이옷을 갈아입었다.

극장손님실에는 뜻밖에도 문화예술부 무대에 술담당지도원 최일이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음악대학시절의 동창생이었다.

최일은 연회색 바지에 가는 줄무늬가 그어진 우유빛 남방저고리를 걸쳤는데 귀바퀴뒤로 흘러붙인 까만 굵실머리는 그의 맑은 얼굴살결에 진한 대조를 주어 흠할데없이 선명하고 멀썩했다. 그는 오랜 지기들만 할수 있는 스스럼없는 몸가짐으로 예림의 손을 다정히 잡아 흔들었다. 예림은 동창생을 만난 반가움보다도 이번 독창경연 심사원의 한 성원인

그의 전문가다운 평이 더 궁금하여 미묘한 웃음을 지었다.

《예림동문 오늘 관객들의 인기를 독점했는걸.》

최일은 은근한 미소를 보이고는 안락의자등받이에 몸을 제끼며 러과담배를 터뜨려 붙여물었다.

예림은 그 길지 않는 시간이 여간 지루하고 초조하지 않았다...

《첫곡은 고음가수로서의 기교를 시위하더군.》

3옥타브의 음정은 명배우들도 불안한데 동문 비교적 순탄하게 넘겼소. 예림동무도 항차 고음가수로서의 특기를 잘 보여줄것 같구만. 그리고 두번째 노래 〈내 나라〉는 대학시절에도 동무의 애자였지.

아주 원숙해진것 같애. 선률의 밝은 서정을 타고 소박하고 열정적인 몸동작을 주어 아름다운 내 나라에 대한 감명을 진하게 했거든. 동문 음색에 맞게 노래선정도 잘한것 같고 현상도 나무랄데 없는것 같소.》

《평가가 너무 요란하시군요.》

신예림은 못내 바라던 그의 친절한 찬사에 즐거운 기쁨이 마음속에서 다시금 우러나왔다.

《더운데 밖에 나가 소풍하지 않으려오?》

《그래요.》

신예림은 쾌히 응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저녁 홀로 지내기에는 너무도 번거로울것 같았다.

그들은 잠시후에 대동강반에 나섰다. 나무잎을 만지작이는 물기뻐 청신한 바람이 화끈 달아오른 몸에 스며들었다. 유보도의 가로등불빛들을 담고 고요히 굶니는 대동강수면은 마치도 별무리가 내려앉은듯 보석광채를 반사하고있었다. 새들이 간간히 지저귀는 강기슭에는 밤닭시군들이 눈에 띄었다. 강반의 풍경을 흐뭇이 바라보던 최일의 눈에 능청스러운 미소가 실렸다.

저녁물새 은방울 구울려

애기별 물속에 띄이니

로인은 닭시줄 드리우네

《호호... 여전하시군요.》

예림은 즉흥시로 늘 인기를 끌곤하던 학창시절의 최일의 모습이 떠올라 유쾌해졌다. 최일의 부드러운 얼굴은 그윽한 감계로 젖어있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평양의 밤이요... 예림이...》

문득 최일은 신중해졌다.

《난 오늘 동무의 성장을 보면서말이요. 머지않아 일류급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할 동물 보았소.

… 지방에서 그만큼 수련했으면 이제 무대를 옮겨야 하지 않을까? … 지방을 나무래서라기보다 수도는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인것만은 사실이거든. 우수한 지도력량은 물론 경험을 나누고 경쟁을 다룰 수 있는 상대들이 얼마든지 있잖소. 이를테면 재능을 맘껏 꽃피울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라고 할가? … 동무도 항차 시대와 인민의 사랑받는 공훈배우, 인민배우가 돼야지.》

최일의 더운 입김에 섞여 향기로운 담배냄새가 예림의 뺨에 마쳐왔다. 예림은 그의 뜻밖에 권고에 자못 당황했다. 아직 자신을 그와 같은 높은 경지에 세워본적이 없었으므로 그는 방금 떠오른 달에 눈길을 멈춘채 잠차코 있었다. 달빛은 푸르스름한 공간을 가득 채우며 대안너머 그늘진 버들숲을 꿰질러 수면을 누볐다.

《그래, 우진동문 건강하오. 여전히 망부암에 나 가있겠지?》

최일이 불쑥 화재를 남편한테 돌리며 예림은 흠칫 몸을 떨었다. 자신의 성공과 기쁨에 너무 깊이 빠져있던 그는 남편의 모습을 희미한 반사광처럼 망각하고있었다. 바늘끝으로 가슴을 찌르는듯한 괴로움이 치밀었으나 예림은 짐짓 선선한 웃음을 날리었다.

《호호… 그이야 그곳이 활무대인걸요.》

《연구사업은 성과가 있겠지?》

예림은 말문이 막혔다.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고 방금 피여났던 웃음마저 어색하게 가무려들었다. 웬일인지 흐느적이는 물결이며 유보도의 이슬돋은 잔디풀들과 불어오는 바람결마저 정답게 느껴지는 이 저녁 남편의 신상은 공상스럽게 안겨왔고 더구나 최일의 앞에서 그에 대해 말하기가 점직했다.

무릇 너인들은 가까운 남자들앞에서 남편의 성공을 은근히 나타내고싶은것이 일종의 궁지이기도 하지만 지금 신예림한테는 그럴만한 아무런 건덕지도 없었다. 신예림은 이 순간 해안방풍림육종연구에서련이어 실패를 하고있는 남편이 자기의 소박한 궁지마저 풀어주지 못하는 서운함이 들었다.

그렇다고 그전날처럼 거짓말로써 이 난감한 처지를 모면하고싶지도 않았다. 그날 신예림은 최일의 면전에서 남편의 불비한 처사로 하여 얼마나 따가운 모닥불을 뒤집어췄던가…

그것은 1년전의 일이었다…

신예림은 리우진이 망부암에서 돌아오기를 이제 나저제나 기다리며 저녁차비를 서둘렀다.

련합기업소확장공공장 이동공연을 마치고 곧바로 집에 온 그는 벌써 한시간나마 음식가지들을 짓느라 들볶았다. 구수하고 맛있는 음식냄새가 집안 공기를 훈훈하게 덮었다.

《아이 이 정신바. 그인 몸이 열었을텐데…》

예림은 불판우에 식어버린 소고기남비탕 그릇을 다시 올려놓았다. 리우진이 타고올 저녁통근차시간이 다가오자 더욱 조바심이 났다.

《히야, 맛있는 냄새!》

날이 저물도록 밖에서 썰매타기를 하던 아들에게 집에 들어서자바람으로 코를 벌쭉거리며 부엌으로 썰 달려들었다. 예림은 물론 손가락으로 어린것의 코끝을 살짝 누르며 달랬다.

《아빠 먼저 맛보면 못써요.》

《아버지 생일이냐?》

《생일? 호호… 오늘은 아빠도 엄마도 홍철이도 생일이지. 우리 집 생일이란다.》

《셋 집도 생일이 있나.》

아들애가 머리를 기웃거리더니 아무래도 모르겠는지 시골뚝해서 물러났다.

(그래, 우리 집 생일이구말구.)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예림의 눈에는 물기가 축축히 어렸다.

그는 오늘 낮에 남편의 본원인 식물학연구소 육종실험실로부터 한장의 전보를 받았다.

《나무모생장물 83프로, 성공을 축하함…》

이 길지 않은 전보문을 받은 예림은 처음 한동안 짙은 의혹에 빠졌다.

(이게 누구의 희롱은 아닌가? … 그일 동정하여 꾸민것은 아닐가? … 난 지금 꿈을 꾸지 않는가…)

그는 들뛰는 가슴을 창턱에 지구시 누르며 밖을 내다보았다. 희뿌연 겨울하늘… 푸실푸실 내리는 눈… 하얀 지붕들과 거리… 그렇다! 꿈의 환영은 아니였다. 허구한 나날 그이가 공들인 결실을 알리는 소식이 분명하였다. 애젊은 청춘시절부터 중년마루에 이른 오늘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이의 땀으로 적시던 망부암해안… 마침내 거기에 바람막이숲의 새 생명체가 태어난것이다.

(하지만 그인… 그인 아무것도 무르고 지금 이시각에도 망부암에…)

예림은 고심참담했던 지난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흐느낌을 터치고야말았다. 돌이켜보면 그때문에 얼마나 기나긴 나날을 서로 떨어져 고독과 외로움속에 부대졌던가 남편은 첫살림의 아기자기한 정도나눌새 없이 자리를 옮겼었다. 그는 예림의 출퇴근을 넘려하여 집은 시내에 두고 자신은 백여리나 떨어진 망부암연구지에서 노상 지냈다. 그가 집에 드나드는것은 한달치고 한두번이면 고작이었다. 신예림은 남다른 그의 리상과 가정의 미래를 위해 그 지긋지긋한 생활을 묵묵히 참고견딜수밖에 없었다.

《왜 아직도 안오신담.》

저녁을 다 지어놓은 예림은 혹시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찌랴 하는 근심에 싸여 속을 바재이었다. 바로 그무렵에 리우진이 집에 들어섰다. 그의 모자며 어깨며 숨신발들에는 눈이 덮여있었다. 예림은 무등 반가와 그의 등에서 눈도 털어주고 배낭도 벗겨내렸다. 구레나룻이 돌아 거뭇해진 리우진

의 얼굴은 덩뎡했다. 예림은 그가 이제 뜻밖의 소식에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벌써부터 웃음집이 흔들거려 뭔가 장난치고싶은 감질이 났다.

《이봐요, 당신 간밤에 꿈자리가 좋았지요?》

《...》

《눈아씨가 당신한테 봄소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

별에 퇴색한듯한 리우진의 눈자위가 커지면서 불깃해진 이마우에 굵은 주름이 모아졌다. 예림은 더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쯤하면 궁금중이 돌아올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내외의 눈치를 번갈아 살피던 아들이가 꺼였다.

《엄마가 오늘 우리 집 생일이래.》

《허, 얼마가 오늘은 실성했구나.》

리우진의 입술새로는 허거픈 미소가 흘러나왔다.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군요.》

예림은 더는 숨막꼭질을 하고싶지 않았다. 그는 축축한 남편의 구레나룻을 정겹게 바라보며 한무릎 나앉았다. 남편의 버그러진 어깨와 몸에서는 찬 해감냄새가 풍겼다.

《당신이 새봄에 시작하려고 과학원에 의뢰할 나무모가 승산이 있는가봐요. 오늘 본원실험실에서 소식이 왔어요.》

리우진은 의혹에 찬 눈을 치여들었다. 다소 긴장한 빛이 떠있던 그의 눈은 푸르스름한 형광불빛에 광채로 떨었다.

《그게 사실이요?!》

리우진은 침착히 물었다.그러나 그 어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희가 숨배있었다. 예림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운명이 실린 전보지를 꺼내 놓았다. 그리고는 그 작은 쪽지에 온 넋을 기울이는 남편의 흥분한 거동을 지켜보았다.

《아니 여보, 여기 수자들이 뭐라고 적혀있소? 어서 안경을 가져다주오.》

불현듯 전보지에 머리를 짓속이고 안경을 찾는 리우진의 입술이 부르르 떨었다. 그의 구레나룻불편은 류달리 팽팽해지면서 량미간을 모아붙인 눈초리로 전보지를 지긋게 더듬었다. 예림은 불길한 예감이 시퍼런 불줄기처럼 지나갔다.

《제가 읽었어요... 성공을 축하함... 그다음은 무슨 수자들이 적혀있군요.》

《바로 그거요. 그걸 읽소!》

《연기 0.5, 물기 15, 내한성 미누스 20도씨...》

《뭐라구, 내한성이 미누스 20?!》

《아니, 왜 그러세요?》

《그건 나무모가 자랄수 있는 최저한계점들을 밝힌 수자요...그러니 그들은... 날 우롱했소. 거짓이요. 아니란말이요!》

《뭐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 도내 해안의 평균적인 기후와 풍토조건만 고려했소. 그보다 훨씬 불리할수 있는 망부암의 지대적특성에 기준해야 하오. 바람과 추위, 잔물피해가 극심한 최악의 조건에말이요.》

실망과 원망이 서린 리우진의 얼굴은 고통으로 이그러졌고 불그레한 보라빛으로 상기된 이마와 관자노리에는 땀이 내뿜었다. 예림은 무너져가는 기둥을 잔약한 어깨로 버티어보려는 애끓는 기대를 품고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당신은 꼭 망부암을 선택해야 하나요?》

리우진은 뜻밖인듯 놀라움게 예림의 애절한 눈빛을 찬찬히 보며 피로운 숨을 내쉬었다.

《당신도 잘 알지 않소. 망부암이 어떤 땅이요. 오죽했으면 나라없던 지난날 우리 인민이 그곳에다 부부간의 슬픈 리별의 전설을 심어놓았겠소. 바람과 추위가 모질다고 내버릴수 없는 땅이 아니요.》

《그걸 잊어서가 아니예요. 당신이 또 새 나무모를 포기하면...》

《그래 세번째지. 세번째.》

리우진은 예림의 말허리를 꺾으며 신음소리처럼 힘들게 곱씹었다. 예림은 졸지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한해살이식물도 아니고 나무육종을 세번씩이나 실패한다는것은 한생이 허물어지는 일이었다. 허사로 된 공력 수년세월 헛돌아간 바퀴... 한갓 수차 바퀴도 그 세월 찼었으면 물로 바위에 구멍을 뚫을는지도 모른다.

(누가 열정과 성실성이면 이루지 못할것이 없다고 했을가? 가정을 모르고 사는 그이가 그 땅에 뿌린 땀방울이 상기도 모자란단말인가. 푸른 혈기가 진하도록 퍼내고퍼내어 이제는 고목처럼 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과학의 오묘한 세계는 성실성에 앞서 다른것을 전제로 하지 않을까? 훌륭한 성악가의 기저에 타고난 목청이 있듯이 그이한테 타고난 지혜와 재력이 부족한것이 아닌지?...)

그때 바깥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예림은 깜짝 놀랐다.

최일이 찾아왔던것이다. 그를 집에 청해놓고도 감감 잊은 예림은 상스럽지 못한 분위기가 어수선하게 드리운 시각에 찾아올줄은 몰랐다.

도예술단 지도사업자로 낮에 극장에 도착한 최일리와 상봉하게 된 예림은 그가 남편의 안부와 연구형편을 묻는통에 망설이다가 야릇한 궁지감에 떠밀려 과학원의 전보쪽지를 보여줬다.

최일은 여간 반가워하지 않았다. 예림은 기꺼이 응하며 집에 청했었다.

진회색 라사직외투를 쭉 뽑아입은 최일은 환한 얼굴로 들어섰다.

《이건 평양맥주와 과일이요 내가 아마 이집 경사를 미리 냄새맡고 온것 같애. 하하》

최일이 유쾌한 톱을 던지며 목직한 구력을 내놓았다. 예림은 웅색하여 안절부절 못했다.

마침 뒤따라나온 리우진이 최일을 방안으로 맞아 들었다.

신예림은 본의는 아니었지만 최일의 앞에서 거짓말로 되어버린 자신의 언행이 난감하여 어쩔바를 모르고 서성거리기만 하였다.

차라리 남편이 아무말로 하지 말았으면 했다. 예림은 문득 가정의 체면도 유지하고 손님의 기분도 흐리지 않게 수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눈에 거슬리는것은 현관바닥에 어지러이 놓인 신발들이었다.

거기에는 까만 윤기가 흐르는 최일의 맵시나는 털구두가 있는가 하면 언불에 녹아내려 질적한 남편의 볼품없는 숨신발도 있었다.

사치와 허식을 모르는 남편인줄 알면서도 웬일인지 민망스러움이 치밀었다.

그는 얼른 남편의 숨신을 신발장안에 밀어버렸다. 그리고는 정성스레 준비했던 음식들에 최일이 들 고온 맥주를 받쳐 방안에 들여갔다.

《많이들 드세요. 어찌다 오셨는데》

《하, 안주인 정성이 대단하군. 일을 많이 하긴 해야겠다. 나라에도 경사고 집에서든 이렇게 후한 대접을 받게 되고, 우진동문 참 행복합니다그러, 하하》

최일이 부러움을 소탈하게 표현하여 예림은 바늘방석같은 자리에서 얼른 일어났다. 부엌에 내려와 군손질이라도 하는편이 나올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신경은 방안으로만 기울어졌다.

《…아니, 그럴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게 실패의 쓴 잔이란말입니까?》

최일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남편의 느릿느릿한 음성이 흘렀다.

《동서고금을 들춰보면 과학의 길에는 그러루한 일화도 있습니다. 한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보석을 만들려고 일생을 바쳤지만 종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그를 조력해주던 제자가 스승의 한생이 하도 가능하여 어느날 실험관속에 감쪽같이 진짜 보석을 넣어 그를 감격에 미치게 했지요… 물론 우리 연구소에서 날 그런 식으로 동정하지는 않았겠지.. 용서하시오. 우리 집사람이 내막을 모르고 입빠르게 한 소릴…》

(아이, 저인 끝내… 할말도 없으시네…)

《…최일동무랑 대학시절에 우리 망부암에 왔을 때 도와줬던 그 컷 물황철도 바람과 잔물에 해빛을 보지 못했지요. 그후에도 몇번 그루를 바꾸었지만… 잘 안됩니다.》

(오늘은 왜 저리도 말이 많담. 실패한 일이 무슨 자랑인가봐.)

예림의 불안은 느즈막하여 최일을 바래주러 현관에 나서면서 남편이 신발을 찾는 바람에 더욱 고조되었다.

《여보, 여기 내 신발이 어데 갔소?》

예림은 피기없는 입술을 열지 못했다. 남편의 《촌티》를 보호하려던 일이 최일의 앞에서 들장난수치심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그밤 예림은 남편과 단둘이 남았을때 설문을 쏟고야 말았다.

《어쩌면 당신은 저의 심정을 그러도 몰라주나요…》

…

대동강아래쪽에서 누기진 밤바람이 불어왔다.

신예림은 1년전에 체험했던 그 서러움과 함께 최근에 또다시 남편이 나무그루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 일들이 떠올라 내내 입을 열지 못했다. 그 지못은 침묵을 최일이 먼저 깨지었다.

《요즘 난 새롭게 창조할 가극을 앞두고 배우양성사업과 함께 기량있는 배우들을 발굴할 과업을 받았소. 실은 이번 독창경연도 그 일환으로 조직한 일이지만… 난 예림을 우에 상정시킬 결심이요.》

《그문젠 아직… 대답하기 어렵군요.》

《왜 우진동무때문에?》

《그인 아직 그곳에서 할일이 많답니다.》

《다는 모르겠지만 난 과학원 식물학연구소 성원인 그가 그곳에 노상 머물러있을 리유가 없다고 보오. 재배전문가도 아닌데 나무육종이야 과학원조건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소.》

《그럴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도 우리 극장에 정들었나봐요. 고마와요. 걱정해주셔서.》

신예림은 최일의 권고가 진정임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의 결심도 알수 없거니와 자신의 문제를 인맥관계에 매달려 불미스럽게 해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날 있는 경연총화에서 특색있는 고음가수의 최우승자로 높이 평가된 그의 가슴은 바람맞은 숲처럼 설레이기 시작했다평양시내의 이름있는 예술가들과 예술창조지도일군들이 뜨겁게 포옹도 해주고 손도 잡아주며 저마끔 중앙무대에 함께 나섰으면 하는 의향들을 표명했다. 신예림은 비로소 자기앞에 넓은 무대가 활짝 열려져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것은 인생의 길에 쉽게 차레지지 않는 새 생활의 대문으로 여겨졌다.

## 2

《예림아, 내 채송화를 좀봐, 참 곱지. 아이유 깜찍도 하지, 글썽 아침에 보니 밤에 살그머니 망울을 터치지 않았겠니. 아니. 그런데 네 채송화는 왜 그 꼴이니? 아이 가없어라, 아직 꽃망울도 안졌구나. 어쩔 이럴수 있니. 우린 같은날 같은 씨앗을 꼭같이 심지 않았니?》

렬차의 차문에서 씩없이 울리는 단조로운 음향은 예림의 상념을 부채질하며 잃어버린 꿈처럼 멀리 흘러간 소녀시절의 희미한 그림자를 불러냈다.

(난 그 시절 몰랐겠지. 어째서 같은날 심은 식물이 뒤늦게야 컸던지… 다른 애들보다 삭막한 방에

꽃씨를 뿌린줄 몰랐어. 사람의 생활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 최일동문 중앙무대는 예술의 비옥한 토양이라고 했지... 난 정말 그곳에서 인민의 사랑받는 예술가로 꽃필수 있을가... 그리고 그인 어떻게 될까? 연구소실험실에서 망부암나무모를 마저 실현시킬수 있지... 호호 참 해가 서쪽에서 뜰일이야. 그이가 어떻게 삼지연휴양생각을 다 했을까? 지금 좁 피로움에 모대길줄 알았는데...)

평양극장들에 초대되어 연일 성황리에 공연을 끝마친 예림은 귀환을 앞두고 이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최일은 일부터 그를 찾아와 전했다.

《삼지연휴양소에서 우진동무가 우리 부서에 전화를 걸어왔소, 지금 휴양중이라오. 애를 이곳에 맡겼으니 걱정말고 공연을 잘하라고 이르더군요.》

예림은 영문을 알수 없어 반신반의하였다.

《모르겠군요. 그인 지금 그럴 경향이 아닌데. 어쨌든 그런 한가로운 생각을 다... 언젠가는 송도원휴양도 마다했었는데》

《승산없는 일에 그만큼 지쳤으면 몸을 따스하게 덥혀주고 녹여주는 생활을 찾기 마련이요. 아무튼 이번 휴양에서 돌아오면 중앙예술단에 오는 문제를 잘 의논해보오. 그동무 이동은 본인도 현지에서 오래 고생시켰으니 마다하지 않을게고 또 그 자신도 현대적 설비들로 꾸려진 본원육종시험조건들이 망부암보다야 비할바 없이 훌륭한줄을 알거요.》

패속으로 달리는 렬차는 산간벽지에 들어섰는지 열어놓은 차창으로 수림의 향취가 서늘한 땀기에 실려 밀려들었다. 차창밖은 어둠에 덮여있었다.

예림은 향기로운 바람결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새 생활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있었다.

(그래, 본원에서도 할수 있는 일을 굳이 망부암에서 해야 할 까닭이 없구말구.)

예림은 이와 같은 믿음을 굳힐수록 남편이 그곳을 쉬이 떠나지 못하리라는 마음속의 또다른 정황에 부딪치군했다. 그이의 반생의 심혼이 바쳐지고 어찌면 예림의 운명파도 이어진 망부암...간혹 그 기슭은 꿈결에도 어찌나 행복하고 애뜻한 화폭을 생동하게 그려지는지 깨고나면 그지없이 서운하여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처녀시절의 기분을 오래도록 의심속에 붙잡으려고 애썼다.

먼 수평선 위에 5월의 주홍빛 해가 솟고 반짝이며 굽실거리는 파아란 바다, 가없이 푸른 하늘아래 햇숨처럼 피어오르던 눈부신 봄구름, 무성한 갈숲으로 제멋대로 쓰다니는 쌀쌀한 바람, 정적에 한정없이 잠들어버린 꼬부랑소나무들이 등성등성한 외진 언덕... 예림은 바로 그곳에서 꿈 많은 처녀시절의 순결한 애정을 꽃피우지 않았던가.

수없이 잇달리는 예림의 명상은 이윽고 리우진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그 잊지 못할 기슭으로 달려갔다...

빠스는 짧은 계곡을 따라 우불구불 뻗은 길로 달리었다. 간밤에 내린 비에 길은 엉망이 되어버렸다. 빠스의 뒤켤에 앉아 최일의 손풍금에 맞추어 발성 연습을 하던 예림은 차가 모질게 들추어대며 음을 바로 잡을수가 없었다. 손풍금건반우에서 미끄러지듯 오르내리던 최일의 손가락도 자주 헛음을 짚었다. 최일이 의자등받이에 머리를 짚조올때마다 손풍금에서는 피이한 소리가 새되게 울려나와 예림은 깔깔 웃었다.

《호호.. 안되겠어요》

《젠장, 꼭 감매스런 망아지 같다니까》

그들은 며칠째나 빠스를 타고 봄철씨불임으로 들끓는 북부지구의 농장벌을 다니며 예술소조활동을 벌리고 있었다. 대학에서는 졸업학년생들로 편대들을 무어 전국각지에 파견하였는데 예림은 최일의 조에 망라되었다. 예림은 봄날의 지칠줄 모르는 종다리마냥 노래를 불러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의 일손을 흥겹게 해주었다. 오늘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벽촌으로 가는 길이 이리도 힘들었다.

차가 우툴부툴한 산타길에 접어들쫘해서였다.

농립모를 쓴 웬 남자가 길 한옆에 비켜서서 한손을 쳐들었다. 인적 드문곳에서 처음 맞닥뜨린 길손이므로 예림은 차가 그의 결을 스치는결에 얼핏 눈을 주었다. 무거운 배낭에 눌러 허리를 앞으로 약간 꾸부정한 농립모밑으로는 땀에 흠뻑 젖은 얼굴이 간절한 눈빛을 담고 쳐다보고 있었다. 짧은 순간에 스친 그 눈빛은 차라리 보지 말았다면 하는 후회가 들었다.

그런 눈빛을 무심히 외면한다는것은 마음이 편안치 못한 일이었다. 예림은 앞쪽으로 다가가 운전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바이, 함께 타고가면 안되겠어요》

《하, 이것봐라, 오늘 차창은 인정이 꽤 헤뜬데》

늑수그레한 운전수는 이고장의 말투로 예림의 청을 받으며 차를 멈췄다.

저쪽에서 기대를 잃고 있던 길손은 빠스가 멈추자 입을 앙다물고 달음쳐왔다.

등허리의 배낭이 방해하는지 마음은 습하면서도 걸음은 자못 뒤뚱거렸다.

힐떡거리며 빠스탈반우에 올라선 그는 운전사를 향해 농립모앞채양을 들었다 놓았다.

《그 인사는 이 처녀한테 하우다.》

운전사가 예림을 가리키자 길손은 땀에 젖은 농립모에 다시 손을 가져가며 예림이쪽으로 돌아섰다.

《어마나》

예림은 덴접을 하며 제자리로 뛰어갔다. 목소가 일었다.

길손은 무던히 고지식하고 순박한것 같았다.

그런데 예림은 농립모와 땀에 가리워 나이를 대증할수 없던 그가 애젊은 청년이라는데 놀랐다.

좀 작을사한 키에 빼그리진 가슴과 소매를 걷어 올린 팔뚝에는 발달된 근육이 울긋불긋했다.

선한 얼굴을 덮고있는 피부는 땅김과 별에 타들어 구리빛으로 번들거렸다.

최일이 그의 팔을 잡아끌며 한자리를 권했다.

《전 여기가 괜찮습니다.》

청년은 차를 탄것만해도 다행으로 여겨서인지 아니면 악기를 지닌 말쑥한 〈문화인〉 들름에 끼우는 것이 멋적어서인지 발판우에서 올라설념을 안했다.

그의 신발에는 누런 개흙이 발려졌었다.

《젊은인 뭘 그렇게 무겁게 져수?》

운전사가 변속을 넣으며 청년의 배낭에 호기심을 던졌다.

《물황철나무모지요. 뿌리가 마를가봐 해뜨기전에 닿으려고.》

《어디로 가는길이기예?》

《망부암에요.》

《저런! 젊은인 견마를 잘못 골랐수다. 이 차는 이제 울리막을 채면 무창리로 꺾어듭네.》

《그래요》

실망으로 흐려드는 청년의 얼굴에는 다소 난감한 기색이 어렸다. 그는 발판우에 무릎을 굽히고 배낭 끈을 죄었다. 청년의 거동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예림은 저로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불쑥 나섰다.

《아바이. 우리 가는 그곳에 먼저 들리면 되잖아요.》

《하, 이것봐라, 어느새 정이 오고갔누?》

운전사의 걸걸한 룡을 최일이 시침을 따고 만족했다.

《아바이두 참, 밭없이두 하루밤에 천리나 오가는게 정인줄 모르시는군요.》

다시금 차안을 들었다놓는 웃음이 터져 예림은 익은 고추빛으로 되어 짙게 됐다.

빠스는 떠들썩한 웃음과 발랄한 노래를 싣고 얼마후 망부암해안에 닿았다. 그런데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청년을 도와 나무모도 심어주고 동해바다구경도 하고 싶었던 예림이네들은 해묵은 갈숲과 쪽대들이 무성한 습지를 헤쳐야 했다. 습지는 멀리 날카로운 산발들아래까지 무연히 펼쳐졌는데 사람자취라고는 찾아볼수 없이 어디라없이 음산한 황무지였다.

그러나 허리 꼬브라든 소나무들이 드문히 선 흙모래땅을 지나 해안에 들어서면서 그 풍치가 판판달랐다.

습한 저지를 반원형으로 깊숙히 파고 들어앉은 바다가 드러났다.

아름다운 파아란 자태를 낯선객들에게 보이기 스티스러운듯 고요한 미소로 반짝이는 물결, 하얀 조약돌들과 조가비들이 넘치는 물면우에는 모래미역이 파티들이 너울거리고 버섯갓모양의 해파리들이 한가로이 떠있었다. 주렁이 볼록한 갈매기들이 습지

에서 불어오는 쌀쌀한 바람에 깃털을 곤두세우고 도굴도굴한 모래자갈우를 거만스레 거닐고 있었다.

제법 주인공세를 하는 그것들은 예림이네들이 다 가져어도 날을념을 안했다.

최일이 정중히 모자는 벗어들고 익살을 부렸다.

《주인님네들 무고하시오?》

처녀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치자 갈매기들은 떼지어 날아올랐다. 봄구름이 푸근한 김처럼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파란 대기가 굽실거리는 속으로 허공을 날으는 갈매기들을 즐거움에 겨워 바라보는 예림은 조국의 이름없는 이 외진 기슭의 신비에 경탄을 금할수가 없었다.

《정말 아름다운 기슭이군요!》

《풍치만 훌륭한게 아니지요》

나무모를 들고 한걸음 뒤에 처져있던 청년이 예림의 곁으로 다가섰다.

《저 바다밑에는 희한한 어물들이 다 있지요. 동해의 이름난 문어와 가재미 그리고 해삼이며 삼복, 성게, 굴, 섬바위들에 득실거립니다. 허지만 그 귀한 어물들을 사시절 다 잡아내지 못하지요》

《그건 왜요?》

《저기 저기를 만을 둘러싸고 있는 산세를 좀 보십시오. 묘하게도 골짜기들이 모두 해안으로 향했거든요. 대륙에서 불어오는 드센 바람이 제 곁을 타고 이 기슭으로 빠집니다. 해안은 막힌데가 없이 되었으니까요. 그런 바람은 겨울철 내내 불지만 여름철에도 때없이 불지요. 어느 한때 이고장사람들은 해산물에 많은 여기다 포구를 앉혔습니다. 허지만 그 미친바람에 배들과 잔교들은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하긴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곳을 〈망부암〉이라 불렀겠지요.》

《그건 무슨 뜻이예요?》

《옛적에 한 어부가 저 앞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바람에 배가 뒤집히어 돌아오지 못했답니다. 그의 안해는 매일같이 이 바다가에 나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진 바람이 부나 수년세월 하루와 같이 기다리던 안해는 그만 화석으로 굳어져 망부암으로 되었답니다.》

《여기가 고향이예요?》

《아니요...》

청년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몇해전에 있던 일이지만 동해북변의 농장벌과 어촌들을 찾아 쉽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바로 여기를 지나시다 걸음을 멈추신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해안의 절묘한 바위들이 그이의 눈길을 끌었던가봅니다. 그이를 수행한 도안의 일꾼들이 이고장 망부암전설을 말씀드렸습니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풍치좋은 이곳에 그처럼 비참한 전설이 생긴것을 못내 가슴아파하셨습니다... 이름없는 기슭의 작은 바위에 깃든 전설을 두고도 이 고장의 술

픈 력사와 함께 나라없던 세월에 우리 인민이 겪어야 했던 비참한 운명을 헤아리신 그이의 말씀이 오래도록 저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더군요. 난 대학을 미친후 과학원에서 이곳 기후와 토질에 맞는 바람막이숲나무육종을 이태나 시험했습니다. 물황철아류종을 택했는데 직접 내손으로 키워보고싶어 지난 해부터 여기 왔지요. 황무지나 다름없는 저 무연한 저지를 바람막이 숲으로 일궈놓으면 이 해안에도 포구가 들어앉게 되겠지요. 그러면 생리별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저 망부암도 영영 잊혀진게 아니겠습니까. 허허...》

청년은 다소 비감에 젖은 웃음으로 말을 맺으며 바다쪽으로 돌아섰다. 청년의 이야기에 저르기 감동된 예림은 그의 눈길을 따라 해안을 더듬었으나 어느 바위가 그 비참한 전설을 담고있는지 알수 없었다.

《망부암은 어느 바위예요?》

《저기 물속에 있는 바위입니다.》

청년은 기슭에서 백여미터 위치한 물속의 바위를 가리켰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장관이었다. 해안의 랑 좌우에 너럭바위들에 그 묘함을 뽐내기라도 하듯 기기묘묘한 바위돌을 층층 고이고 물가운데 우뚝 치솟은 망부암밀등은 파도에 씻겨 진회색암반이나 가운데로부터 우로 올라가면서 푸른이끼와 잔디풀이 덮여있었다. 정수리에는 키낮은 로송들이 소담한 아지를 한열로 형클어뜨렸다.

바람에 펄럭이는 치마자락처럼 한쪽으로 퍼져내린 암반, 눈확처럼 약간 패여 하염없이 바다쪽을 바라보는듯한 웃머리바위모양...넘실거리는 파도가 녀인을 희롱하듯 밀려왔다가는 그 아래말기에 부딪쳐 세찬 포말로 부서져 날렸다. 예림은 줄기찬 숨결로 숨쉬고 약동하는 대자연이 수천년세월 비다듬어가고 있는 신비경에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런데 망부암정수리에 널려있는 흰 반점은 무엇일까요?》

《그것 꽃이지요. 누기와 추위에 잘 견디는 비늘줄기식물인데 눈나리꽃입니다. 저 꽃은 해마다 이른봄철부터 여름내내 망부암에만 피어있습니다.》

바람을 불고  
파도는 갈개여도  
녀인은 꽃이 되어 웃는구나  
넌 기다려  
넌 그리워  
넌 보고파  
넌 반기여  
...

최일이 눈을 잔조롭히 쪼프리고 즉흥시를 읊조렸다. 모두들 배를 그러쥐고 웃었다.

예림은 웃음이 나가지 않았다. 녀인의 순결한 마음을 담은듯싶은 꽃이 가엽기도 하고 또 무척 보구 싶었다.

《눈나리라구요? 어떻게 생겼을가요. 참 곱겠지요?》

《글쎄요. 뭐라고 말했으면 ...》

청년은 당황히 예림의 호기심을 외면하며 한참이나 망부암을 건너다 보기만했다. 그러던 그는 슬그머니 너럭바위뒤로 사라졌다. 뒤미처 그쪽에서 첩병하고 물속에 뛰어드는 소리가 울렸다.

너무나 뜻밖에 벌어진 일이어서 예림은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다. 공연한 호기심으로 청년을 물속에 뛰어들게 한 송구함에 어쩔념을 못하고 불어오는 찬바람에 몸만 바들바들 떨었다.

조금 지나 다시 물속으로 헤여오는 청년의 입에는 하얀 꽃송이가 물려져있었다.

기슭에 닿은 그는 너럭바위우로 성큼 뛰어올랐다. 차거운 물에 벌겋게 짓몰어 황동빛으로 되어버린 그의 몸통이에서는 더운김이 피어오르고 물방울들이 수없이 굴러내렸다.

그 물방울들은 수평선우로 솟아오른 해빛을 받아 금빛 구슬알처럼 반짝거렸다. 눈부신 후광에 싸인듯한 청년이 건강과 열정에 넘친 순진한 눈길로 예림의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는 싱긋 웃으며 꽃을 내밀었다.

《마음속에 소중한이가 있으면 간수했다가 드리십시오.》

《어마나... 제가 애들처럼 ... 공연한 말올...》

예림은 삽시에 얼굴이 활짝 붉어져 꽃을 받으며 얼버무렸다.

그는 까닭없이 타오르는 불붙는 얼굴을 얼른 손접게 아릿다운 꽃송이로 가리켰다.

그날 예림은 나무심기가 끝난후 백사장에 들러앉아 야유회를 펼쳤을때 청년의 호의에 답례하여 노래를 불렀다.

조국의 이름없는 기슭을 풍요하고 기쁨지게 가꾸려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진이를 두고 처음 부른 노래가 《내 나라》였다.

그때로부터 《내 나라》는 그들부부가 사랑하는 노래중의 하나가 되어 애정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젊음과 열정에 불타던 그이... 그이의 성공을 기원하여 불렀던 노래는 아득한 추억속에 남아있건만 그인 아직도 망부암에...)

아릿한 아픔이 다시금 예림의 가슴을 파고헤치려다 인츰 잦아들었다.

문득 그 모든것은 이제는 지난일로 되리라는 현실감이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흘러간 꿈같은 추억보다도 앞으로의 생활이 더 소중한것이며 그들부부에게는 또 뭔가 있어보지 못한 행복이 기다리고있으리라는 믿음이 차올라 밤을 보냈다.



### 3

한밤을 렬차에서 새운 신예림은 이튿날 정오무렵에야 청진역에 닿았다. 흠에는 극장책임일꾼들과 동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예림의 출연성가를 잘 알고 있는 그들은 그가 승강대에 내려서기 바쁘게 축하의 소나기를 퍼부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집에 가 폭 쉬라고 떠밀었다.

신예림은 동무들과 따뜻하고 애무에 넘친 상봉을 나눈후 총총히 집을 향했다. 한달만에 집에 돌아오는 그는 러독을 풀고싶은 생각보다도 아들이 무척 보고싶었다.

다정한 이웃들이 어린하랴만 그래도 남편마저 휴양중이니 지금 철없는것이 퍼그나 외롭게 지낼것 같았다. 평양에 있을때는 남편이 휴양소에 애를 데리고 갔으면 좋을상싶었으나 막상 집을 가까이 하니 애가 없으면 어쩌랴 하는 근심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공연한 걱정이였다. 집현관복도에다가서던 신예림은 안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뺑뺑한 목청이 어떻게나 가슴을 반갑게 두드리는지 다급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기쁨에 와락 놀란 아들의 귀여운 얼굴을 그려보며 발끝걸음으로 방문앞에 다가섰다.

《히야, 멋지구나, 저거 삼지연그림이다!》

《그럼 투사할아버지들이 왜놈들을 치려고 조국땅을 밟으신 날 삼지연못가에서 휴식하셨지. 그때 이물을 마시면서 내 나라의 물은 별맛이라고 너무 기뻐서 울기까지 하셨다는구나》

《단물이나요?》

《단물? 허 너석두, 단물보다 더 맛나는 물이지.》

(아니?)

신예림은 또다른 귀익은 음성에 놀랐다.

《아버지도 마셔봤나?》

《마셨지. 그런데 아빤 별맛을 모르겠더구나.》

《단물이라는데도 몰라요?》

《그러기말이다.》

(저이가 어떻게? ... 아직 휴양기일이 끝나지 않았을텐데...?)

신예림은 텅 비어 설렁할것만 같던 집안에 남편과 아들의 따뜻한 온기가 넘쳐나고있는것이 꿈만 같아 삼시에 피로와 로독이 사라졌다.

그는 즐거울때면 저도 몰래 샘솟는 장난기에 사로잡혀 짐짓 엄하고 궁근 목소리를 짜냈다.

《주인없는 집에서 뭇들인고?》

문밖으로 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다 총알처럼 튀어나오고 바람벽에 무슨 액자인가 걸고있던 남편이 어리둥절 뒤돌아본다.

예림은 더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아들을 머리위로 버쩍 추어올리며 소리내어 웃었다.

《허, 온다는 기별도 없이...》

《호호, 난 당신이 휴양소에 가 있는줄로 알았지요.》

《아빤 어제밤에 저 삼지연그림 갖고 왔지 뭐.》

아들이 방안벽에 새롭게 걸린 삼지연풍경화를 자랑스레 가리켰다.

《휴양기념》이라는 글자가 찍힌 삼지연의 수려한 화폭이 단조로던 방안을 시원스러운 운치를 드리우고 있었다.

《벌써 휴양이 끝났어요?》

《...》

리우진은 어색한 미소를 지을뿐이었다. 예림은 갈래없는 의혹이 들었으나 더 묻지 않았다. 아무래도 좋았다. 오랜만에 갖든 집안의 화기였다.

그는 가정의 따스한 온기를 한껏 빨아들이기라도 하듯 아들의 말큰한 볼과 이마에 연방 입을 맞추었다.

《엄마야, 저 삼지연물은 단물이라.》

아들이 상기도 삼지연의 호기심에서 깨어나지 못한채 종알거렸다.

예림은 멀리 백두산을 원경으로 비취책하늘을 담고 고요히 설레이는듯싶은 삼지연풍경에 다시 눈을 주며 아들을 툇겨주었다.

《그건 단물이 아니란다. 이국땅에서 싸우시던 투사할아버지들이 그림던 내 나라 땅에서 처음 물맛을 보니 그렇게 느끼신거란다. 거짓말쟁이 아빠를 때려주자꾸나.》

예림은 아들의 한손을 쳐들고 남편의 잔등을 쥐여박았다. 애가 캐득거렸다. 예림은 남편의 기색을 살렸다. 작별할 때 상심했던 기미는 찾아볼수 없고 오히려 구레나룻을 반반히 밀어버려 멀끔했다.

(정말 망부암에서 지쳐 생활로 돌아온것일가? 그런데 어쩌서 휴양기일은 채우지 않았을가?...)

예림은 줄곧 떠오르는 의혹을 얼른 털어버리며 부엌으로 내려가 재빨리 평양에서 갖고온 갖가지 통줄임을 터뜨려 점심상을 차렸다. 따뜻하고 아늑한 집에서 어찌다 세식구가 상에 마주앉아 명랑한 이야기꽃을 피우고싶었다.

《난 당신을 휴양소에서 봤댔소.》

리우진이 상앞으로 나았으며 먼저 입을 열었다. 예림의 출연을 방영한 텔레비존화면을 두고 하는 소리였다. 어쭙은 미소가 입귀와 눈에 실려있는 그의 기분은 자못 상쾌한듯싶다.

《휴양소에서 면식있는 친구를 만났었는데 그가 당신을 알아보더란말이요. 소문이 날가봐 조마조마하더군.》

《왜요? 남자들은 제 사람이 나서면 코가 낮아지나보죠. 호호...》

예림은 웃는 가위에 눈언체리가 달아올랐다. 남들처럼 다심한 말로 표현할줄은 몰라도 그런 식으

로 안해의 성공을 흐뭇해하는 남편의 속깊은 진정이 후터워서였다. 그러니 남편의 마음속에는 자기 예림이가 궁지롭게 살고있었다. 예림은 불쑥 여태 번뇌속에 모대기던 새 생활에 대한 설계를 그와 오손도손 나눌것 같았고 어쩌면 벌써 시작되는듯한 행복에 젖어들기도 했다.

《휴양도중에 왜 오셨어요?》

《그렇게 됐소.》

《은 참, 당신두... 어쩌다 마음먹고 가신 길인데...》

《실은 휴양기간에 백두밀림의 이깁나무를 보고 싶었소. 백두의 이깁은 추위와 소금기토질에 잘 견디오. 그대신 빨리 자라지 못하지. 허지만 낮은 지대 이깁은 내한성은 약하나 빨리 자라오. 그것들을 교잡시켜 내한성이 강하면서도 빨리 자라는 수목을 만들어보려고 떠날 때 낮은 지대 이깁꽃가루를 가지고 갔었소. 마침 백두의 이깁이 한창 꽃가루집을 터칠 때더란말이요. 휴양규률에 매여 시기를 놓칠 수야 없었지. 게다가 쉬불임한 꽃가루를 빨리 종자로 육성하자면 본원배양실에 보내야하오. 겨우 휴양소장을 납득시켜 돌아올수 있었소.》

《아니 그럼 그때문에 휴양소엘...?!》

《오늘 꽃가루시약처리를 마저 끝내여 래일 본원에 발송하려오.》

《저... 그럴것 없이 당신이 아예 본원에 올라가 직접 시험하면 어때요?》

예림은 저오기 긴장해났다. 리우진은 대뜸 놀라온 표정을 지었다.

《그게 하루이틀에 끝나는 일인줄 아오. 내가 망부암에서 자리를 뜨면 어떻게 되겠소? 그러잖아도 휴양간 사이 꼬부랑소나무를 심어버릴가봐 여간 마음을 놓지 못했소.》

《...》

예림은 눈을 내리간채 까딱 움직일수 없었다. 가슴속에 샘솟던 행복의 물결은 즉시에 사라졌다. 생활로 돌아온줄 여겼던 남편은 여전히 망부암에서 살고있으며 어쩌보면 그 어느때보다도 더 성실한 열정을 기울이고있지 않는가! 빛이 꺼지는 암울한 예림의 뇌리에는 피곳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 스쳤다.

《이번까지 우리가 몇해 공들인 수목을 포기하면 시간, 노력, 투자를 무엇으로 보상한단말이요. 나라의 법이 묵인할것 같소. 대담하게 결심합시다. 꼬부랑소나무라도 심잔말이요. 그 수종이야 우리 나라 동해안 그 어디나 잘 자라지 않소.》

예림이 독창경연을 떠난던 날 집에 찾아온 망부암분소장이 남편한테 한 말이였다. 그때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다.

《꼬부랑소나무숲은 바람막이숲으로서의 크기도 가당치 못하거니와 경제림으로도 쓸모없습니다.

우린 고생스러워도 망부암수종을 찾아내고 또 키워야 합니다.》

《그런 좋은 소릴 나도 할줄 아오. 우린 동무의 장단에 더는 춤을 추고싶지 않소! 이젠 그 고집에 년덜머리가 났단말이요!》

성미 급한 분소장이 터뜨리던 노성이 지금 예림의 귀에 쟁쟁 울렸다. 바로 남편은 그러한 옹고집으로 여직껏 부진과 제자리걸음을 하고있지 않는가. 사람은 지혜와 재력이 모자랄 때 고집과 보수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보수적인 인간은 자기의 자그마한 울타리안에서 사는데 습관되어 그 세계를 절대의 기준으로 믿어의심치 않기때문에 종당에는 파멸하게 되는것이다.

예림은 남편이 그 보수적인 성미로 그냥 망부암에 남아있게 된다면 그자신의 파멸은 물론 광활한 창공으로 나래를 퍼덕여야 할 자신의 앞길도 막히게 되리라는 절망이 들었다. 성실성때문에 그를 사랑했고 지금은 성실성으로 표현되는 그 완고한 고집이 걸림돌이 될줄을 어찌 헤아릴수 있었으랴.

식사를 마친 남편이 인츰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에 들어가버리자 예림은 온몸이 꺼져내려 피로와 두통이 덮썩웠다.

별안간 사라진 새 생활의 꿈... 인민의 사랑받는 예술가... 과학원으로 출퇴근하는 남편... 그 모든것은 한갓 자기자신이 꾸며낸 상상이였을뿐 아무것도 아니였다. 여태 무지개같은 꿈속에 취해버린 열빠진 자신이 험오스러울수록 생활의 높은 리상을 쉽게 꽃피울수 있는 비옥한 대지도 모르고 사는 남편이 미련하게만 여겨졌다.

예림은 방바닥으로 찾아드는 몸을 지탱하고싶어 아들애를 찾았다. 애가 보이지 않았다. 뻘금히 열린 서재문짚으로 아들애가 띄었다. 크고작은 시약병들을 놓고 실험에 여념이 없는 남편한테 정신을 팔고있는 아들애를 보는 순간 예림은 아찔한 낭떠러지우에 선듯 몸서리쳤다. 남편은 철없는 애의 뉘타저 망부암으로 몰아가고있었다. 그는 빌떡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아들애의 소매자락을 나꾸쳤다.

《넌 또 어쩌자고 여기 있냐?》

돌연 쟁강하며 방바닥에서 박살나는 아츠러운 소리가 났다. 애의 팔소매에 걸려 책상우의 유리병이 굴러떨어진것이였다. 남편의 아연한 눈길이 산산부서진 유리조각들을 더듬어 허둥거렸다.

《이녀석 여긴 뭇때문에 들어와 재구냐!》

리우진은 애의 종아리를 철썩 갈겼다. 예림은 제몸에 떨어지는 매보다 더 모진 아픔에 입술을 꼭 깨물었다. 바스라지는 매의 울음이 터졌다. 가랑가랑 맺히는 눈물을 짓씹던 예림은 이윽고 흐드득 어깨를 떨었다.

《여보, 어쩔 이룰수 있어요! 난 당신이 가정도

생활도 잇고 지금껏 고생하시는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처럼 되는 일인가요. 이제 자신을 알고 도 남지 않았겠어요.》

예림의 돌발적인 항변에 잠시 얼퍼름해있던 리우진이 얼굴이 차츰 재빛으로 변하면서 두눈썹이 맞붙도록 찌프러졌다. 그는 두손을 맞비비며 자중하려고 애썼다.

《그러니 당신은 날더러 죄다 포기하라는거요?》

《그래서가 아니예요! 망부암육종이야 본원조건이 유리하고 빠를수도 있잖겠어요. 같은 목적을 안고 가는 길인데 거기 간들 설마 누가 탓하겠어요.》

《그게 당신이 진정이겠소? … 당신은 혹시 망부암보다도 나나 당신, 가정의 운명을 더 걱정하는게 아니요?》

《사실 난 당신과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될줄은 몰랐군요… 저도 중앙무대에 나서고싶군요. 새롭게 창조할 자극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훌륭한 예술가가 되고싶어요. 전 당신이 자신뿐만 아니라 저와 가져일에 대해서도 응당 관심해주셨으면 해요.》

《…》

리우진은 마른벼락을 맞은듯 한자리에 굳어졌다. 꺼명게 질어가는 그의 얼굴은 마치도 피치 못할 운명을 선고받은 죽은 빛이었다. 그는 한걸음 앞으로 나서며 예림의 어깨우에 한손을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눈물에 젖은 안해의 속눈썹이며 애원에 찬 눈길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래, 난 당신을 너무 고생시켰지… 내일만 일이라고… 고생시켰어. 이미 난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옳았소… 무엇이던…》

리우진은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예림은 제귀를 의심하며 그를 바라보기만했다. 애달픈 원망으로 뚫린 가슴은 배가의 격동으로 승화되어 남편의 발부리에 얹드려 자신의 노여움을 빌고싶었다. 예림은 자기 어깨우에 다정히 얹혀있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함께 가지자요. 그곳에 가 당신은 망부암육종을 마저 실현시키고 난 또…》

리우진은 안해의 손을 슬며시 내리며 창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걸음은 창끝에 찔린듯 몹시 비척거렸다. 그는 금시 넘어갈것 같은 몸을 가까스로 지탱하려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창턱을 더듬었다. 예림은 이상한 감촉에 놀라 그를 부축하려 다급히 몇걸음 내짚었다. 그러자 리우진은 저혼자 애써 몸을 다잡았다.

《내 걱정은 말고 떠나오. 난… 난 망부암에 가있으려오.》

《원, 그것도 말이라고 하세요. 내가 뭐 저 혼자만 잘되자고 그래요?》

《그래 나와 우리 가정때문인줄 알고있소… 물론

나도 본원에 가서 그냥 그 일을 할수 있겠지. 허지만… 망부암에서처럼 피부로 느낄수 있을가? 난 좀더 바람과 잔물, 추위에 견디고싶구만. 그 땅의 주인구실을 하고싶어 그러오.》

《참 당신두, 꼭 고통을 겪어야 주인이 되나요? 쉬운일을 두고 굳이 어려운 조건을 택할거야 없잖아요. 피롭지만… 그 모질은 땅이 밤낮 집을 떠나 외기리기생활을 하는 당신한테 여태 준게 뭐가 있어요…》

《뭐라구!》

별안간 리우진이 낮으나 쇠쪼박같은 음성이 튀어나왔다. 그의 거만한 불편은 흥분으로 푸들거리고 공기가 희박한듯 들숨을 길게 빨아들이는 그의 가슴은 세차게 오르내렸다. 이 돌연한 격발은 그들의 생활에서 있어본적 없었던것만큼 예림은 섬쩍 가슴이 얼어들었다. 리우진은 가쁜 숨결을 툐었다.

《당신의 눈에는 망부암이 스산한 바람과 추위, 잔물과 해감냄새, 비참한 전설과 끝없는 고통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 모든것들이 나를 얼마나 키우는지 모를거요. 나한테 삶의 진가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내가 쓰러질가봐 부추겨도 주고 게으를가봐 채찍질도 해주는 그 땅을 떠난 나란 존재는 무의미한거요! … 난 지금까지 당○신이 그 모든것을 리해하고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걷고있는줄로 믿어왔소. 그 믿음에 힘든줄을 모르고 거칠은 그 땅을 마음놓고 걸을수 있었소. 그 땅에 숲을 키워 살기 좋은고장으로 되면 서로 만날수 없는 길을 가버려 리별의 상징처럼 된 망부암전설도 지워질게고 지난날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깃든 어두운 그늘을 두고 실려어린 안색을 기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밝은 미소를 드릴수 있잖겠소…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잊고있으니… 그래 내가 본원에 올라가야 제구실을 할수 잇고 당신은 꼭 중앙무대에 나서야 훌륭한 예술가가 되리라고 민소?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다른 길이 자리잡았구려. 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걷는 현대판 망부암이 될줄이야…》

《아이, 어쩔 당신은 그런 끔찍한 말을 다…》

예림은 그만 억이 막혀 솟구치는 눈물을 짓씹었다. 리우진은 눈을 지그시 감고 피로움에 이즈러진 얼굴과 어깨를 처뜨렸다.

그밤, 예림은 홀로 정주방에 누워 서러움으로 배개잇을 적셨다. 남편도 서재에서 잠 못들고 동틀녁까지 뒤치락이었다.

리우진은 이튿날 새벽통근차로 망부암으로 떠났다. 그때부터 달포가 지나도록 그는 집에 얼씬 안했다. 예림은 날이 갈수록 남편의 신상이 걱정되어 망부암에 찾아가고싶었다. 허지만 지방순회공연과 다가오는 국경절공연준비로 짬을 낼수가 없었다. 리

우진은 국경절 전날 저녁에야 집에 돌아왔다. 예림은 다소 서먹했으나 반가웠다.

#### 4

국경절을 맞는 극장은 가뭇 흥성겨렸고 벌써 초만원을 이루었다. 예림의 가슴은 여느때없이 들떠 있었다. 분장이며 의상이며 출연준비들에 세심한 주의를 돌리면서도 마음은 남편이 와있을 객석에 가 있었다.

예림은 리우진의 공연관람에 어지간히 원심을 썼다. 남편이 망부암에서 돌아온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어떤 결심과 기분을 안고 왔는가 문제였다. 예림은 어쩐지 그사이 남편이 지난번 충돌을 두고 다시금 깊이 생각했으리라는 한가닥의 믿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날에 있던 일들은 실패의 고통에서 방황하는 그의 감재의식의 무분별한 격발이 아닌가 싶었다.

예림은 낮공연을 마친후 저녁관람권을 갖고 집에 들렀었다. 기우진은 서재의 장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책을 보고있었다. 여느날같으면 한마디 톨이라도 건네고 싶었으나 예림은 아무 말도 않고 책상 위에 관람권을 놓았다. 리우진은 책에서 눈을 뗐다. 그의 기색은 평소나 다름없었다. 오히려 밝고 부드러운 그의 눈은 그들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은듯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아, 관람표요? 그러잖아도 부탁하러던 참이요.》

《그으래요.》

예림은 괜한 시름으로 속을 태운것이 민망스러울 정도였다.

《당신은 무슨 노래를 부르오?》

《호호... 곡목을 대면 알기나 하겠어요.》

예림은 그들부부가 즐기는 노래 《내 나라》를 선정하고있으면서도 예술에 대한 그의 관심을 자극하고 싶어 일부러 대답을 피했다. 리우진은 좀 무참해했다. 예림은 그가 자기의 출연에 신경을 쓰고있음을 내심 기쁘게 감축할수 있었다.

《양복은 취색을 입으세요. 장안에 다림질해놓았어요. 구두는 새것으로 신구요. 그리고 안경은 끼지 마세요. 앞쪽으로 가운데 좌석이니깐요.》

《알겠소. 애를 데리고 꼭 가겠소.》

생활은 다시 자기 궤도에 들어선듯싶었다. 예림은 제자리에서 돌아온 집안의 화기와 새 생활에 대한 기대로 이 저녁 마음을 다잡지 못했다.

《예림동무, 낮에 편지가 왔더군요.》

난데없이 극장관리원이 분장실에 들어서며 편지 한장을 그의 거울앞턱에 놓았다. 예림은 얼른 걸봉을 살폈다. 최일의 편지였다. 기쁨이 겹쳐들었다. 분명 자기의 소환을 도와나선 최일의 다심한 우정이 담겼을것이었다. 그는 편지를 펼쳐볼 계제가 못되어 가방안에 집어넣었다.

《호호... 고마와요.》

《오늘은 참 예쁘군요.》

예림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반하여 관리원이 경탄했다. 예림은 방짓 웃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속으로 나무랐다.

(내가 왜 이리도 처녀애들처럼 진정 못한담. 아마 마음속 즐거움이 껴비친가봐.)

잠시후 예림은 출연종소리가 울려 울렁이는 가슴을 다소 가라앉히며 무대로 나갔다. 현란한 불빛이 눈부시게 쏟아져내리고 박수가 터졌다. 예림은 아래로 풍만하게 퍼져내린 하얀 치마깃을 바른 손끝으로 약간 쳐어들며 고개를 깊숙이 숙여 답례를 보냈다. 여느때없이 크게 들리는 박수소리에 남편도 보렴을 주고있으리라는 기쁨에 젖어 예림은 머리를 치어들며 그가 있음직한 좌석에 눈길을 주었다. 그러던 그는 제눈을 의심하며 다시 더듬었다.

(?!)

남편의 자리는 비어있지 않는가. 연갈색의 의자 등받이만이 희미한 반사광에 두드러져보였다. 깊은 서정을 깔며 열정적인 전주가 흘렀으나 예림은 몸이 싸늘해졌다. 무슨 일일까? ... 알수 없는 의혹이 착잡하게 일어번지며 실망이 한가득 서렸다. 그는 거의 기계적으로 전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내 나라

여기 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곳

...

노래를 불러갈수록 차츰 음정이 불안에 떠는 감각이 들었다. 늘 자신만만하고 류창하게 흘러나오는 맑고 부드러운 자기 목소리에 쾌감을 맛보던 그는 누가 곁에서 매여달리는 소리를 질러 그를 따라가는것 같았다. 점점 호흡이 가빠났다. 울리막에 치달아오르는듯 얼굴에 피가 물린다. 걱정을 터뜨려야 할 후렴대목이었다. 그는 가가스로 넘기였다. 식은땀이 내뻘었다. 빨리 끝났으면... 왜 이리 지루할가... 어딘가 숨어버렸으면...

그는 시들한 박수소리를 어렴풋이 의식하며 쫓기듯 퇴장했다. 해쓷게 질려 분장실에 들어선 그는 그대로 의자에 몸을 던져 한참이나 들먹이였다. 뜻대로 되지 못한 공연을 생각할수록 남편이 야속스러웠다. 그리고 설레이며 나섰던 무대였고 그리고 잘 부르고싶던 《내 나라》였다. 안해의 기쁨마저 함께 나누지 못하는 사람, 생활도 정서도 바위처럼 굳어진 사람, 이제와선 안해의 목소리와 감정까지 짓눌러버릴줄이야.

예림은 다시 이어가고싶던 그와의 화목과 융합이 끝내 불협화음으로 흩어져버리는 원망과 그 조화롭지 못한 음향이 도달하게 될 끝이 떠올라 가슴이 얼어들었다. 문득 《현대판 망부암》이라던 남편

의 비판에 갈린 음성이 온몸을 두드리며 황황히 집으로 돌아왔다. 리우진은 집에 없었다. 아들이가 네 활개를 펼치고 태평스레 잠들어있었다. 아래목에 놓인 밥상우에는 남편이 지어놓은듯싶은 음식그릇들이 쟁겨져있었다. 예림은 꺼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애의 머리맡에서 빼여져나온 베개를 바로 잡아주고 멜가방을 벗어 말코지에 걸어놓았다. 그때 가빉안의 최일의 편지 생각이 났다. 식어버린 언약처럼 내키지 않았다. 예림은 그대로 내버려두려다 한 인간의 성의를 모독하는것 같아 방바닥에 앉아 편지걸봉을 뜯어 펼쳤다.

《예림동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원했고 바랬던 생활과 리념들이 이리도 하잘것 없고 이리도 저렬하고 이리도 피로힐줄은 몰랐소. 한 인간의 고난에 찬 나날들이 어쩌면 그리도 값높은 삶으로 나의 가슴에 소중히 자리잡게 되는것인지…》

상심한 기분으로 편지를 펼쳤던 예림은 피로운 번민으로 모데기는 최일의 숨결부터 들려 세찬 의혹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 더듬어갔다.

《…며칠전 나는 우리 문화예술부의 위임으로 식물학연구소 당위원회를 찾았더랬소. 새로 창조하려는 가극의 한 역을 맡아야 할 동무의 소환과 함께 우진동무를 본원으로 옮기는 문제도 추진시켜야 했소. 연구소당책임일군은 이미 우리 부를 통하여 우진동무의 본원이동에 대해 잘 알고있었소.

〈그리잖아도 오늘 동무네 부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우진동무의 이동은 힘든 일입니다. 안될겁니다.〉

나는 아연했소. 어쩌면 이럴수 있는가. 그가 비록 연구성과는 없이도 미지의 기슭을 개척하려 수년 세월 바쳐가는 그 성실성을 이다지도 외면한단말인가. 과연 이들에게는 이름없는 땅에 실패의 잔물결을 뿌리고있는 한 인간의 운명을 뜨겁게 안아줄 동지적의리도 량심도 없단말인가. 그와 인간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싶었던 나는 거의 로골적인 조소를 드러내며 공식적으로 말했소.

〈물론 그에 대해 여기서 더 잘 아시겠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모르지는 않습니다. 우린 성과에 앞서 한 인간의 성실성을 더 높이 사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육종연구는 본원에서도 할수 있는 일로 알고있습니다. 더우기 우진동무의 안해는 우리 모두가 아껴야 할 나라의 귀중한 인재입니다.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심사숙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의 점잖은 본격은 그를 자못 놀래웠던가 보오. 그는 이윽도록 잠자코 있다가 빙긋이 웃더라말오.

〈그럼 우린 우진동무를 뭐라고 부른다? … 이것 보시오. 우린 간혹 국가적인 물의를 일으킨 과학적 발명이나 가치있는 논문들이 실천단계에서 튀어나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생활과 실천과정에는 예견할수 없었던 악조건들에 부딪칩니다. 말하자면

최악의 조건에서 완성될 때만이 그것은 먹음직한 산 열매로 됩니다. 우진동무는 바로 그런 악조건과 불리한 기준을 정하고 수년세월 여러종의 수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몇해전에 내놓은 수종은 벌써 동해안의 여러 지역들에 든든한 뿌리를박고 무성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가 과학원에 의뢰한 높고낮은 지대의 이깔나무교잡종은 배양시험을 통하여 우리 나라 중부지대와 기온이 매우 낮은 해안성풍토에서도 빨리 자라는 품종이라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그건 바람막이 숲으로뿐만 아니라 경제림으로도 나무랄데 없는 우리 식 품종이지요. 장차 태반이 쓸모없는 잡목숲으로 우거진 나라의 중부산지들과 낮은 지대도 질 좋은 목재숲으로 전변시킬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국가학위학직심의에서는 본인의 변론없이 그의 박사학위를 토론하였습니다. 우린 조만간에 결정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본원이동은 새로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 권고했습니다만 그 자신이… 뭐라고 설명한다?… 참 여기 그의 편지가 있겠군…》

예림은 탄탄하고 무거운것이 머리우에 떨어지는 육체적고통비슷한 듯한 아픔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잠시 진정하고는 다시 읽어내려갔다.

《…그의 편지에서 한 구절을 그대로 옮기려오… 〈비서동지… 모진 겨울을 이겨냈던 나무모들이 때론 습지에 밀려드는 잔물에 견디지 못합니다. 또 잔물에 살아난 나무모마저 여름철 때없이 불어에는 열풍에 말라버립니다. 이럴 땐 맥을 놓게 되지요. 인츰 고독해집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고독이지요. 처음에 난 이 고독때문에 미칠것만 같았습니다. 따뜻한 집과 안해와 아이들이 못견디게 그림고 본원에 달려가 동무들과 함께 론쟁도 실험도 하고싶어 몸부림쳤습니다. 온몸을 불태우는 그 유혹에 빠져 몇번이나 집을 꾸렸겠습니까. 허지만 깊은 밤이면 고독은 울부짖는 파도소리와 함께 한 너인의 슬픈 노래를 들려줍니다. 생리별의 비통한 망부암의 울음소리를 말입니다. 그것은 어두운 흔적을 가지지 못한 내 나라 한치의 땅의 흐느낌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주인을 찾는 이 땅의 부름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달콤한 유혹에 몰라던 나의 넋을 깨우기도 합니다. 네가 흔들리면 방풍림이 흔들리고 이 땅이 흔들린다고말입니다. 그러면 내 눈앞에는 망부암을 바라보시며 지난 세월이 남긴 어두운 구석을 두고 아픔을 느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자애깊으신 영상이 떠오르면서 방풍림의 절박함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지요. 제가 어디 간들 그렇게 나의 피부와 온몸을 무시로 자극을 주고 무시로 일깨워주고 무시로 충격을 주는 그런 절절한 소리들을 들을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어찌 우리가 안겨 사는 내 나라

내 땅을 다 알수 있겠습니까. 나는 대학시절 백두산답사길에 투사들처럼 삼지연의 물을 마셔본적이 있었습니다. 선렬들은 삼지연물을 떠마시며 내 나라의 물맛은 별맛이라고 너무도 기뻐 목메었다고 했지만 난 도무지 그런 느낌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체험은 지난번 휴양기간에는 좀 다르게 느꼈으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선렬들이 그 물에서 그림던 조국과 고향의 향수를 느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찌 한갓 그리움에 복받친 그런 범속한 느낌뿐이겠습니까. 나서 자라고 밟고 사는 이땅을 그분들처럼 몸과 심장을 깡그리 태워 사랑하기전에는 알수 없는 내 나라의 참맛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나라의 물맛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아마 한생을 다바쳐도 모를것만 같습니다. 제가 언제면 그 물맛을 알게 될는지... 그때면 저도 이 땅에 효도할줄 아는 주인공일을 할수 있으련만...》

예림은 가슴이 들뛰어 더는 읽을수가 없었다. 할랑거리는 가슴은 아릅찬 격정에 부대끼 답답해지면서 눈앞을 어지럽혔다. 그는 몽롱한 꿈속에서 깨어나려는듯 천천히 머리를 들고 벽에 걸린 삼지연의 화관을 쳐다보았다. 늘 무심하게 보아오고 하나의 방안장식으로만 여겨오던 화국은 이름할수 없는 숭엄한 의미로 안겨왔다. 또한 그처럼 깊은 세계와 느낌을 지니고 이 땅을 웅심깊이 안고 사는 남편이 경이스러울수록 밟고 사는 내 나라를 고운 목청을 다해 부르며 사랑하는줄로 믿고있던 자신이 왜소하기가 그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남편의 세계에 더없이 공감하면서도 어찌하여 자신의 재능을 맘껏 꽃피울수 있는 《비옥한 토양》은 중앙무대로만 생각되는지 또 어찌하여 그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는지 다는 알지 못했다.

예림은 갑자기 고독감이 들었다.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주위가 이상하리만치 허진했다. 귀중한 모든것이 자기결에서 다 떠나버린듯 마음이 쓸쓸해들자 남편이 어데로 갔는지 몹시 알고싶었다. 그는 아들을 흔들어 깨웠다.

《홍철아, 일어나렴.》

애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아빠 어데 가셨니?》

《망부암에요.》

《오늘밤에 썬 바람이 분대요. 아까 방송에서 말했어.》

(그랬구나.)

예림은 십상 그러리라고 짐작은 하면서도 설마 명절날에 갔으랴싶었다. 문득 아들의 뚱뚱한 소리가 방안을 흔들었다.

《엄마야 저 꽃!엄마가 오면 주라고 했어.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래.》

아들이 창문쪽을 가리켜 예림은 그때에야 창턱

위의 물병에 꽂혀있는 하얀 꽃송이를 알아보았다. 꿈같이 흘러간 봄날, 자기를 기쁘게 해주려 그이가 차거운 물결을 헤가르며 입에 물고오던 눈나리꽃이었다! 불길같은 뜨거운것이 옥 치밀었다.

《씨... 아빠 저 꽃을 가지고 엄마노래구경 가져구 하구선...》

《그만... 그만 하려무나.》

예림은 애 앞에서 금시 피로운 오열이 터져나올것 같아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문을 활 열었다. 거뿔한 재빛하늘에는 비를 머금은 먹장구름덩이들이 북으로 바빠 몰려가고있었다.

## 5

그밤, 예림은 렬차편으로 끝내 망부암에 왔다. 바람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 해안은 닥쳐올 폭풍에 겁먹은듯 고요하고 칙칙한 어둠에 잠겨있었다.

남편을 찾아 오래간만에 이 기슭에 들어선 예림은 지나온 나날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불별에 따라왔던 추억의 모래불, 처녀시절 그의 심장을 그리도 황황 불태우던 기슭이었다.

음악대학을 마친 예림이 도예술단에 배치받은 이듬해 여름이었다. 이고장에 이동공연을 나왔던 예림은 뒤설레이는 마음을 건잡을수가 없었다. 꿈속에서도 그러버던 망부암의 신비... 지금도 눈나리꽃이 피었을가... 참말 सू저운 꽃송이었어... 향기도 부드럽고... 참 그 동문 지금 뭘할가... 이젠 평양에 갔을거야... 바람막이술도 퍼그나 컸을테니까...

예림은 그 기이한 인연에 끌려 동무들이 해수욕을 떠난 틈에 홀로 이곳으로 달음쳐왔다. 해별이 자글자글 끓는 해안은 예나 다름없었다. 파란 물위의 너울거리는 모래미역, 끼룩끼룩 날아에는 갈매기떼, 물속에 우뚝 솟은 방부암... 멀지 않는 도래굴이에 누구인지 얼썌거렸다. 한가로운 고객이 반두질을 하는것 같았다. 예림은 그쪽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가보니 그는 삽으로 물도랑을 치고있었다. 얕드린 그의 잔등우에서 농립모가 건들거렸다. 예림은 막연한 기쁨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침 그편에서도 허리를 펴고 마주보았다. 별에 까맣게 탄 얼굴... 철철 흘러내리는 땀방울... 그의 손에서 삽자루가 들렁 떨어졌다. 까만 얼굴에 류달리 하얀 이발이 미소로 반짝이었다. 예림은 후두둑 반가움에 떨며 한걸음 그앞으로 나섰다.

《아직... 있었군요.》

《그때 도와줬던 나무모들은 그만 잔물에 녹았지요.》

《그래서요?》

《다른 그루를 심어야지요. 이번엔 잔물을 뽑고 심으려고...》

갈숲이 우거진 습지의 여기저기에는 물도랑들이 쭉쭉 찢어져있었다. 예림은 그의 남모르는 수교에 탄

복을 금치 못했다. 우진은 좀 멧적은 미소를 지었다.

《또 공연하십니까?》

《네.》

예림은 무엇인가 더 말하고싶으나 할말이 없었다. 어 색하고 무료한 침묵이 흘렀다. 부지중 예림의 시야에 망부암이 안겨왔다.

《아이, 망부암! 호호... 상기도 넘만 기다리네.》

《그 절개야 변함있을라구요. 허허...》

《그... 그... 눈나리꽃이 폼을가요?》

예림은 말을 더듬으며 얼굴이 빨개졌다. 우진은 시뭇이 웃었다.

《피지 않구요. 한창 무르녹고있을겁니다.》

《가까이 가봤으면?...》

《그래요? 참 어쩐다. 매생이도 없이. 방금 우리 분소장이 그걸 타고 낚시질을 나갔는데...》

우진의 순진한 얼굴에 근심이 실렸다. 예림은 또 그가 난처한 일을 저지를까봐 재빨리 말했다.

《괜찮아요. 함께 해염처가 보자요. 저도 해염칠 줄 아니깐요.》

우진은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했다. 예림은 땀 큰 노력바위뒤로 뛰어갔다. 그는 돌틈에 쪼그리고 앉아 달린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설 차비를 했다. 도래굽이에서 서성거리기만 하던 우진은 옷을 주섬주섬 벗더니 먼저 물속에 뛰어들었다.

《내 먼저 가리다. 뒤따라 해오십시오.》

(호호... 저 동문 꼭 수색시갈다니까. 저다지나 쑥스러워한단.)

이윽고 수영복차림을 한 예림은 뽀얀살결이 드러난 가슴을 량팔로 감싸안고는 발뽀발뽀 물넉으로 나갔다. 물결은 살랑거리고 해별은 따갑고 바람은 싱그러웠다. 예림은 맑은 물을 두손에 떠 가슴언저리에 끼었다. 산뜻하고 시원한 물방울들이 구슬알처럼 자르르 몸으로 흘러내렸다.

그는 북반치는 청춘의 희열, 터져나오는 애정과도 비슷한 흥분에 휩싸여 해염치기 시작했다. 어느새 우진의 까만 머리가 저만치에서 보였다. 예림은 두팔로 물을 헤가르며 앞으로 미끄러져갔다. 명쾌한 기분으로 물에 뛰어든 그는 처음 얼마간은 몸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그러나 기슭을 멀리 벗어나자 넘실거리는 물기가 련줄런줄 다가들어 겁이 났다. 단숨에 닿을것 같은 망부암은 도무지 좁혀지지 않았다. 그는 굼뜨게 나가는것이 안타까와 발로 물을 자주 걷어쳤다. 허공을 찬듯 맥만 빠졌다. 별안간 파도가 머리를 들이치며 얼굴에 물바래를 들썩웠다. 코와 입으로 찻절한것이 마구 쓸어들었다. 구역질이 나고 눈이 아렸다. 이번에는 머리를 물속에 틀어박고 자맥질을 해댔다. 몸에 연딩이가 달린것 같다. 아래로만 처져내린다. 다리가 뻗뻗해지고 발가락이 꼬아든다. 숨이 꺾꺾 막힌다. 눈앞이 보이지 않는다... 더는 못가겠어... 못가... 그순간 자기

몸이 물우에 건뜩 들리우는 감각과 함께 막혔던 가슴이 활 열렸다.

《물... 물을 먹지 않았습니까?》

돌연 머리우에서 우진의 더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림은 그제야 우진의 가슴에 안겨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우진의 점직해하는 눈길에 불안스레 내려다 보고있었다. 예림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는 혼미하게 잦아드는 의식을 붙잡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그래요. 난 불행한 녀인, 망부암처럼 되고싶지 않군요. 언제나... 언제나 이렇게 함께...)...

예림은 그렇게 우진이와 힘겨워 변함없이 살고싶었던만 바라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이밤 망부암너인처럼 남편을 찾아 헤매고있었다. 그는 어둠속에 우렁이 솟아있는 망부암을 넋없이 건너다 보았다. 그쪽에서 파도소리가 들려왔다. 마치도 검푸른 바다우에 정처없이 떠다니며 남편을 찾아 터뜨리는 녀인의 호곡인듯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어찌하여 《녀인》은 그리도 애절히 찾고 부르짖던 리별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가. 그것은 그들의 운명을 안아주고 지켜주는 참다운 내 나라가 없었기때문이었다. 허지만 예림이, 그한테는 삶을 꽃피우고 키워주고 가꾸어주는 내 나라가 있지 않는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내 나라가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내 나라가 아니라 자기자신이 살고있을뿐이었다. 내 나라와 이어지지 않는 예림의 삶은 어느새 그를 살아있는 망부암으로 만들어버렸다. 인간은 자기 개인의 운명속에서 살 때 불피고 불행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것이다.

예림은 이밤에 우진이를 찾지 못하면 영원히 잃을것 같아 허둥거리며 육종시험포전에 이르렀다. 모닥불이 타고있었다. 사위여가는 불무지앞에는 리우진이 둔덕에 등을 기대고 앉은대로 잠들어있었다. 예림은 숨을 꿇고 바라보았다. 불빛이 이른 거리는 그의 강직한 얼굴은 갈색의 땅빛갈로 물들어있었다. 이 땅과 한동아리로 되어버린듯 땅조각처럼 느껴지는 그는 어찌면 잠결에도 땅의 속삭임, 땅의 부름소리를 엿듣는것 같기도 했다. 거칠은 이 땅의 기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모든것을 피부와 몸으로 부둥켜안고 잠든 우진이를 보는 순간 예림의 뇌리에는 나서 자라고 밟고 사는 내 나라를 심장에 지니지 못한 삶은 유혹에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이 땅이 흔들린다던 그의 음성이 마쳐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예림은 북반치는 회오의 눈물을 머금고 떨리는 소리로 나직이 불렀다.

《여보...》

우진은 인츰 눈을 떴다. 그 순진한 눈은 한순간 커졌다가 이내 기쁨으로 반짝이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잠드시다 감기라도 걸리면 어쩔려

구...》

《난 자지 않았소. 눈을 감고 당신의 노래를 듣고  
있었소. 〈내 나라〉를 불렀겠지?》

《여-보-》

예림은 그만 눈물을 터치며 우진의 가슴에 몸을  
던졌다. 눅눅한 바람이 휩 지나갔다.

그들은 그밤, 뜨거운 포옹과 애무로 굳어져 아픈  
다운 내 나라의 영원한 전설을 새겨갔다.

## 효성의 꽃이 되겠어요

변홍영

어머니

슬하를 떠나는 이 딸을 위해  
밤깊도록 행장을 꾸려주신 어머니  
잠 못드신 그 다심한 마음에  
서운한 눈물일랑 어찌 없겠나요

하지만 천리 먼 낯선고장에  
자식없이 살아가는 영예군인 늙은 부부  
그분들의 여생을 즐겁게 해드리려  
그분들의 딸이 되려는 저의 결심을  
그리도 자랑으로 여겨주신 어머니

어머니 기쁨속에

아침저녁 오가던 대학도 그만두고  
서둘러 떠나는 이 딸을  
섭섭해 말아요  
대학은 통신으로 마저 마치겠어요

전쟁의 포화속을 헤쳐온 그분들에게  
웃음이 되고 기쁨이 될 딸이  
하루빨리 곁에 있어야 해요  
늘그막에 자식이 없어  
잠시나마 불편을 느낀다면  
우리 당이 얼마나 가슴아파 하겠나요

그분들이 흘린 피를

세월이 갈수록 더 귀중히 여겨주고  
더 값높이 빛내주는 우리 당  
내 어릴적부터 그 품에 자랐기에  
나는 알아요  
우리의 영예군인들을 위하는것이  
우리 당에 참으로 효성하는 길인줄을

그분들은 우릴 위해 목숨도 내뱉는데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무엇을 바쳤던가요  
영예군인들을 그토록 아끼고 내세워주는  
당의 뜻을 받들고 꽃피우는 길에  
우리 청춘들의 참된 의리가 있는것 아니겠나요

아, 어머니 날 키우며 바라신 소원도  
그것이 아니었나요  
우리 당이 근심하는 일을  
먼저 덜어드리는 효녀가 되라고  
늘 일깨워주시던 그 정어린 목소리  
천리 먼곳에서도 들을거예요

어머니

이제 날이 새면 새벽차로  
저는 정든 고향도시를 떠납니다  
나라 위해 피흘린분들의 친딸이 되려  
사랑하는 어머니결을 떠나갑니다

새벽잠 많던 응석받이라고  
걱정일랑 말아요  
오늘로써 이 딸은  
철없는 시절과 작별합니다  
우리 당이 가꾸어준  
참된 량심과 의리의 화원에  
새로 태어난 이 딸을 축복해주세요

아 해빛밝은 이 땅에 날마다 피여나는  
천만떨기 꽃중의 그 한송이  
그것이 이 딸의 모습인줄 알아주세요  
어머니 슬하를 떠나가도  
화목한 사회주의 한지붕밑에  
우리 당을 우러러 붉게만 피여있을  
효성의 그 꽃인줄 알아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더 많이 기여한 생활일수록 그만큼 값높은 생활로 되며 이러한 값높은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삶의 참된 보람을 느낄수 있습니다.》

김정일

실화문학

## 여섯남매의 아버지

김송인

1993년 3월 15일 아침 신의주 해운사업소 러객 부두는 떠나는 사람, 배려주는 사람들로 흥성거리고있었다.

이윽고 배는 천천히 기슭을 따라 강북관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배웅을 나왔던 사람들은 서운한듯 묵묵히 혹은 서로 소곤소곤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부두를 떠나는데 유독 한사람만이 방파제우에 못박힌듯 우뚝 서서 멀어져가는 배를 향하여 근기있게 손을 젓고있었다.

압록강을 거슬러 불어오는 쌀쌀한 바람이 회색회색한 그의 앞머리카락을 마구 흐트러뜨렸다.

이마와 볼에 깊숙이 패인 주름살들에는 어찌보면 묵직한 시름이 얹혀있는듯도 하고 어찌보면 만족감이 어려있는듯도 했다.

가물가물 점으로 보이던 배가 드디어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때였다.

여라문 걸음앞에서 예순 가까와보이는 체소한 녀인이 급한 걸음으로 마주왔다.

《아이구, 내가 한발 늦었구나.》

그는 맹랑한듯 가쁜숨을 몰아쉬며 펄쩍 주저앉았다. 《아침에 그만큼 불들고있었으면 땀지 일은 어떻게 하고 여기까진 왜 또 나왔소.》

사나이의 통명스러운 말에 녀인은 눈을 찔 흘리며 방파제로 다가가 푸른 물이 굽실거리는 강하구에 애뒀한 눈길을 보냈다.

《애걱정은 안해두 된다니까. 자 그만 가보자구.》

《자자, 빨리 가서 일을 해야지.》

로친은 하는수 없이령감을 따라섰다.

그들은 평안북도 지방건설자재총국 자재상사 판매과장 안명봉과 신의주시 남송지구 탁아소 취사원인 그의 안해 리정숙이다.

방금 여섯남매중의 막내딸인 안경애가 농촌진출을 탄원하고 신도군 신서농장으로 떠나간것이다.

갖은 응석을 다 받아주면서도 대바르게 키운 딸

이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피복기능공학교에 들어가 재단사자격을 받고 직장배치되어서는 일잘하고 재간이 좋다고 등등 떠받들리우던 자식이였다, 아니 그보다는 늘그막에 량주가 시집보내는 날까지 적적지 않게 옆에 끼고있으려던 귀한 딸이여서 더욱 애잡잡한 심정이였다.

하지만 그것은 다만 작별의 순간의 아쉬움이지 결코 가슴아픈 피로움은 아니였다.

어린 새가 자라면 푸른 창공을 향하여 깃을 펴는 것이 생활의 법칙임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그들이였다.

하여 딸을 떠나보면 그들의 발걸음은 그저 무겁지만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가벼움다고 해야 옳을것이다.

며칠전 어느날 저녁이였다.

어느날보다 늦게 퇴근해온 경애는 집에 들어서자 동자질하고있는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엄마, 나 어디 갈래요.》

《어딜?》

《들어줄래요?》

《오빠네 집에?》

《아니.》

《언니네 집에?》

《아니.》

《그럼 어딜 가겠다는거냐. 말을 해야 알지.》

불시에 응석기가 싹 가셔진 경애의 오동통한 얼굴에 심각한 빛이 어렸다.

《나 농촌에 나갈래요.》

《벌써 농촌지원 나가니?》

《지원이 아니구 농촌에 영영...》

그제야 어머니는 딸의 말뜻을 깨달았다.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도 요즈음 청년들이 농촌에 자원진출하고있다는 말을 들었던것이다.

《너 아버지와는 토론해봤니?》

어머니는 으름장을 놓듯 물었다. 하나 경애는 조금도 뜨끔해하지 않고 태연했다.

《아버지한테는 물어보나 뻔하죠. 〈장하다 우리 막내, 우리 경애가 이젠 다 컸구나!〉 하구 내 잔등을 두드려주실텐데요 뭐. 그저 엄마만 〈오나, 가거라.〉 하면 그만이야요.》

어머니는 억이 막혔다. 철딱서니가 없다고 해야 할지 정말 다 컸다고 말해야 할지 진정할수가 없었다. 당에서 하자는 일에 언제나 선뜻 호응해나서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 집안의 가풍으로 되어왔지만 하필이면 직장내 많은 사람들중에 유독 어린 우리 경애가 꼭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가슴한구석에 돌덩이처럼 매달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네가 아버지숙을 어떻게 그리 잘 안다더냐. 원나중엔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어머니 눈앞에는 방학때 딸이 며칠 여행을 떠나다가 직장에서 농촌지원에 동원되어 얼마동안 보이지 않아도 《경애가 언제 온다우.》 하면서 안절부절 못해하던 령감의 모습이 삼삼히 떠올랐다.

《아버지 마음두 엄마 속심두 난 다 잘 알아요. 엄만 나를 내놓기 애처로와하시구 아버지두 애처로와는 하시지만 생각을 크고 넓게 가지셔요.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일 아끼시고 귀중히 여기시는 전쟁로병이니까요. 로병들은 당에서 바라고 요구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복종 무조건 집행하니깐요.》

이날밤 직장에서 돌아와 안해에게서 사연을 전해들은 안명봉은 가슴이 끝없이 부풀어올라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철부지로만 알았던 막내딸까지 이젠 제 갈길을 당의 뜻에 맞추어 찾을줄 아는 인간으로 성장했다는것이 무한정 기뻐던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부모로서 누릴수 있는 최상의 기쁨이고 행복이 아닌가! 이제는 어디 가서도 사람들앞에서 전쟁로병이라고 떳떳이 말할수 있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안명봉이 이렇듯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으로 가득찬 심중에 잠겨보기까지 로정은 평탄치 않았으며 정신적 번민과 고충도 많았다.

안명봉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 발발되자 용약전선으로 달려나갔다. 그는 1차진격때 유명한 팔공산전투에 참가했고 그후 감무봉방어전투에서 무비의 위훈을 세운 로병이었다.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전선동부 《하모니카를선》에서 적땅크들과의 격전, 그때 화점이 너무 조밀하게 배치되어있다고 하여 《하모니카를선》으

로 불리운 높은 고지우에 적들은 대형땅크까지 올려다놓고 그 일대의 아군의 군사활동을 제압하고있었다. 그 땅크를 소멸하지 않고서는 화점도 까부실수 없었다. 몇차례의 땅크습격을 조직했으나 실패하였다. 피눈물을 뿌리며 쓰러진 전우들을 묻은 안명봉은 분대장인 박용선이와 결사대를 맺고 《하모니카를선》에서 460미터밖에 안되는 851고지에 은밀히 접근하여 굴을 파고 포좌치를 굴설하고 반땅크전을 벌렸다.

이 결사전에서 안명봉은 적의 포탄파편에 한쪽눈을 부상당했으나 치료를 거부하고 피투성이가 된 온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한달사이에 여러대의 땅크를 파괴하였다.

모두들 그를 영웅처럼 떠받들었지만 그 전투에서 분대의 전우들을 거의 다 잃은 그의 가슴속깊이 맺힌 원한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자기를 친동생처럼 사랑해주던 부분대장동지, 친아들처럼 돌봐주던 아바이전사... 그들을 생각하며 안명봉은 전쟁이 끝난후에도 불편한 몸으로 군사복무를 계속했다.

신병으로 하여 1972년도에 부득불 군복을 벗게 되었을 때에는 마치 그들앞에 죄를 짓는것만 같은 심정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항상 그들을 생각하며 두뭇세뭇 일하려고 애썼고 남이 한걸음 걸을 때 두걸음 세걸음 걷는 자세로 살며 일해왔다. 그의 생활은 언제나 검박하고 대바르고 청렴결백하였다.

간혹 어떤 친구들이 《판매과장쯤 되면 좋은 담배를 피울수도 있겠는데 자넨 늘 봐야 한가지로 군.》라고 빈정거리면 《난 이제 좋더구만. 구수한게.》하고 룡으로 굶뻐버렸지만 기분은 좋지 않았다.

《살줄 모르는 끝은배기과장》이라는 뒤소리를 들은 날은 너무도 역겹고 가슴이 아파 온밤 잠들지 못했다. 당이 맡겨준 직제와 그 권한으로 제리속부터 차리라는 말인데 그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살고싶지 않았다.

뭐니뭐니해도 우선 먼저 간 전우들이 용서치 않을것이였다.

그런데 안명봉은 제집안에 그런 못돼먹은 생각을 품은 인간이 살고있는줄은 미처 몰랐었다.

제대되어 철도에서 일하는 만아들 안경선이 인민군창건절을 앞둔 어느날 저녁 아버지에게 이렇게 들이대는것 이였다.

《...아버진 참 이상해요. 아버지 지난 전쟁때 〈하모니카를선〉에서 잘 싸웠구 심한 부상두 당했

는데 왜 영예군인 대우를 못받습니까. 남들이 그런데 스스로 거절했다면서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은 받을건 다 받구 요구할건 요구해야 해요. 아버지 혼자 그런다고 누가...》

《닥치지 못해 이놈.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부터 빨난다더니 어데서 그런 쓸개빠진 소리를 얻어듣구와서 애비앞에서 감히 혼시질이나 혼시질이... 난 군사복무를 헛했다. 군인정신을 배우라고 군대에 보냈더니 뭘 배워왔다.》

안명봉은 가슴을 쳤다. 자신이 저주스러웠다.

아들 둘에 딸 셋을 차례로 군복을 입혀놓고는 만사가 다 풀린듯이 만족해하였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군복을 입는다고 저절로 군인정신이 생기는것이 아니라는걸 내 왜 몰랐던가. 먼저 간 전우들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써왔건만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지 못했으니 내가 무슨 당원이고 로병이겠는가.

안명봉은 걱정을 가라앉히고 아들을 준절히 타일렀다.

《경선아, 내 너희들에게 〈하모니카론선〉 전두이야기를 자주 들려준건 무슨 내 자랑을 하자거나 심심풀이로 한게 아니다. 생각해봐라. 난 그 전투에서 몇군데 부상만 입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시 못을 길을 영영 갔다. 그들이라고 자기 목숨이 귀한걸 몰라서 희생되었겠니. 아니다. 그들은 자기라는 존재는 조금도 생각지 않았다. 오직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와 당과 조국을 위하여 한몸 바치려는 높은 각오를 지니고 싸웠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거다. 이게 바로 군인정신이라는거야. 그 정신을 안고 난 그들과 함께 싸웠고 지금까지도 그들과 함께 나 역시 죽었다고 생각해왔다. 그래 죽은 사람이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수 있어? 무슨 대우를 안해준다고 타발을 할수 있는가말이야.》

《아버지.》

경선은 고개를 푹 수그렸다.

자기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도 몰랐다는것을 비로소 깨달은것이다.

물론 한두번의 타이름으로 이그러졌던 아들의 머리통이 즉시에 곧바로 퍼지리라고 기대하진 않았지만 로병의 피줄은 역시 속일수 없는것이어서 경선의 말과 행동거지에서는 차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소 마음이 놓였다.

그러자 이번엔 밀도 끝도 없이 불쑥 만이에게서 멀리는 시름이 둘째에게로 옮겨가는데마져 마음이 불안해졌다.

《둘째는 제형과 달라요. 군대나간지 5년도 안됐는데 벌써 훈장메달을 3개씩이나 받지 않았소. 그걸 뭐 그애 얼굴이 잘났다고 췌겠소. 령감은 괜히 사서 걱정을 한다니까.》

안해가 옆에서 이렇게 위안했으나 마음은 여전히 평온해지지 않았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로병의 위구심은 공연한것이 아니었다.

둘째 경현이한테서 어느날 상서롭지 못한 편지가 날아왔다.

내용인즉 자기더러 군관학교에 가라고 하는데 자기는 가고싶지 않다는것이였다.

리유란 간단했다.

어떻게 답답한 군복을 입고 떠돌이생활로 한생을 보내겠는가, 몇십년 군관생활을 해보았댔자 마지막에 남는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전부였다.

안명봉은 편지를 와락 구겨버리고 술뚜껑같은 주먹으로 책상을 쿡 내리쳤다.

잉크병이 나동그라졌다.

(덜돼먹은자식. 그 군복이 어떻게 마련된것이라고 네가 감히 군복을 모독해. 거기엔 항일의 혁명선렬들의 피가 스며있고 우리 로병들의 피가 배여있단말이다. 그러구 뭐 군인생활에 남는게 무엇이나구. 네가 언제 당두 나라두 안중에 없이 제일신부터 먼저 생각하는 불충불효자가 되었느냐.)

안명봉은 육신육신 쏘는 머리를 부둥켜안고 불이 쏟아져나오는듯한 눈길로 한점을 응시했다.

저기엔 둘째의 얼굴이 그려져있었다.

아들 둘은 평생을 군복을 입고 손에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일선초소에 서있기를 바란 안명봉이였다. 말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대되었지만 그래서 더더욱 둘째만은 손에서 총을 놓지 않기를 바랐었다.

그것은 한생을 아버지수령님을 총대로 받들려던 그의 속깊은 념원이였고 희생된 전우들앞에 다진 맹세였다.

그리고 자식들을 군인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혁명의 대를 굳건히 잇게 하는 길이기도 했다.

이윽고 안명봉은 빼랍에서 편지지를 꺼내놓았다.

당의 뜻에도 어긋나고 부자간의 도리도 저버린 둘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놓을 서리발같은 편지를 쓰리라 마음먹었다.

만년필을 들고 생각을 더듬던 그는 갑자기 편지지를 활 밀어놓고 체신소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전보용지를 받아든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썼다.

《경현 앞 군복이 싫어진 너를 대신하여 내가 다시 군복을 입겠음. 아버지.》

전보를 치고 돌아가는 안명봉은 둘째의 생각이 진심이 아니기를 바랐다.

아니 진심일수가 없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아직 어리고 단련이 부족한 아이에게 일부 인간들이 달콤한 입김을 불어넣어 일시적으로 동요를 일으킨것이 분명할진대 그곳에도 당조직이 있고 또 로병인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그따위 입김쯤은 얼마든지 녹여낼수 있을것이다.

그날밤 안명봉은 밤을 밝히며 둘째에게 보내는 첫 편지를 썼다...

그의 기대와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얼마후 둘째에게서는 부모님들의 용서를 비는 장문의 편지가 왔다.

《...아버님의 간곡한 분부대로 저는 다시는 한발자국도 헛디딤도 없이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충신 효자로 살며 싸워나갈것을 굳게 결심합니다.

군관학교로 떠나면서 아들 경현 올림》

덧붙인 마지막글자를 읽으면서 안명봉은 안도의 큰 숨을 후 내뿜었다.

두 아들때문에 고심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곁에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로병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바라는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은 딸들은 스스로 제 갈길을 찾았다.

상급학교로 가려던 희망을 포기하고 입대를 요구한 경순이, 언니의 뒤를 이어 차레로 군복을 입은 둘째딸 경옥이, 셋째딸 경희 끝끝한 군인이 되어 거수경례를 척 붙이는 그 딸들이 너무도 기특하고 대견하여 처음으로 사나이 눈물을 흘려본 안명봉이었다.

그가운데서도 아버지에게 류다른 기쁨을 안겨준 딸은 둘째 경옥이었다.

마음씨가 곱고 살뜰하여 집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인민반에서도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해온 경옥이 여서인지 그가 입대하는 날 역두에 그를 배려 나온 사람만도 백여명이 되었다.

수도 평양에서 군사복무를 하게 된 경옥의 기쁨은 한량없었다.

부대에 도착한 이튿날이었다.

아직 전차도 빠스도 다니지 않는 이른새벽의 고요한 수도의 거리로 커다란 꽃바구니를 든 한 녀성군인이 사뿐사뿐 걸어가고있었다.

십여리길을 걸어 만수대언덕에 이르렀을 때는 날

이 활짝 밝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 와선 그는 향기그윽한 꽃바구니를 정중히 드리고 깊숙이 허리를 굽혀 절을 했다.

《아버지대원수님 부디 만수무강 하십시오!》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아 만수축원의 인사를 올리는 묘령의 녀성군인, 그가 바로 다름아닌 안명봉의 둘째딸 안경옥이었다.

그날부터 몇해가 지난 어느날 예고도 없이 경옥이 불쑥 집에 나타났다.

몸매도 행동거지도 완전히 숙성한 처녀꼴이 잡힌 딸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흐뭇했다.

《제대되었니?》

《아니요.》

《그럼 표창휴가를 받았니?》

《아니요. 그저 좀 의논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군대가 의논쯤 하는 일때문에 집에 척척 온단말이나.》

심상치 않은 기미를 느낀 안명봉은 가슴이 후두둑 떨려왔다.

둘째딸이 군사복무를 잘한다고 부대에서 감사편지가 오고 입당도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을 폭 놓았던 딸인데 그동안에 또 무슨 일이 불거진게 아닌가.

《정치부장동지가 보내줬어요.》

《정치부장이?》

《네, 아버지, 제가 말은 병동에 얼마전에 전투임무를 수행하다가 심하게 부상을 당한 한 전사가 입원했어요. 그 동문 정말 마음이 뜨겁구 충성심이 높은 용감한 동무야요. 이제 상처는 다 나았는데 군사복무를 더 할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명봉은 긴장되었다. 말하는 딸의 취지가 어렵듯이 짐작되었다.

《그 동무에게는... 그 동무에게는 옆에서 돌봐줄 가까운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경옥은 고개를 다소곳한채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잘근잘근 씹었다.

안명봉은 발그레 상기된 딸의 얼굴을 새삼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조국을 위해 피를 흘린 한 병사의 손발이 되겠고 스스로 말아나선 기특한 처녀, 어찌면 내 딸이 이렇듯 희한하게 장한 마음을 먹었을까!

스스로 우려난 마음일가 아니면 누가 시켰을까,

## 청춘과의 담화

김송남

### 하루와 한생

하루는 짧더냐 길더냐  
학파로, 로동으로, 군무로 이어지는  
그 하루하루를  
디딤돌로 삼을줄 알라  
충효일심  
친애하는 그이 뜻 받드는 길에  
하루는 한생을 오르는 계단

### 주는 것과 받는 것

받는 때도 기쁘더라  
주는 때도 기쁘더라  
받는 때가 있었거던 주는 때도 가져봐라  
주고받는 기쁨이 가득차넘치는  
향도성 빛나는 위대한 시대  
남에게서 받아안은 그 기쁨만 안다면  
그는 아직 우리 시대 참기쁨을 모르는  
불행한 인간

### 진실과 허위

사랑과 우정 앞에 진실하여라  
진심을 깨닫한 마음의 향기  
언제나 조국의 믿음이 따르리  
말과 행동을 꾸미지 말라  
허위는 넓어진 마음의 독버섯  
청춘의 생명을 소리없이 파먹으리

### 오늘과 래일

래일에 마저 하자고  
미루는 오늘의 일감  
정녕 래일에 끝낸다 해도  
그것이 어찌 오늘의 일이라  
시간앞에 지는 빛은  
한생 가도 못갚는 빛

### 작은 것과 큰 것

누가 첫걸음에 영웅이 되려느냐  
이웃들의 칭찬에 먼저 오르라  
작업반 총화때의 모범이 되라  
속보판에 나붙는 이름이 되라  
작은 내 합쳐져

### 광석과 버럭

태고의 아득한 날  
천지명동하는 지각의 격변속에  
제빛을 찾은것이 광석  
제빛을 잃은것이 버럭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위대한 이 세기가 청춘에게 묻는구나  
너 신념에 빛나는 광석이 되려느냐  
너 의지를 잃어버린 버럭이 되려느냐

### 폭탄과 성새

그를 위해 청춘이 있다  
원췌의 핵탄도 못뚫는 성새가 되려  
그를 위해 청춘이 산다  
제국주의 숨통에 폭탄으로 터지려  
달리는 쫓수 없는 당의 청춘  
그래서 세상 힘있고 세상 빛나는것이  
조선의 청춘이다

### 삶과 죽음

김책, 리수복, 김광철...  
그들은 삶의 한끝을  
새로운 삶으로 이어놓은 사람들  
조국에 아낌없이 피땀을 바치며  
살아 살줄 안 사람과 마찬가지로  
혁명에 선뜻 심장을 바쳐  
죽을줄 안 사람에게는  
오, 죽음이란 있을수 없다

# 락동강할아버지

로혜숙

그날 나는 오래지 않아 조국보위초소에 서게 될 아들에게 앞세우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으로 갔다.

바로 전승기념일이어서 기념관 앞뜰은 이른아침부터 참관자들로 붐비었다.

첫 참관대렬에 들어설 작정으로 사람들의 물결을 헤치며 부지런히 앞으로 나가던 아들이 갑자기 멎어서며 나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그애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장대한 체구의 로병이 참관자들의 앞에 서서 손세를 써가며 이야기하고있었다.

《어머니, 저 영웅강사할아버지가 낮이지 않아요? 사적부문 일군 예술소조공연때 독창을 하던분이에요. 영웅동지가 노래도 어쩌면 저렇게 잘 부르는가고 어머니가 감탄하셨지요, 그분이에요. 그때 저 할아버지를 1211고지전투영웅이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라고 소개했기때문에 내가 잘 기억해요. 할아버지의 전투담을 들으러 이곳에 오려고 했으니까요.》

군대에 나가면 바로 리수복영웅이 섰던 초소에 서겠노라고 입버릇처럼 외워온 아들은 기뻐 빙글거리며 어서 그 강사가 안내하는 대렬에 서자고 나의 팔을 잡아끌었다. 그리고는 참관대렬이 빨리 1211고지 전투관에 이르기를 고대했다.

그러나 영웅은 1211고지전투관에서 아들의 기대에 만족을 주지 못했다. 이미 다 알고있는것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것이였다.

더우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비치지 않고 그저 자기도 1211고지방위자들중의 한사람이였다는것을 밝혔을뿐이였다.

영웅이 흥분하여 열을 올린곳은 전혀 뜻하지 않은곳이였다. 그것은 전시 후방인민들의 투쟁업적을 보여주는 진렬실에서였는데 벽면에 가득히 전시된 각종 사진이며 그림들앞으로 참관자들을 안내하던 영웅은 한 대형그림관앞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고 이윽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미제를 쳐부시며 락동강가에 이른 인민군대를 도와나선 락동강의 한 배사공로인을 형상한 그림이였는데 영웅의 눈빛을 보니 그림에 그 무슨 잊지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듯싶었다.

그림속의 로인과 그 무슨 이야기라도 주고받는듯한 시선으로 이윽히 그림을 들여다보고있던 영웅은 참관자들이 곁에 다가오자 손을 들어 그림을 가리켜보였다.

《이 할아버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

민군대를 희생적으로 도와준 락동강 배사공할아버지입니다. 락동강전투때 많은 인민군군인들이 이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았지요. 나도 그런 사람들중의 한사람입니다.》

다감하게 울리는 영웅의 말에 놀라서 커진 눈들이 마주보았다. 그림속의 로인을 어느 한 미술가에 의해 창조된 인물이 아니라 자기의 표상속에 굳어진 락동강의 로인으로 마치 그 로인이 그림으로 응고되더라도 한것처럼 이야기하는것이 아닌가.

나는 세상에 나온지 오랜 이 그림을 여러번 보았지만 처음보듯 가까이 다가가 군민이 한덩어리가 되어 원썬들과 싸우는 감격적인 모습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휘몰아치는 비바람에 몸부림치듯 술렁거리는 갈대숲을 헤치며 세 인민군 정찰병을 태운 한척의 매생이가 미끄러져간다.

매생이의 노는 이 나루에서 매생이와 함께 한생을 살아오는 배사공할아버지가 잡고있다.

이글거리는 눈으로 적정을 살피며 금시 피줄이 튀어나올듯이 팔뚝에 힘을 주어 노를 젓는 로인의 얼굴에는 어려운 전투임무를 수행하고있는 인민군 정찰병들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을 비장한 각오가 번뜩이고있다.

치욕과 원한만이 서리였던 락동강 물결우에 은혜로운 **김일성**장군님의 해빛을 안기기 위해 수천리 먼길을 걸음걸음 피로 물들이며 달려온 이 장한 아들들을 위해 무엇을 아끼랴!

로인은 세 정찰병의 임무수행여부가 자기에게 달려있기라도 한것처럼 어깨에 두른 버짚우장을 기발처럼 날리며 온몸이 노가 되어 배를 몰아간다. 마치 준엄한 이 새벽을 위해 세상에 태어나기라도 한듯...

불현듯 나에게서는 이 그림의 화가도 락동강배사공의 도움을 받은 인민군병사들중의 한사람일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영웅이 그 로인으로 생각할만큼 방불히 그려낼수있었겠는가.

나의 가슴속에서는 40여년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영웅이 그토록 잊지 못해하는 사공로인에 대하여 그와 영웅과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싶은 욕망이 끓어올랐다.

무어라 이름할수 없는 흥분에 휩싸인 나는 참관이 끝나자 강사실로 영웅을 찾아갔다. 내가 찾아온 취지를 이야기하자 영웅은 흥분했다.

그는 방금 담배 한대를 다 태우고도 잊은듯 짝에서 또 한대의 담배를 꺼내어 불을 붙이고는 추억의 문을 열듯 두눈을 쪼프리였다.

×

련락병 김룡수가 다리에 중상을 당한 소대장을 부축하며 락동강가에 이른것은 밤이 퍼그나 깊어서였다.

비로도천필을 펼쳐놓은듯 부드럽고 그윽한 하늘에서 눈섭같은 초생달이 온통 굽히고 터져 험상궂어보이는 두 군인을 애무하듯 은은한 은백색 빛발을 조용히 내리뿌렸다.

그들은 지금 락동강에서 철수하는 아군부대들을 엄호할 임무를 받고 마지막까지 락동강 좌안계선에 서 미제침략군놈들과 싸우다 철수하는중이었다.

소대의 다른 대원들은 이틀전에 중대와 함께 떠나고 그들 두사람은 철수도중 불의에 맞닥뜨려 적들을 때돌리다가 소대장의 부상으로 떨어져졌다.

달빛에 희끄무레하게 드러난 강변의 정경을 훑어보던 두사람의 눈길은 굳어졌다. 근방에 여울도하장이 있는것으로 알고왔는데 전혀 생소한 지역인것이었다.

심한 동통과 고열로 검붉게 질리었던 소대장의 얼굴이 한층 더 컴컴해졌다.

《제가 강변의 풀숲을 뒤져보겠습니다. 도하전투 때 리용한 개인디아하신병기재들이 더러 있을수 있으니 너무 근심마십시오.》

입대한지 한달밖에 되지 않는 열일곱 애송이지만 자신을 남진의 선두에 선 일선부대의 대단한 《용사》로 자부하고있는 룡수는 자기에 대한 구대원들의 평가에 남달리 신경을 썼다.

지금도 룡수는 소대장이 아직 군인으로서의 체모를 채 갖추지 못한 자기와 떨어지는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것 같아 조바심을 치고있었다.

어데선가 간간이 물새울음소리가 들려올뿐 강반은 고요했다.

시퍼런 허바닥처럼 끊임없이 수면을 활던 탐조등도 자취를 감춰버리고 무시로 울리던 총성도 잠잠했다. 마치 전쟁은 저 멀리로 밀려가고 강상에는 평화가 깃든듯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것이 폭풍전야의 정적과도 같아서 불안스러웠지만 어쨌든 강을 건느기에는 유리한 정황이어서 룡수는 급급히 도하기재를 찾기 시작했다.

제일 좋기는 나루배를 리용하는것인데 이밤에 강 어느쪽에 있을지 모를 사공을 어떻게 찾는단말인가. 또 찾는다 하더라도 나루배에 대한 통제가 보통 심하지 않을것인데 이밤에 어느 사공이 배를 띄우려 하겠는가.

하기에 룡수는 도하기재로 쓸만한 판자나 각재갈

을것을 찾는데만 신경을 썼다.

그런데 그사이 놈들이 강변을 훑었는지 있을만한 곳을 다 뒤져보았으나 나무개비 하나 눈에 띄지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피고있던 룡수는 그 누구인가 집요하게 자기를 지켜보고있는듯한 촉감에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순간 그의 눈은 화등잔처럼 커졌다.

저쪽 풀숲가에 웬 로인이 버티고 서있었다. 순간 낮익은 인상이 머리에 떠올랐다.

배수건으로 질끈 동인 넓은 이마, 활등처럼 휘어진 시꺼먼 눈섭, 수북한 굴데수염... 부지중 룡수의 입에서 나직한 환성이 터져나왔다. 그는 룡수네가 이 강을 건너올 때 나루배로 그들을 도와준 배사공로인인것이였다.

(저 로인이 이밤에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을가.)

룡수는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그를 처음 만났던 일을 생각했다.

패주하는 적들의 뒤통수를 갈기며 남으로 내달던 룡수네 부대가 나루터를 낀 락동강반의 어느 한 마을에 이른것은 점심녘이 좀 지나서였다.

20여호가량의 초가집들이 둘러앉은 마을은 인적 하나 없이 텅 비어있었다.

선견대로 먼저 강을 건너 대안의 근거지들을 차지할 임무를 받은 룡수네 소대원들은 나루터에 가서 배부터 찾았다. 한데 나루터 역시 배도 사공도 없이 비어있었다.

사공은 없어도 배는 눈에 띄지 않는 어느 지점에 숨겨두었을것 같아 강기슭을 오르내리며 찾던 룡수네가 목이 말라 가까운 샘터를 찾아 한창 물을 마시고있는데 한 처녀애가 물동이를 들고 타박타박 걸어오다 와들 놀라며 멈춰섰다.

첫순간 소녀는 몸을 웅송그리며 뒤걸음치더니 룡수네가 인민군대라는것이 확인되자 까만 오목눈에 반짝 생기를 띄우며 자기 할아버지가 지금 룡바위 뒤에서 배를 수리하고있다고 알려주었다.

알고보니 그가 말하는 할아버지란 룡수네가 찾고있던 배사공이였고 그애는 사공의 손녀였다.

소녀의 말에 의하면 그의 할아버지는 놈들이 도망치면서 배사공도 끌고갈 기미를 보이기에 앞질러 몸을 피했다가 인민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아침에 마을로 돌아왔다는것이였다.

《참 고마운분이구나. 그런데 수리한다는걸 보니 배가 어디 마사졌나?》

소대장이 이렇게 묻자 아니라고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마사진게 아니예요. 그저 할아버지가 인민군대가 탈 땐데 자그마한 흠집도 있어서는 안된다고하면서 배 밑창에 난 작은 구멍들도 다 메우고있는거예요.》

소녀는 방싯이 웃으며 이렇게 말하고는 썬터에 물동이를 놓은채 어딘가로 부리나케 달려갔다. 할아버지한테로 가는것 같았다.

여덟살이상은 되지 않은것 같은데 말하는 품이 어른같은것이 여간 똑똑하지 않은 소녀였다.

롱수네도 뒤따라가려고 일어서는데 벌써 소녀가 쥐꼬리같은 머리채를 달싹거리며 뛰어오고있었다.

그뒤로 키가 크고 골격이 굵은 50대의 로인이 따라오고있었다.

왕북촉같은 시꺼먼 눈썹, 수북한 굴데수염, 눈도 코도 입도 모두 큼직큼직 후하게 생긴 로인의 얼굴에는 다듬지 않은 조각상처럼 거칠고 투박한데가 있었지만 보다 짙은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후덥게 하는 부드럽고도 온화한 빛이어서 롱수네는 마치도 구면지기를 만날 때와도 같은 기분으로 로인과 인사 나누었다.

로인은 롱수네들의 손을 짹 잡아잡고 놓을줄몰랐다. 하고싶은 말이 많은듯한 기색이었으나 입밖에 내지 않고 잡은 손을 더욱 으스러지게 틀어쥐었다.

그것이 몇백마디 말보다 더 웅변적이어서 모두가 그리는 로인을 뜨거운 눈길로 지켜보았다.

《내 이놈의 배사공노릇을 다시는 안하겠다고 맹세하고 돌아섰는데 임자들이 오니 저절로 나서네 그려.》

로인은 한참후야 잡았던 손을 놓으며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소대장에게 배가 곧 필요한가고 물었다. 소대장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로인은 어디론가 총총히 사라지더니 얼마 안있어 배에 노랑계 잘 익은 참외가 한가득 들어찬 큼직한 망태기까지 싣고 나타났다.

《락동강 참외맛이 어떤가 한개씩 들어보구 강을 건느세. 달구 시원하기로 소문난거라네.》

로인은 보기만해도 군침이 도는 크고 말큰말큰하게 잘 익은 참외를 하나씩 소대원들의 손에 쥐여주고는 맛나게 먹는 모양을 흠족해서 지켜보았다. 그 모습이 신통히 고향의 할아버지를 연상시켜 가슴이 뭉클했다.

소대장은 로인의 그 고마운 마음에 무엇으로든 보답하고싶은듯 배낭을 뒤적거리더니 종이에 정히 싣은 꾸레미 하나를 꺼내 펼치였다. 그것은 노르무레하게 잘 말린 잎담배꾸레미였는데 유명한 성천잎담배였다.

《장군님 주신 땅에서 제손으로 가꾼 잎담배인데 맛이 아주 좋답니다. 아버님네 참외가 소문나듯이 우리고장에서는 이 담배가 유명하지요. 피워보십시오.》

소대장은 꾸레미에서 담배를 한뭉을 꺼내여 로인의 손에 쥐여주었다.

《원 이런 귀한걸 다...》

로인은 그 잎담배가 무슨 희귀한 보물이기라도한

듯이 손바닥위에 올려놓고 만지작거리다가 피우지 않고 담배쌈지에 싸넣었다.

《왜 피우지 않습니까?》

《두고 보려네.》

《아버님도 참, 더 드릴테니 어서 피워보십시오.》

소대장이 꾸레미에서 담배를 한뭉을 더 꺼내주며 권해서야 로인은 피춤에서 대통을 꺼내면서 한껏 부러움이 실린 어조로 말했다.

《임자네들은 참 복탄 사람들이야. 장군님치하에서 땅까지 다 받아보구...》

《이제 여기에도 인민정권이 서고 땅없는 농민들은 다 땅을 받게 된답니다. 아버님도 사공일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려 하신다면 땅을 받을수 있구요.》

《그게 정말인가? 우리 이남사람들에게도 그런 복이 차례진단말인가?》

로인은 잘 믿기지 않는듯 눈을 홉뜨며 소대장을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차례지고말구요. 지금 해방지역들에서 토지분여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있답니다. 여기도 멀지 않았습시다.》

소대장의 말은 로인의 얼굴에서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로인의 꺼칠한 불편이 경련하듯 실룩거리더니 주름살에 애워짜인 눈에 이슬기가 스치였다.

《쥐구멍에도 별들날이 있다더니 그런 날이 정말 오는건가?》

로인은 담배를 붙여물고 강 저쪽 어딘가를 물끄러미 지켜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다.

《내 평생소원이 죽기전에 한번만이라도 제 땅에서 농사를 지어보고 사람대접을 받으며 사는것이 없다네. 사람이 아니라 마소처럼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면서 살아온 나였네. 돈없고 권세없는 사람은 사람으로 치지 않는 세상에서 배사공이 그럴수 밖에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관리들은 관리들대로 아무때고 불러대고 걸핏하면 욕질하면서 참을수 없게 하대를 했지만 그 알량한 일자리마저 떼우면 살수 없겠기에 피눈물을 짜면서도 항변 한번 못하고 살아오지 않았겠나. 그놈들이 끄는대로 끌리워다니다가 로친이 숨지는것도 못본 몸이네.》

지난해에는 강을 건느겠다고 밤중에 뛰여든 미군놈들에게 손자까지 잃었네. 그때 나는 독감에 걸려 꼼짝못하고 누워있었는데 어데서 잔뜩 술을 쳐마시고 달려든 놈들은 열에 떠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나를 무작정 끌어냈네. 손자애가 막아섰지. 그랬다고 저 악귀같은놈들이 그애의 가슴에 총을 들여대지 않았나. 위협하는줄 알았는데 진짜로 쏘다니네. 그 어린것의 가슴에 진짜로 총을...》

로인은 뒤말을 잊지 못하고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대통을 털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눈들은 로인의 가슴에 그토록 깊은 상처를 준 원쑤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이글이글 탔다.

로인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 그때 이놈의 배를 물속에 확 처박고 나도 세상을 떠나려고 작정했네만 혼자 남은 손녀애가 가궁해서 그러지 못했네. 하나밖에 없는 오빠를 잃고 제정신이 아닌 그애가 할애비까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나. 그애 아버지는 배사공노릇을 시키지 않으려고 살기 좋다는 북간도로 애가 두살때에 떠나 보냈는데 지금껏 돌아오지 않네그려. 기다리다 못해 해방되는 해에 찾으러 그애 어미를 또 보냈네만 그도 무소식이 아니겠나. 그러니 나까지 없어지면 그애는 세상에 혈분이 하나 없이 어떻게 살겠나. 그래서 물러선 일인데 임자들을 만나고보니 그렇게 하지 않은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 배가 없으면 내가 임자들을 무엇으로 돕겠나. 내 평생소원을 풀어주려 천신만고 헤치며 온 사람들을 무엇으로든 도와야 할터인데 배가 있는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로인은 말을 마치고 강을 굽어보더니 일어나 바지가랭이며 팔소매를 가튼히 걸어올리고 이마에 동인 베수건도 풀어 다시 동여매었다.

슬픈 추억으로 흐려졌던 얼굴이 상봉할 때처럼 다시 밝아졌고 눈에는 기쁨과 함께 귀중한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번득였다.

그날 로인은 대안의 적들이 무시로 총탄을 퍼부어대는 어려운 정황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소대의 도하를 훌륭히 보장해주었다...

이 시각도 룡수는 그날의 로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헤어질 때 로인은 세상이 달라졌으니 배사공을 집어치우고 소원대로 농사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생각을 고쳤다고, 사공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뜻있는 웃음을 지어보였는데 로인을 보니 그 생각부터 나며 모든 불안이 일시에 가라앉는듯싶었다.

이제는 뵈구나 하는 한가지 생각에만 옴한 룡수는 술한 사람들을 대상하는 로인이 얼핏 만났다 헤어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수도 있다는 생각도 않고 자기 소개도 없이 무작정 로인에게로 달려가 숨가쁘게 부르짖었다.

《아바이, 우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린 이밤으로 강을 건너야 한답니다.》

그러자 로인은 웬 사람이냐는듯 눈섭을 치켜올리며 룡수를 훑어보더니 통명스럽게 뇌이었다.

《사람을 잘못봤군. 난 사공이 아니네.》

(아니?)

어안이 병병하여 서있던 룡수는 얼핏 떠오르는것이 있어서 자기의 차림새를 살펴보았다.

그제야 간밤에 추격해오는 놈들의 눈을 피하느라

고 소대장과 함께 피뢰군복을 덧입었던것에 생각이 미친 룡수는 황급히 로인의 앞을 막아섰다.

《절 알아보시지 못하겠습니까? 전 도하전투때 로인님의 배를 탄 일이 있는 인민군댁니다.》

일순 로인의 눈섭이 쫓깃하고 눈가에 무슨 반응이 이는것 같았으나 곧 푹푹하고 엄엄한 표정으로 돌아간 로인은 한층 더 뻥뻥한 어조로 응수했다.

《내가 누군줄 알고 그런 소리를 탕탕... 다시 말하네만 임잔 사람을 헛갈렸네. 난 배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말이네.》

순간 룡수의 눈굽에서 번쩍하고 세찬 빛이 일어났다. 쉽게 격하는 성미인 그는 도하전투때와 너무도 다른 로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 의혹에 찬 눈으로 로인의 거동을 지켜보며 무슨 일이라도 났듯 씩씩 단숨을 몰아쉬었다.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변해도 저렇게 변할수 있겠는가.

너무도 달라진 로인을 대하고보니 혹시 생김새가 비슷한 다른 사람과 헛갈린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야 그 로인이 분명했다.

그렇게 거울진 몸집에 얼굴의 모든것이 붓으로 찍어놓은것처럼 선명하고 특징적인 사람은 오직 그 로인뿐이었다.

그렇다면 돌변한 로인의 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신상에 화가 미칠가봐 신조도 의리도 헌신짝처럼 켜버리는 추물들과 같은 부류로 볼수야 없지 않는가.

룡수가 두손을 벌린채 아연히 서있는데 맞은편 풀대들사이로 소대장이 다리를 끌며 기여오고있었다.

그것을 띄여본 룡수는 로인의 존재를 잊고 소대장에게로 마주 뛰어갔다.

《가만 안정하고있어야지 왜 일어났습니까. 열이 이렇게 나는데...》

룡수는 활활 단 난로같은 소대장의 몸을 만지며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소대장은 다리에 부상을 당하면서 피를 많이 흘린데다 계속되는 고열로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의식까지 몇번 잃었었다. 놈들의 경계를 뚫고 어떻게 강을 건너내겠는지 여간 근심스럽지 않은것이였다.

룡수가 사공로인의 이야기를 하려는데 소대장이 급히 의논해야 할 무슨 긴한 일이라도 있는듯이 먼저 룡수를 불렀다.

《룡순 해염을 잘 치냈지?》

《예?》

룡수는 소대장의 심상치 않은 물음에 놀라며 긴장하여 뒤말을 기다렸다.

소대장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힘들게 말을 이었다.

《아무래도 룡수가 먼저 강을 건너야겠어. 빨리 중대에 보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아니 그럼 소대장동진?》

《난 차차 방도가 있지 않으리. 우선 룡수동무가 먼저 가서 이곳 정황을 중대에 알려야 그쪽에서도 행동할게 아니오. 모두 지금쯤 2호집결구역에 모여 눈이 빠지게 기다릴텐데...》

《어쩌면 소대장동진 그런 생각을 다... 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소대장동지를 적후에 혼자 두고 간단말입니까?》

룡수는 펄쩍 뛰며 손을 내저었다.

련락병이 중상당한 자기 상관을 혼자 두고 떠난다는것이 있을만한 일인가.

《제 어떻게든 도하기재를 마련할테니 그 이야기는 더 꺼내지 마십시오.》

룡수는 소대장이 더 말을 못하게 단호하게 밀막고 일어섰다.

《가만 룡수동무, 이걸 그렇게 강짜를 부려서 해결될 일이 아니요.》

소대장은 펄쩍거리며 일어서는 룡수의 팔을 잡아 앉히었다.

《잘 듣소. 지금형편에서 나는 도하기재가 있어도 강을 건느기가 불가능하니 룡수동무 빨리 행동해야겠소. 이걸 명령이요.》

소대장의 어조는 아까처럼 사정조가 아니라 전투시 명령을 하달할 때처럼 날카롭고도 예리했다. 모진 동통으로 흐릿하게 정기를 잃었던 눈에서도 단호하면서도 엄격한 광채가 내비치었다.

룡수는 그만 울상이 되었다.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만이 있는것이다. 하지만 이런 명령을 어떻게 집행한단말인가. 이제 자기가 떠나면 운신 못하는 소대장이 적후에서 혼자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알랴. 그것을 생각하니 온몸이 줄어드는듯싶었다.

룡수는 자기도 모르게 소대장앞으로 한발 더 다가서며 부르짖듯 말했다.

《전 그것만은, 그것만은 집행하지 못하겠습니다...》

룡수는 뒤말을 채 잊지 못했다.

노한 소대장이 몸이 불편하다는것을 잊고 뛰쳐 일어나다 뒤로 넘어간것이였다.

달빛에 희미하게 드러난 소대장의 창백한 얼굴이 땀으로 덮인것을 일별한 룡수는 련민과 자책에 부르르 떨며 소대장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직 불편에 숨털이 보르르한 자기에게 상관이기 전에 형님이었던 소대장, 엄하면서도 인정깊어 모두가 친형처럼 따르는 소대장을 사지에 두고 정녕 가야 한단말인가.

끓어오르는 오열을 참느라 입술을 악물고있던 룡수는 어깨에 손이 와닿는것 같은 촉감에 뒤를 돌아 보았다.

룡수의 눈은 다시금 놀라움으로 커다래졌다. 등 위에 사공로인이 와 서서 자기와 소대장의 거동을 지켜보고있었는데 조프린 눈길에 불신과 의혹이 아니라 애정과 신뢰가 담겨져있는것이였다.

《아깐 몰라봤네.》

로인은 간말을 하지 않고 곧장 소대장곁으로 다가가 말없이 소대장을 안아일으켰다.

웬 로인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어안이 빙빙해있던 소대장의 눈이 번쩍하며 커지더니 반가움에 목갈린 소리로 부르짖었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이밤에 아버님이 어떻게 여기에?》

로인은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소대장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혼자말처럼 뇌이였다.

《펄펄 뛰던 사람이 어찌나 이렇게 되였다. 먼길을 가야 할텐데 이 다리로 어떤단말인가.》

저르기 갈린 목소리가 어찌나 진정에 넘쳐있었던지 룡수의 눈굽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콧구멍을 찔렀다. 그런 로인을 꼭해한 자책, 이제는 소대장과 함께 갈수 있다는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였다.

로인은 소대장의 상처에서 봉대를 풀어내고 이윽히 들여다보더니 어딘가로 급히 사라졌다. 무슨 물대같은것을 손에 들고 나타났다. 로인은 소대장의 상처에서 봉대를 풀어내고 이윽히 들여다보더니 어딘가로 급히 사라졌다. 고름을 뽑는데 쓰는 약초인데 상처에 붙이면 한결 시원할것이라고 하였다.

로인은 그것을 손수 짓뭇어 소대장의 상처에 붙여주고는 룡수더러 달이 지면 곧 강을 건널수 있게 준비를 하라고 일렀다.

그러니 배도 여기에 있다는 뜻이였다. 나루터도 아닌 여기에 어떻게 배를 가져왔는지 의문스러웠지만 드디어 강을 건느게 된다는 흥분으로 해서 그런 의문은 곧 사라졌다.

한시간후 세사람은 배에 올랐다.

로인은 출발에 앞서 룡수와 소대장을 배밑창에 눕도록 하고 얼핏 보아서는 알아보지 못하게 물대들로 덮었다.

달이 저버린 강반은 캄캄했다. 배전에 부딪치는 물결소리만 아니라면 배의 움직임을 알수 없을만큼 강반은 조용하고 어두웠다.

청승맞게 울려오던 물세울음소리마저 더는 들리지 않았다.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이런 고요가 계속 되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어데선가 강바람을 타고 무르익은 과일대 같은것이 풍겨오고 강기슭의 단풍진 숲의 룰락이 거밋하게 보이였다. 그러니 배가 강심을 넘어 저편 기슭을 가까이하고있는것이였다.

이젠 얼마 멀지 않았다. 몇분간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강은 무사히 건느는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찰나에 조용하던 대안에서 적들이 갑자기 탐조등을

비쳐대기 시작했다.

어둠을 찌는 그 시퍼런 불줄기들이 배를 포착만 하면 맞받아 나가 싸워야지 다른 길이 없었다.

룡수는 소대장을 돌아보았다. 소대장은 이미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들고 입속말로 지시했다.

《전투준비를 해야겠소.》

그 말에 룡수도 총을 꺼내들고 사격자세를 취하였다. 그순간에 뜻밖의 일이 생겼다. 아무 일도 없는듯 태연히 노를 저어가던 로인이 번개같이 룡수의 손에서 총을 잡아채는 것이었다.

《이럴 작정이면 내리게.》

로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부릅뜬 눈에서는 엄격한 광채가 내비쳤다.

그럼 다른 무슨 방법이 있단말인가? 로인의 기상이 너무도 엄엄하여 덤덤히 보고만 있는데 《여 나루배 거 나루배 아니냐?》 하는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로인의 눈에서 섬광이 일었다. 불달린 도화선같은 눈길로 소리난 쪽을 건주어보던 로인은 미처 가려볼사이도 없이 불시에 배머리를 돌려대더니 오던 방향으로 배를 되돌려 몰아갔다.

《아니, 이젠 어찌자는겁니까?》

룡수가 다급해서 소리를 치자 소대장도 일어났다.

《우린 되돌아서지 못합니다. 피를 흘리면서라도 가야 하니 배를 돌려주십시오.》

하나 로인은 듣지 못하기라도 한듯이 노젓는 속도를 더욱 높이였다.

(이 아버지가 어찌자는건가?)

걸핏하면 흥분하고 격하기 잘하는 룡수는 저도 모르게 로인결으로 다가가 와락 노를 그려안았다.

로인은 아무말없이 그러는 룡수를 밀쳐버리고 노대를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룡수의 눈에서 불이 일었다. 맞받아 나가 싸우다 죽으면 죽는거지 후퇴가 무언가. 로인의 용기란 보잘것 없는 것이었다. 사람의 진가는 위험한때에 알아본다더니 그 말이 옳은것 같았다.

이런 생각에 묻혔던 룡수는 소대장이 어깨를 치며 앞을 가리켜보이는바람에 머리를 들었다.

룡수의 눈은 또다시 둥그래졌다.

오던 길로 되돌아가는줄로 알았던 배가 강상류쪽으로 올라가고있는 것이었다.

나중에 일이 어떻게 번져가든 적들과의 거리가 멀어져 한결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그새 잡자던놈들도 모두 갠듯 웅성거리는 소음은 아까보다 더 컸고 총탄도 날아왔다.

정황은 긴박했다. 하나 로인은 여전히 말 한마디 없이 입을 꼭 다물고 곧추 쏘아보면서 노젓기에만 전념했다.

팔이 아니라 온몸으로 노를 젓는것 같았다. 아니 노가 아니라 가슴으로 배를 밀어가고있었다.

한참 그렇게 만신의 힘을 다하여 배를 몰아가던 로인이 갑자기 맹렬히 노를 젓던 손을 툇 멈추고 우뚝 섰다.

로인과 함께 주위의 모든것이 정지되고 물결마저도 흐름을 멈춘듯싶었다.

로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어떤 아픔을 새기듯 입술을 꼭 악물고 어깨숨을 쉬며 허공을 응시하다 불편을 실룩거리며 짜내듯 말했다.

《아무래도 임자들이 배에서 내려야겠네.》

《?》

너무도 뜻밖의 일이어서 룡수와 소대장은 잘못이지 않았나 하여 멍히 로인을 보기만했다.

《저놈들에게 걸려들지 않으려면 이결밖에 없네.》

로인은 이마를 동이였던 배수건을 풀어 소대장의 상처를 한번 더 감싸며 이렇게 말하고는 룡수쪽으로 돌아서서 헤쳐진 앞섶을 여며주었다. 순간 옆으로 스쳐지나던 탐조등불줄기가 면바로 배우에서 딱 떨어버리는 것이었다. 그 서리찬 불빛이 몸에 와닿는 순간 로인은 두사람을 자기 몸으로 덮으며 껍껍 막히는 소리로 설명했다.

이곳은 여울이어서 물이 얕으니 룡수가 소대장을 업고 행동할수 있다는것과 힘겹더라도 소대장을 업고 강상류쪽으로 반시간정도만 올라가면 물가에 큰 바위돌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도보로도 건널수 있는 모래사장이 기슭에까지 잇닿아있어 무사히 갈수 있다는 것이었다.

《기슭에 나선 다음에는 계속 왼쪽으로 왜싸리밭을 의지해서 가도록 하게. 왜싸리밭이 끝나는곳에서 얼마 안가면 작은 등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만 넘으면 산일세.》

로인은 할말을 다 하자 룡수의 잔등에 소대장을 업히었다. 그제야 로인의 속마음을 알게 된 룡수와 소대장은 로인의 팔을 잡고 놓지 않았다.

《안됩니다. 로인님도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함께...》

소대장은 걱정으로 목소리를 떨며 로인의 앞을 막았다. 로인은 지금 자기들을 적들의 추격전에서 무사히 빼내려고 놈들에게로 맞받아나가려는 것이 아닌가.

이제보니 로인은 걱정이 나타난 첫순간에 이미 그런 결심을 하고 배를 여기로 몰아온 것이었다.

룡수는 금방 눈물이 쏟아질것 같아 말을 못하고 로인의 옷자락을 부여잡았다. 이런 로인을 몇번씩이나 의심하고 오해한 일이 가슴을 쥐여뜯고싶도록 괴로웠다.

《내 걱정은 말고 어서들 가게. 락동강 귀신이라고 하는 내가 제 한몸을 건사 못하겠나. 내 저편기슭으로 놈들을 피해갈테니 내 걱정은 말고 빨리들 가게. 그래야 원썬놈들을 다 없애고 다시 올게 아닌

가. 내 기다리겠네. 임자들과 다시 만날 날을...》

로인은 마지막말과 함께 룡수와 소대장을 배에서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배머리를 돌리고 못박혀버린듯 움직일줄을 모르는 룡수네들을 빨리 가라고 손질하고 노를 저어나갔다.

배는 기우뚱거리며 앞으로 나갔다.

룡수는 자기도 모르게 배를 따라 앞으로 나갔다. 정녕 이렇게 헤어져야 한단말인가. 눈앞에 할아버지를 기다려 잠 못이를 손녀애의 겁먹은 오목눈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지는듯했다. 건잡기 어려운 마음의 아픔을 누르느라 피가 지게 입술을 악물고있던 룡수는 흠칫하여 소대장을 올려다보았다. 퍼그나 앞으로 전진했던 내가 웬일인지 돌아서더니 룡수네를 향해 마주오는것이였다.

순간에 배를 코앞에까지 몰아온 로인은 룡수앞에 뿔가 베보자기로 쓴 작은 꾸레미를 던지였다.

《옛네, 가면서 요기하게.》 하고는 미처 대답할 겨를도 주지 않고 배를 돌려세웠다.

이것이 그들이 본 로인의 마지막모습이였다.

얼마후 로인이 준 땅콩과 닭은 보리쌀이 든 꾸레미를 안고 눈물을 삼키며 돌아선 두사람은 날썰녜에 무사히 산에까지 이르렀고 약속된 지점에서 앞서간 소대원들과도 만났다.

이곳에서 그들은 로인에 대한 또하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그네들도 강을 건느려고 폐목을 준비하다 어데선가 불쑥 나타난 로인과 만나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로인은 미처 철수하지 못한 인민군대들을 위해 매일저녁 적들의 눈을 피해 강저쪽 기슭에 나가 대기하고있었던것이였다.

룡수네가 로인을 것처럼 쉽사리 만나게 된것도 그때문이었던것이였다.

《아! 로인님!》

룡수와 소대장은 복받치는 오열을 삼키며 멀리 락동강쪽을 향하여 깊이 머리를 숙였다. 그러는 그들의 가슴속에서는 로인의 그 뜨거운 마음을 안고 이 땅에서 미제원썹놈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쓸어눕히고야말리라는 복수의 맹세가 돌처럼 굳어졌다.

×

여기까지 이야기한 룡수영웅은 그때가 되살아나는듯 짙은 감회가 실린 눈길을 쏘프리고 창너머 어딘가를 응시하며 이윽히 침묵을 지키다 한참후에야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렇게 헤어졌던 로인을 다시 만난것은 그때로부터 20여년 세월이 흐른 60년대말 어느 가을날이였다.

그때 나는 평양에 출장왔던길이었는데 내가 그림을 좋아한다는것을 아는 한 친구가 국가미술전람회가 한창 성황을 이루고있는데 왔던길에 보고가라고

권했소. 그래서 미술박물관에 갔었는데 거기서 로인을 만날줄이야...》

(로인을 만나다니?) 뜻밖의 말에 깜짝 놀란 나는 의혹에 찬 눈으로 영웅을 지켜보다 그의 입가에 어런 느슨한 웃음에서 말뜻을 깨닫고 물기를 그만두었다.

《미술박물관의 휘넛은 벽면에는 눈길을 끄는 갖가지 그림들이 빼곡이 걸려있었소. 황홀한 눈길로 하나하나의 그림을 보아나가던 나는 한 그림앞에 이르러 굳어져버렸소. 커다란 벽면에서 20여년전에 그렇게 헤어진 락동강 배사공로인이 글썽 그동안 잘 있었는가고 묻기라도 하는듯한 눈길로 나를 내려다보고있지 않겠소. 그순간에 그것이 그림이라는것을 망각한 나는 자기도 모르게 〈아바이 무사하셨군요. 이게 얼마만입니까〉 하고 인사말을 하지 않았겠소.

한참후에야 그것이 〈락동강할아버지〉라는 제목을 가진 조선화이며 그림의 아래단에서 화가의 이름까지 보게 된 나는 화가를 만나고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소. 화가가 락동강전투참가자일것이고 사공로인과 나처럼 연고관계가 있는 사람일것이라는 생각에서였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바이의 모습을 그토록 방불하게 그려낼수 있었겠소. 또 그를 만나면 아바이의 소식도 들을것만 같았소. 그날저녁 아바이의 최후를 목격한것이나 다름없지만 혹시나 하는 미련을 버릴수 없었소.

그래서 그길로 화가를 찾아가다오. 한데 인사를 하며 마주나오는 사람은 나같은 장년이 아니라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아니겠소. 땡땡해진 나는 한참 젊은 화가를 보기만 했소. 전쟁때에 기껏해서 인민학교에나 다녔을 그 청년이 락동강사공을 것처럼 방불히 그려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던거요. 혹시 로인과 한마을에서 살았거나 로인의 친척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소.

그래서 화가에게 그런 생각을 비쳐보았지. 그러자 젊은이의 얼굴이 대뜸 환해지더니 대답대신 나의 손을 와락 그러쥐고 〈그러니 제가 락동강의 그 배사공로인님을 제대로 그려냈단말입니까?〉 하고 부르짖었는데 눈에 눈물까지 글썽하니 고여있지 않았소.

그럴밖에 없는것이 알고보니 그는 로인을 본 일도 없는 평양청년이었는데 나의 말은 작품이 성공했다는것을 의미했으니까...

본일도 없는 로인을 어떻게 그토록 훌륭히 그렸는가 하는 물음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소.

〈직접 보지는 못해도 술한 락동강전투 참가자들이 저의 가슴속에 로인의 모습을 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인민군대에 대한 로인의 깊은 사랑의 감정과 숭고한 자기 희생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로인을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작품에서 그런 로인의 영웅적성격을 살리려고 애썼지만 생각처럼 잘되지 못했습니다.》

화가의 이야기는 나를 격동시켰소. 사실 로인은 영웅이었소. 가슴에 금별메달은 없었어도 메달이 빛나는 가슴들에 영웅의 모습으로 새겨진 참다운 영웅이었소.

비로소 나는 로인을 한번도 본일이 없는 화가가 어떻게 로인의 모습을 그토록 방불히 그릴수 있었는지 그 사람아닌 다른 누가 그러도 달리될수 없다는것을 깨달았소. 그때 우리 인민의 모습이 모두 그랬으니가

영웅의 이야기는 끝났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도 천지처럼 느껴지는 로인을 생각하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무어라 이름할수 없는 흥분의 파도가 가슴

을 흔들었다.

영웅도 영웅이라고 부르는 락동강할아버지. 그는 이 나라 어디서나 만날수 있는 순박하고 인정깊은 보통로인이 아닌가!

그렇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은 모두가 영웅이었다. 그 영웅조선의 빛나는 전통을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이어가 고계신다.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뭉친 불패의 무력, 위대한 령도자가 있는 이 땅을 노리는 원수들에게는 멸망과 죽음만이 차례질것이다.

나와 아들은 새로운 신심을 안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나섰다.

## 벌에서 만난 소조원

한 호

봄씨가 움트는 벌에서  
그는 농장원 다름없이  
모판을 만들고있었다  
내가 만난 소조원  
젊은 대학생은

일이 힘들지 않는가고  
내가 묻는 말에  
싱긋 웃으며 일없다며  
농장원들에게  
그는 오히려 나를 소개했다

그는 자주 수첩을 펼쳤다  
수첩을 펼치고  
모판에 퍼야 할 부식토의 량이며  
복토의 두께를 일일이 알려주며  
그는 벌에 살았다  
농장원들속에 살았다

산너머 몇집에  
가물 때면 수도물이 적은것이  
못내 가슴아파  
이 봄엔 물원천도 많이 찾고  
마음이 꽃속에 묻히게  
수십리길을 걸어가  
살구나무모도 얻어왔다는 그

결이대 들고 두엄을 뿌릴 때면  
농장원 젊은이 다름없이  
수수하여도  
가슴엔 혁명전위라는  
영예와 긍지로 차고넘쳤다

당에서 우리 대학생들을  
3대혁명전위로 파견했는데  
하는 일이 너무 적다고  
그가 하는 말이 진정이였고  
작업반 축산분조의 사료분쇄기는  
그가 만들었다는  
기술혁신창안품이었나니

아, 농장원들속에 깊이 뿌리박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요구대로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농장벌을 가꾸는 그는  
당의 참된 혁명전위!

그는 벌에 살았다  
사람들의 심장속에 살았다  
사람들의 심장속에 살며  
3대혁명 붉은기치로  
온 농장 온 벌을 덮어가고있었다

# 녀의사

김상오

당신은 언제나  
미소를 눈에 담고 찾아와  
그것을 나의 병상에 놓고갑시다  
약이 아니라 그 따스함이  
주사침을 통해  
나의 심장으로 흘러듭니다  
그리하여 시들어가던 나의 생명이  
저 강변의 신록처럼 싱싱하게 다시 피여납니다

표정이 풍부한 검은 눈과  
가지런한 흰이가 아름다운 너인

당신의 회지 않은 살갗이  
어쩌면 그리도 밝게 비쳐오는것입니까  
나때문에 겹쌓인 피로도 애써 감추려는 모습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정신의 높이  
인간의 고통에 대한 당신의 고통을 읽으며  
당신같은 너인, 당신같은 녀의사가 많은  
이 세상에 사는 나의 행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질어가는 황혼속에  
스러지지 않는 노을처럼 서있는  
또하나의 나의 행운을 보았습니다

## 용해장에 새로운 말 생겼다

권강일

용해장에 새로운 말 생겼다  
하루일을 앞두고도 하느니 그 말  
온종일을 뛰고서도 높이느니 그 말  
지시강종 독촉하는 지령실도 그 말

번뜩이는 화광속에, 불바람소리속에  
서로마다 주고받는 열기편 목소리  
탄광에 보낼 강철 먼저하자  
먼저 뚫여내자 탄강철, 탄강철...

오, 터져나왔다 그 말은  
새해 첫 아침 신년사를 하시는  
아버이수령님을 우러르며  
생각 깊어진 가슴속에서

인민의 행복을 한평생 가꾸시고도  
시작이신듯, 모든것 앞에 두신듯  
석탄을 앞세우라... 강철을 많이 내라...  
간곡하게 이르는 그 말씀 새길 때

첫 쇠물과 함께 터져내린 진심의 분출이었다  
우리 수령님 더 잘 모시자  
우리 당 더 잘 받들자  
가슴에 불이 달린 계급의 맹세였다

우러르는 생각이 하나같으니  
용해장이 이렇듯 한결갈던가  
마음도 효자들의 뜨거운 마음  
걸음도 충신들의 높은 걸음

탄강철, 탄강철 먼저 뚫이자  
주고받는 말끝에 젖어오는것은  
온 나라가 한뜻으로 뚫여숫아  
또 한해를 승리해가는 가슴뿌듯함

자력갱생의 화광에 불바람속에  
그 말은 가슴마다 불을 단다  
우리 아버이 더 잘 모시리라  
우리 당을 더 잘 받들리라

## 철길과 함께

박창민

령넘어 또 령...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디인지 산우에 산이 솟고 봉우리우에 봉이 솟은 《하늘길》로 뻗스는 기세 좋게 달려갔다.

차창으로 소리높은 령기슭을 따라 구불구불 흘러간 두줄기 철길이 물결쳐왔다.

이 깊은 산중에 철길이 뻗어갔다는것이 희한할 정도였다. 가도가도 인적없는 심산속이었다.

뻗스가 령길을 굽이돌 때 해빛을 받아 눈부신 빛을 뿌리는 궤도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나타났다. 철도제복을 입은 사람이었다.

가다가는 철길옆으로 텅겨난 자갈을 주어올리기도 하고 레루못을 다시 조이기도 하고 락석을 감시하며 첩첩 높이 솟은 층암절벽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

자기 초소를 성실히 지켜가는 충성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안겨왔다.

《저 〈공산주의아바이〉는 언제 봐야 저 모습입니다.》

내옆에서 침착하게 뻗스를 몰아가는 운전사의 말이었다.

《〈공산주의아바이〉라니요?》

나는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예, 철길순회원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렇게 철길을 지켜가지요, 이를테면 숨은 영웅이지요.》

《여기서 일하는지 오래 됐는가요?》

《20년나마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맡은 구간을 눈감고도 다닌다는 사람입니다. 볼수록 존경이 가는 철도아바이이지요.》

운전사는 《철도아바이》에 령점을 찍었다.

《철도아바이!》

한번도 나의 취재의 주인공이 되어본적 없는 사람이었다.

은연중 사랑과 존경,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그에게로 마음이 끌렸다.

뻗스는 또 하나의 령을 넘었다. 《철도아바이》 모습도 이제는 볼수가 없었다.

그러나 차창가에 한번 얼핏 스쳐지나간 그의 모습이 왜 그리도 강한 인상을 가지고 눈앞에서 떠날 줄 모르던지.

그의 모습을 더는 볼수 없음을 번연히 알면서도 나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다보았다.

나의 심중을 헤아린듯 뻗스운전사는 그의 《자서전》을 들려주었다.

그의 인생에서 30여년은 저 철길과 함께 흘러갔다.

그는 기나긴 그 세월을 그 외진 산속에서 철길과 함께 보냈다. 20리구간, 흔히 사람들이 두 시간이면 걸어갈 그 길을 그는 수십년 세월을 오고갔다.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를 지켜선 초병이라는 자각이, 수송을 앞세워야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발전시킬수 있다는 그 높은 책임감이 그로 하여금 초소를 떠날수 없게 하였다.

얼마나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책임감을 자각했으면 20리구간에 철길침묵이 몇개이고 레루못이 몇개인가까지 알고있겠는가.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일을 레사롭게 대하고 있다.

누구도 그가 큰 일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산기슭에 진달래 붉게 피어도 봄향기에 취해볼새 없이 비바람 사납게 몰아치는 여름을 맞이하였다.

시원한 그날아래 언제 한번 땀들여볼새 없이 단풍이 불타는 가을이 오고 눈보라 사납게 울부짖는 겨울이 들이닥쳤다. 박달나무도 얼어터진다는 북방의 추운 겨울에도 그는 마스한 온돌방을 찾아 철길을 리탈하지 않았다.

《무사고》, 《정시운행》! 오직 이 한가지 생각만이 그의 온몸을 지배하고있었다.

참으로 그는 두줄기 궤도우에 자기의 모든것을 고스란히 바쳐갔던것이다.

그가 지켜선 레루우로 하루에도 수많은 령차들이 오고갔다.

그러나 그는 두줄기 철길을 달리는 령차처럼 충성의 길에서 한순간도 탈선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궤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하기에 그는 자기가 지켜선 20리구간을 당이 세워준 혁명초소로, 철길관리를 혁명의 분공으로 생각하였던것이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진 심산속에 누구든 철도제복을 입은 사람이 있어야 하며 바로 자기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자각이 어느 한 순간도 떠나지 않았기때문이다.

나는 이 나라 수송전선의 한 방아구역을 차지한 병사라는 마음,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해 신년사로 부터 일년내내 그 어느 하루도 심려를 놓지 못하시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를

지켜선 전사라는 자각이 없이는 그렇듯 수십년세월  
성실한 로동의 땀을 흘릴수 없는것이다.

그 마음, 그 자각이 없이 어떻게 하늘과 땅이 맞  
붙은 이 험한 산골에 뿌리를 내릴수 있으랴.

나는 충격이 컸다.

(나는 왜 나팔소리 울리고 오색기발이 휘날리는  
갑문건설장이나 발전소건설장, 웅장화려하게 일떠  
서는 새 거리 건설장같은데서만 취재의 주인공을  
찾으려 했는가.

저런 숨은 영웅이야말로 사람들앞에 내세워야 할  
시대의 전형들이 아닌가.)

잠시후 두줄기레루를 따라 려객렬차가 질풍처럼  
달려갔다.

나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멀어져가는 려차를 자  
랑스럽게 바라보고있을 《철도아바이》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아,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곳에서 남모르게 큰일  
을 하는 사람! 저렇듯 성실한 사람들이 인민경제의

선행관을 지켜가고있어 조국의 동맥이 거세차게  
흐르고 수송혁명의 불길 활활 타오르고있는것이 아  
닌가!)

나는 흥분하였다.

그를 꼭 만나고싶었다.

그날 나는 다음정류소에서 내렸다.

그러나 《철도아바이》로부터는 이렇다할 《종  
은 말》을 듣지 못했다.

제 할 일을 하는거야 웅당한 일이 아닌가, 철도수  
송때문에 심려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심려  
만 덜어드릴수 있다면 백년이라도 여기서 살겠다는  
말밖에 더 들을수 없었다.

다만 못사람들이 승벽대기로 그를 자랑하는바람  
에 쉽게 취재수첩을 가득채울수 있었다.

얼마후에 독자들은 지면을 통하여 긍정기사 《철  
도아바이》를 읽게 될것이다.

## 그 처녀를 사랑한것은

황성하

나는 사랑합니다.

들가에 소리없이 피는 꽃처럼  
그저 소박하고 평범한 한 처녀를  
허나 평범하지 않은 마음을 지닌  
구두수리공처녀를

사랑은 아름다움에 대한 매혹이어서  
첫눈에 끌리기도 합니다  
자태고운 처녀들, 직업좋은 처녀들이  
허나 나는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아름다움을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구두수리공처녀에게서 찾게 될줄은  
처녀의 마음이 피어나는 꽃이  
환희로이 이 가슴에 던져질줄은

처녀시절 꿈도 많았지만  
스스로 구두수리공이 된 처녀  
나라의 살림살이 보탬주자고  
자그마한 마치를 들고  
나지막한 일터에 자리잡은 처녀

저녁해 기울어도  
이마에 송골돋는 땀방울 훔칠새 없이  
일손을 놓지 않는 처녀의 마음에서  
나는 읽었습니다 인민위해 복무함의 참뜻을  
구두를 찾아주며 미소짓는 그 모습에서  
나는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 청춘의 참 행복을

나는 머리가 숙어졌습니다  
그 마음속에 빛을 뿌리는 고귀한 보석이  
이내 심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정깊은 마치소리, 거칠은 손바닥이  
내 귀가에서 마음에서 떠난적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세계에는 늘 차고넘칩니다  
주고받는 재산이 아니라  
인민 위해 바치는 진정의 뜨거움이  
질은 분내가 아니라  
칠하지 않은 마음속의 그윽한 향기가

나는 사랑합니다 그 처녀를  
우리 당을 받드는  
그 진정에 끌린 사랑은  
영원히 지지 않고 피어있을것입니다  
후회없이 마음에 불타있을겁니다



# 철산봉이 키를 낮춘다

주광남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서한을 보내주신 사람은  
무산의 운전사 7 형제였다  
하건만 그 서한을 받아안은 사람은  
들먹이는 심장으로 받아안은 사람은  
철산봉의 모든 광부들이었다

마치 자신에게 안겨주신 믿음인듯  
당비서도 지배인도 읽으며 목메이고  
공훈광부아바이도 단발머리 운전공도  
선서처럼 엄숙히 외우고 또 외웠다

아, 너무도 높이신 평가앞에  
조국의 아들이라 스스로 자부하던 마음도  
오히려 송구스러워지고  
너무도 크나큰 신임앞에  
늘 입에 올리던 신념과 의지란 의미도  
새로이 되새기며 뿜어오르는 가슴이여

폐약별 뜨거운 철산봉에 오르시여선  
4 부자운전사의 안부를 먼저 물으시며  
한없는 은정 베풀어주신 그이  
받아안은 은혜가 고마와 울린  
7 형제의 편지를 몸소 보아주시고

분에 넘친 평가의 서한을 보내주시었으니

어찌 7 형제 가슴만으로  
받아안을 사랑이라  
그렇듯 높이 불러주신 믿음의 위치  
어찌 7 형제만이 올라설 자리이라

철산봉이 뿜어오른다  
7 형제들 억척스레 운전대 틀어잡고  
최속으로 몰아가는 대형차의 진군에  
온 광산이 화답하듯 뿜어오른다  
착정기도 최속도로  
굴착기도 마광기도 만부하, 만부하로

사람들의 기세 솟구쳐오를수록  
키를 낮춘다, 철산봉은  
두 어깨 깊숙이 들이대여  
조국의 부강을 높이 떠받들려는  
겸허하고도 굳세인 광부들의 자세런듯

쇠돌산악을 더 높이 쌓아  
친애하는 그이께서 내세워주신  
숭고한 믿음의 높이에 오르려고  
오, 무산의 광부들 철산봉의 키를 낮춘다!

## 풍경시

# 약산의 진달래

김정철

녕변이라 녍변의 약산동대는  
노래도 많고 시도 많소  
좋은 철 진달래 꽃철에 찾아오니  
시 한수 저절로 떠오르오

바위우에 층층 꽃은 웃고  
꽃속에 겹겹이 바위돌 솟았으니  
꽃과 바위 천층이요  
꽃과 바위 만겹이라오

오르는 길우에도 울긋불긋  
금잔디 그우에도 울긋불긋  
봄바람에 나뭇기는 저 꽃수건도  
울긋불긋 연분홍 진달래일세

굽어보니 벼랑은 백길인가 천길인가  
그아래 푸른 물은 깊고 깊구나  
아홉마리 룡이 누웠다는  
전설도 깊은 그 이름 구룡강이라오

무사들의 칼이 울던곳은 그 어디  
철웅성 옛 성벽도 여기 있소  
산수가 아름다워 약산일가  
선조들의 뜻이 어려 동대이지

가꾸고 꽃피워야 할 인민의 경치  
약산단 모본단에 너를 새겼으니  
인민의 약산동대우에  
나도 진달래 시 한수를 수놓고가요

# 렬차는 잠들지 않는다

리종덕

사색의 글줄을 고르며  
잠 못드는 이밤  
간간이  
밤의 고요를 흔드는  
화물렬차의 기적소리

이윽고 대지를 구르는 차바퀴소리는  
저 멀리 사라지건만  
메아리인양  
내 가슴을 하얗게 울리고있구나

어데서 떠나오고  
그 어데로 달려가는 렬차인가  
별들아 웃는 창가에  
아이들 고운 꿈이 피어나는 이밤  
렬차는 잠들지 않고있어라

차판가득 금비료를 싣고  
수령님 다녀가신  
연백별로 떠나는 화물렬차인가  
먼 야금기지에서

강철통구리를 싣고 달려온 렬차인가

어데서 떠나오고 떠나가는지  
내 알리 없어도  
조용하던 이 가슴은  
생활의 바다를 안은듯  
설레이기 시작한다  
높이 뛰기 시작한다

승리와 신심으로 충만된 철의 룡마  
그 어떤 역풍도 맞받아  
순간의 침체와 안일도  
한점의 먼지인양 훑날리며  
밤이 없이 내달는 무쇠발구름

렬차는 잠들지 않는다  
벽찬 사회주의숨결로  
내 붓끝에도 창조의 노래를 피우며  
대지를 흔드는 차바퀴소리 차바퀴소리  
아, 조국은 잠들지 않고있어라

## 풍경시

# 내 고향의 붓나무

엄애란

내 고향 장진 산중의 호수에  
말없이 서있네 한그루 붓나무  
파아란 하늘이 비껴간 물밑에  
조용히 발잠그고 아련히 서있네

눈부시게 하이얀 치마를 펼쳐입고  
바람에 나풀대는 초롱빛 댕기달고  
수집은듯 호수가에 서있는 네 모습  
어여쁠사 내 고향의 고운 처녀같구나

낮에는 노래싣고 흐르는 폐목에  
산촌의 향취런듯 웃음발 날리고

밤이면 호수가에 내려앉은 별들과  
정답게 불꽃을 속삭이는 붓나무

너를 보면 내 마음도 부드러워지누나  
첫사랑 그날같이 순결해지누나  
그처럼 붓나무여 너는 티없는  
고결한 고향의 아름다운 얼굴같아라

그래서 못잊어 너를 다시 찾는다  
마음다해 뜨겁게 그러안고  
사랑사랑 흔드는 네 노래 가지우에  
고향을 사랑하는 내 노래도 없으며

# 위원장 어머니

## 제 3 부

문병의

(전호에서 계속)

**읍거리**

길가의 가로수들이 바람에 태  
질한다.

착잡한 생각을 안고 그밀을 걸  
어가고 있는 은정.

그의 심중의 목소리.

《연희 용서해다오. 너의 아버  
진 나를 믿고 너를 여기에 보냈  
는데 이 일을 어찌면 중단말이  
냐.》

**은정의 사무실**

여전히 무거운 생각에 잠겨  
쫄파에 앉아있는 은정.

사무실 한쪽 원탁우에는 보자  
기를 덮어놓은 밥그릇이 있다.

이윽고 탄실이 방에 조용히  
들어와 원탁우의 보자기를 벗겨  
보고나서 은정에게로 다가온다.

《아니 언니 어찌자는거예요?  
아침에 가져다놓은 밥이 또 그  
대로 있구만요.》

《병원에서 오는 길이야?》

《네, ... 엿저녁에두 아무것도  
잡수시질 않구 밤을 꼬박새웠는  
데 그러다 정말 무슨 말이 나졌  
어요.》

《난 일없어... 연희 뭘 좀 먹  
었나?》

《네, 간호원이 그러는데 오늘  
아침엔 미음을 한 반공기 받아먹  
었대요. 내가 병원에 가니 잠이  
들었더구만요.》 하며 탄실이 보  
은병에서 고뿌에 물을 따라서 은  
정에게 준다.

《자. 물이라두 좀 마셔요.》

은정은 고뿌를 받아서 앞상우  
에 그냥 놓는다.

《에그참, 언니두...》 하며 탄  
실이 한숨을 쉰다.

이때 조심스러운 문기척소리.

《누구요? 들어오라요.》

은정이 출입문쪽을 보는데 문  
건철을 든 량수환이 들어온다.

《위원장동무, 제가 석탄공업  
부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하  
며 그는 문건철을 은정의 앞에  
밀어놓는다.

은정은 말없이 그를 뚫히 쳐다  
본다.

《...》

량수환이 따분한듯 한쪽 의자  
에 가앉는다.

이윽고 은정이 그에게 조용히  
묻는다.

《사 고 현 장 언 가보았습니  
까?》

《예. 그야 사고 당일에 벌써  
... 위원장동무, 내 오늘 좀 말을  
해야겠습니다. 사실 난 오늘 이  
때까지 위원장동무가 녀성이구  
해서 의견이 좀 있어두 속으로  
목새기면서 내 힘자라는것 도와  
드리느라구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 일만은 ... 글썽 무슨 일을 저  
지러버 했습니까? 식료연구사동  
무가 그만하길 다행이지 인명피  
해라두 있었으면 그 책임을 어떻  
게 하겠습니까? 제발 이제 버겨  
보이라에 대해선 단념하십시오.》

《부위원장동무, 그 문제때문  
에 오셨다면 오후에 현장에 나가  
서 방인철연구사동무랑 같이 토  
론해봅시다.》 하며 은정이 문건  
철을 그의 앞으로 밀어놓는다.

량수환이 랭기를 퐁기며 자리  
에서 일어선다.

《좋습니다. 위원장동무가 정  
고집한다면 난 버겨보이라에 대  
해선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습니  
다.》

량수환이 문건철을 가지고 힘  
하니 밖으로 나간다. 그를 지켜  
보던 탄실이 은정의 눈치를 보  
며 말한다.

《이제야 방인철연구사가 손  
이 떨려서 하겠다구 하겠어  
요?》

《아니 그 동문 기어이 해낼거  
야. 우리 연희 말따마나 그는 우  
리 당이 키워낸 새 세대 과학자  
이거든!》

**량정사업소 보이라간**

깨어진 보이라벽체를 해체하  
느라 땀을 철철 흘리며 방인철이  
매질을 하고 있었다.

쩌렁쩌렁 공장구내에 울리는  
함마질 소리.

**군당위원회 청사**

현관계단을 오르는 은정.

**2층복도**

은정이가 《책임비서》라고  
쓴 명판이 붙은 문가에서 걸음  
을 멈춘다.

문손잡이를 잡으려던 은정이  
가 방안에서 들어오는 말소리에  
그만 추측한다.

**방안**

책임비서와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서 열변을 토하는 량수환.

《... 난 그대두 위원장동무가  
녀성이구 또 가정생활에서는 불  
행하다면 불행하다구 말할수 있  
는 사람이기때문에 이날 이때까  
지 할 말두 안하구 말갈데 소갈  
데 다 뛰어다니면서 수격수격 뒤  
받침을 해주느라구 했는데 사람  
을 무시해두 분수가 있지 이거야  
너무하질 않습니까? 글썽 명색  
이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결제  
받을 문건철을 가지구 갔는데 이  
건 보지도 않구 밀어팽개칩니  
다.》

《그게 무슨 문건이었던가  
요?》

《우리 군자체탄광을 국가에  
이관할데 대한 문건입니다. 이제  
야 버겨보이라가 폭발까지 되었  
는데 어떻게 하나 석탄문젠 풀어  
야 하질 않겠습니까? 난 사실 버  
겨보이라에 대해선 처음부터 달  
가와하질 않았습시다.》

《그래요?》

《그리구 또 목재문제두 그렇  
지요.》

지금 모두 밤을 폐가면서 학교  
개축공사를 하다가 목재가 없어  
서 맥을 놓구 있는데 글썽 기차  
방통에까지 실어주겠다는 목재  
는 마다하구 와서 구천산 꼭대기  
나무를 찍어오겠다니 이게 글썽  
말이 됩니까?》

《필요하다면 구천산이 아니  
라 그보다 더한데 있는 나무라도  
찍어다 써야지요.》

《물론 사람이 마음먹어 안되  
는 일이야 없지요. 하지만 목재

뒤뚱통이면 되겠는데 이거야 대포로 참새를 잡겠다는격이지 맞습니까? 행정경제위원장이면 한개 군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호주인데 난 도대체 우리 위원장동무가 요새 뭘 생각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사람들속에서 위원장동무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책임비서가 웃으며 말한다.  
《부위원장동무, 이왕 터쳐놓은거니 그 말들이 많을걸 죄다 이야기하십시오.》  
《예...》

### 다시 복도

은정이가 현기증을 일으킨듯 비척거리며 되돌아선다.

군당위원회 청사앞  
《파르릉...》하고 우리가 울며 소나기가 쏟아진다.

비바람에 태질하는 버드나무.  
은정이가 현관을 나서서 쏟아지는 소나기를 그대로 맞으며 어데론가 걸어간다.

### 다시 군당책임비서의 방

량수환이 말을 계속하고 있다.  
《버겨보이라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백이면 백 지어 당자인 량정사업소 지배인동무까지 두반달 하는데 무엇때문에 위원장동무가 방인철연구사를 끼고도는지 리해가 안됩니다.》

《아니 난 방인철연구사동무는 량부위원장동무가 처음에 데리구온걸루 알고있는데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선 제가 당앞에 비판하자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위원장동무가 녀성이구 혼자 자사는 과부가 되서 맹종맹동하엿다는건가요?》

《예. 이를테면 그렇지요. 하지만 도위생방역소에 내려왔단 다음에는 내 립장을 똑똑히 밝혔습니다.》

《부위원장동무, 부위원장동무야 벌써 어린 나이에 소년빨찌산으로 미국놈들과의 싸움두 잘하구 공로가 있는 동무인데 당앞에서야 솔직해야 하질 않겠습니까? ... 난 어쩐지 부위원장동무가 오늘 군당위원회를 찾아온건 버겨보이라나 구천산의 나무찍는 일이 미덥질 않아서 앞으로 문제가 제기되면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놓기 위해서 오질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 아니 그건 ...》

《내 생각이 지나쳤다면 량해하십시오. 하지만 부위원장동무가 명심할건 지금 우리 당에선 일군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당과 운명을 같이 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래 부위원장동문 자신의 운명을 당에 전적으로 맡기고 생활하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까? 한번 량심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

《그렇게 산다는것이 말처럼 그렇게 험한 일이 아닙니다. 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행정경제위원장동무를 존경합니다.》

책임비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간다.

그를 한동안 지켜보고있던 량수환이 머리를 떨군다.

### 구천산

로농적위대원들과 가두녀성들, 학생들까지 떨쳐나서 아찔하게 높은 산정을 향해 길을 닦고있다. 곳곳에 대형구호판들과 오색기발들, 로농적위대 중대와 대대들의 기발들이 바람에 펄럭인다. 산비탈의 어느한 작업장에서 은정이 남부적위대원들속에 끼워 작업하고있다.

처녀 1이 난처해하며 은정에게 말한다.

《위원장어머니, 이젠 좀 쉬십시오. 우리가 합니다.》

은정은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무거운 돌을 안은채 걷는다.

처녀 1이 울상이 되어 중대장을 본다.

《중대장동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차이거 ...》

중대장이 딱한듯 머리를 기웃거리더니 목에 건 호각을 입에 물고 불어댄다.

《작업휴식!》

적위대원들이 왁작 떠들어대며 휴식한다.

그러나 은정은 안고가던 돌을 삭도기초구덩이에 던지고는 또 다시 큼직한 돌을 안고 안간힘을 쓴다.

《위원장동무, 같이 들시다.》 하며 어디서 나타났는지 군당책임비서가 그에게 다가간다.

《아니 일없습니다.》

《하...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는데 함께 들시다.》

책임비서가 은정이 안은 돌을 땀땀 마주든다.

중대장과 처녀 1이 마주보며 웃는다.

**작업장에서 멀지 않은 바위밑**  
은정과 책임비서가 나란히 앉아있다.

《위원장동문 어제 나를 찾아왔다가 왜 그냥 돌아갔습니까?》

《아니 저를 보았습니까?》  
《창문으로 넘겨다봤지요. 분명 나를 찾아왔던것 같은데 그냥 돌아가더라 말입니다. 전화로 찾을가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당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일을 쓰게 못하다나니...》 하며 은정이 머리를 숙인다.

《그러니 위원장동문 어제 내 방에서 량부위원장동무가 하는 말을 다 들었구만요》

《...》  
《참 위원장동무께 한가지 알려드릴게 있습니다. 며칠전에 위원장동무가 목재때문에 가셨던 립산사업소 당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정식 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통보서를요?》  
《예. ... 위원장동무가 그곳에서 각지에서 모여온 인수원들에게 정치사업을 해서 돌려보내게 아마 그곳 일군들과 발전소건설자들속에 큰 반향을 일으킨 모양입니다.》

《그게 무슨 큰일이라구. ...》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우리 수령님과 당의 의도라면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무조건 받들줄 아는 그런 일군만이 할수 잇는 일이지요. 솔직히 말하면 책임비서인 나두 통보서를 읽으면서 감동되었습니다.》

《책임비서동지!》 자기의 진정을 리해하여주는 당의 품이 고마와 은정은 뜨거운 감촉을 삼킨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다 그래야겠는데... 위원장동무, 내 어제 량부위원장동무한테 좀 가슴아픈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 오늘쯤은 여기에 나타날줄 알았는데 아마 내 비판을 삭이기가 좀 힘들어하는것 같습니다. 위원장동무가 좀 짬을 내서 한번 만나 보십시오.》

《네 ... 그렇게 하겠어요.》

《그 동무두 전쟁시기랑 잘 싸운 동무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당위원회가 확실히 행정일군들과의

사업을 잘못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웅졸한 탓입니다.》

《힘에 부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벌려놓았는데 우리 힘을 합쳐 잘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책임비서동지!》

**더욱더 기세를 올리는 전투장**  
방송차에서 올리는 방송원의 힘있는 목소리.

《드디어 암사장봉까지의 통로가 개척될 시각은 멀지 않았습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산악같이 일떠선 여러분들의 앞에는 절령못할 요새란 없습니다. 모두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가지고 나머지 삭도탑건설을 힘있게 다그칩시다.!!》

### 량수환의 집 방안

응접탁을 사이에 두고 은정과 량수환이 마주앉아있다. 열려진 옆방 문밖으로 량수환이 누워있던 이부자리가 보인다.

머리를 푹 숙인 량수환을 보며 은정이 말한다.

《난 정말 부위원장동무를 이해할수가 없구만요. 동무야 열하나 열둘하던 나이에 벌써 미국놈들을 생포한 웅감한 소년빨찌산이 아니였나요. 글썄 나같은게 뭐라고 면목이 없소 뭐요 하면서 이렇게 웅졸하게 급니까? 지금 온 군이 나 어린 학생들까지도 구천산을 절령하겠다고 나섰는데 창피하지두 않는가말입니다. 예?》

《내 더 할 말이 없습다.》

《부위원장동무두 아마 우리가 군에 처음으로 원료기지를 개간해서 거기에서 나온 첫 수확물을 당중앙위원회에 선물로 올려보냈던 그때의 일은 눈에 흠이 들어가도 잊을수가 없을거예요.》

《...》

《그때 군내 인민들의 충성의 마음을 안고 당중앙위원회에 올라갔던 소식을 저저마다 듣겠다고 부위원장동무랑 모두 정거장에 나와서 저를 기다렸지요...》

회상하면

**삼일역 흙**

렬차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량수환과 군내 인민들, 고등중학

교의 취주악대가 지휘자의 손을 쳐다보며 긴장해있다.

이윽고 꽃장식을 한 렬차가 역구내에 들어선다.

취주악이 울리가 녀학생들이 달려가 차에서 내리는 은정에게 꽃묶음을 안긴다. 그러나 은정은 그것을 받을 생각을 않고 묵묵히 서있다.

량수환이 의아해서 묻는다.

《위원장동무 어떻게 되였습니까? 선물을 올렸습니까?》

《동무들, 저 ...》 은정은 그만 말을 못하고 흑하고 얼굴을 싸친다.

《아니 위원장동무 왜 그러십니까? 예?》

이때 차에서 은정과 함께 당중앙위원회 일군이 그를 대신하여 말한다.

《동무들 ... 여러분! 삼일군 인민들이 충성의 선물을 보내여왔다는 보고를 받으신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삼일군 인민들이 선물을 보내여왔단말이정.》라고 거듭 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것이였습니다...》

삼일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파악이 있는 전후에 새로 생긴 신설군입니다. 나는 삼일군 인민들이 다른 군들 못지 않게 잘 살게 되였다는 보고를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것을 군내 인민들의 생활에 보태여쓰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올려보낸 알곡의 전량을 그대로 돌려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아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도리어 저희들의 생활을 걱정하시였단말인가요?!》

량수환과 인민들은 그제야 렬차의 맨 뒤에 달고온 꽃 장식을 한 량곡화차를 보며 뜨거운것을 삼킨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역 흙과 구내에 차넘치는 뜨거운 흙모와 걱정의 파도, 량수환이 량곡화차를 그러안고 오열을 더뜨린다.

### 읍거리

량수환이 깊은 자책속에 걸여가고있다. 그의 귀전에 울리는 은정의 절절한 목소리.

《부위원장동무나 나난 이젠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기시작했

는데 우리가 만일 삼일군인민들을 것처럼 녀려하시는 친애하는 그이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에 보답하지 못하고 일손을 놓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인생이구 한생을 산 보람이 있겠나요. 난 부위원장동무가 이걸 생각한다면 자기앞에 차례질 책임이 두려워 개별적일군들의 눈치나 보구 요행수를 바라면서 울리뛰구 내려뛰구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라구 정춘실동무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지 못하겠는가 말입니다.》

### 구천산의 전경

산정을 향해 우뚝우뚝 솟아오른 삭도탑들과 불도가니처럼 굽고 있는 적위대원들과 군내 인민들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온다.

그것을 생각깊이 바라보고 선 적위대복장을 한 량수환.

### 량정사업소 보이라

작업복소매를 걸어붙이고 보이라공과 함께 보이라벽체를 쌓고있는 량수환.

방인철이 설계도면을 들고 그에게로 다가간다.

《부위원장동지 이걸 좀 봐주십시오.》

《응 어디 보자구.》 량수환 설계도면을 받는다.

《음. 이게 바로 굴뚝으로 날아나던 버겨재를 잡아서 화실로 다시 끌어들이는 재연소장치구만.》

《에 그런데 이 가운데 축의 한쪽 끝을 약간 높여주면 어떨가 해서 그러니까.》

《음. 1차연소중에 있는 불길의 힘을 리용하자는게지? ... 그럴듯해. 그렇게 되면 버겨재가 말끔히 연소될수 있겠소.》

《되겠습니까?》

《되구말구. 거 알구보면 간단한데. 착상이 아주 기발하구만 응? 하하...》

옆에 있던 보이라공이 말참내를 한다.

《허... 세상리치란 알고보면 다 간단하구 명백하지요. 부위원장동문 우리 이 연구사동무가 어떻게 돼서 그 말썽했던 버겨재를 잡아서 다시 태울 생각을 했는지 아시우?》

《아바인 또 그 소릴..》 하며 방인철이 어색해한다.

《아 글썄 폭발사고가 난 그날 밤에 말이우다. 너무두 억이 막

히구 앞이 캄캄하던 연구사동무가 여기에 앉아 한숨을 푹푹 쉬고있는데 바람이 불적마다 저 화실밑에서 하얀 연기가 풀풀 날리더라질 않소. 그래 웬 불이 아직도 있을가 하구 깨진 벽체를 까구 보니 그게 연기가 아니라 버겨재가 말끔히 탄 재가루더라우다. 그래 무릎을 탁 쳤다는거요. 굴뚝으로 날아나던 까만 버겨재는 숲이구 그걸 다시 태우기만 하면 이것처럼 하얀 재가루만 남겠으니 굴뚝으로 날아날건 아무것두 없겠구나 하구 말ियो. 그게 바로 지금 도입하는 재연소장치 아니겠소. 하하…》

량수환이 머리를 끄떡이는데 방인철이 말한다.

《사실은 로가 폭발한 원인두 그제야 알았습니다. 굴뚝으로 날아나는 버겨재를 잡겠다고 체진장치를 하구 물총까지 쏘아댔으니 그 채 연소되두 않은 버겨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굴뚝이 메서 로가 폭발될 수밖에요.》

《보시우. 세상리치란 이렇게 알구 보면 간단명료한데 사람이 그 한치 앞을 내다보질 못해서 하던 일을 체버리거나 파오를 범하는게 아니겠소.》

보이라공의 말에 량수환이 허거프게 웃으며 머리를 끄덕인다.

《예… 아바이가 그 말을 나한테 왜 하는지 알만합니다.》

《아니 난 꼭 부위원장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우다. 하하…》

《하하…》

이때 탄실이 나무함을 무겁게 들고 들어선다. 방인철이 반기며 그것을 받아놓는다.

《아니 벌써 베아링공장엘 다녀오는 길인가요?》

《응. 그런데 방연구사가 어제 병원에 가서 연희연구사 듣는데 베아링소릴 했어요?》

《예… 그 동무가 언제 불을 지피게 되는가구 자꾸 따져묻기에 얼핏 한마디 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에그 왜가 뭐가? … 지난 밤에 연희연구사가 베아링공장에 가서 밤을 꼬박 새웠다네.》

《예?..》

《거기 기사장이 너무두 감동이 돼서 밤새 시간의 작업을 해서 이걸 가공했다네.》

《그래요?》

#### 같은날 밤

방인철이 보이라관에서 기계조립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손에

서 붕대를 채 풀지 못한 연희가 밥그릇을 들고 들어와 조립대우에 펼쳐놓는다.

《아니 연희동무가 어떻게…》

《아무리 일이 바빠두 식사야 제때에 해야지요. 식당에 가보니 동무식사만 텅그라니 남아있더군요.》

《체 누가 동무한테 그런 걱정이나 하라오? 난 다른데서 이미 저녁식할 땀단 말이요.》

《호호… 거짓말 마세요. 려관료리사어머니가 그러는데 동문요새 한두끼 건느는건 레상사라던데요.》

방인철이 격하여 소리친다.

《썩 그만두오. 동문 도대체 뭘데 동지들과 주위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나다니오?》

《네? …아니 그건…》

《동문 지난밤에 병원에서 몰래 나와 어딜 갔댔소? … 그레 동무가 아니면 이 삼일군에 베아링을 구해올 사람이 없구 이 버겨보이라가 안될것 같소?》

《어마나 난 또 … 아이 동문 그제때문에 성났어요? 사실은 거기 기사장동무가 우리 대학 상급생이예요. 그러니 제가 아니면 누가 가겠어요. 그리구 전 이젠 다 나왔어요.》

《…》

《인철동무, 정말 성났어요? 아이 좀 웃으라요》

《…》

연희는 여전히 인철이 말이 없자 금시 풀이 죽어 머리를 숙인다.

《인철동무, 정말 저의 행동이 동무의 마음을 괴롭혔다면 용서하세요. 체 성격이 원래 팔랭이 다나니 이번 사고두 그렇구…》

방인철이 뜨거움을 삼키며 돌아선다. 그리고는 그를 삼켜버리거나 할듯 이 바라본다.

《연희동무!》

#### 구천산 현장전투지휘부 천막

은정이 가 안타깝게 전화를 걸고있다.

《아니 쇠바줄이 이백메타밖에 없단 말이에요? … 야 지배인동무, 공짜로 달라는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구천산에서 나무를 찍어내리기 시작하면 거기 성안광산부터 우선적으로 동발목을 보내주겠다지 않아요…야 그러지 말구 좀 도와주세요. 지금 쇠바줄이 딱 목에 걸려서 그런다질 않아요…하여간 당장 자동차를

보내겠어요.》은정이 수화기를 놓자 옆에 서있던 도시경영과장이 묻는다.

《이백밖에 안된답니까?》

《그것두 시원히 줄 소린 안해요.》

《야단났군요. 쇠바줄이 최소한도 2천메터는 되야 할텐데…》

한쪽에서 담배를 피우고있던 교육과장이 한숨을 쉰다.

《위원장동무 이거 우리가 범의 꼬릴 잡은격이 되는게 아닙니까? 이젠 사람들까지 사기가 떨어져 맥을 못추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안되겠습니까.》

《…》

도시경영과장이 은정의 눈치를 보며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다.

은정의 입에서 가느다란 한숨소리가 새어나온다.

그의 심중의 목소리.

《어떻게 할가?… 무슨 방도가 있어야 할텐데…》

그의 귀전에 다시 울리는 목소리.

《위원장동무 이거 우리가 범의 꼬릴 잡은 격이 되는게 아닙니까?》

언제인가 안타깝게 호소하던 탄실의 목소리가 뒤이어 울린다.

《언니 일을 자꾸 벌려만 놓구 그 책임을 어떻게 질려구 그레요.》

은정이 피로운듯 눈을 감는다. 바람에 천막자락이 흔들리며 웅웅 소리를 낸다.

이윽고 밖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나더니 책임비서와 대좌의 견장을 단 박철이 들어선다.

《위원장동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예?..》 그제야 눈을 뜬 은정이 의아해서 그들을 본다.

박철이 거수경례를 한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동무?》

《아니 박철동무가 어떻게…》

《아니 전 위원장동무 찾아오면 안됩니까?》

《아이 그런건 아니지만..》 하며 은정은 여전히 자기 시름에 잠겨 말끝을 얼버부린다.

책임비서가 웃으며 박철에게 말한다.

《대좌동무 어서 말씀하십시오.》

박철은 그제야 몸가짐을 바로 하며 말한다.

《위원장동무 기뻐하십시오. 우리 부대가 맡아서 건설하고있는 발전소건설장을 몸소 현지지도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위원장동무와 삼일군인민들에게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셨습니다.》

은정이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아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요?》

《예. 위원장동무와 삼일군 인민들이 국가에서 받을 목재를 발전소건설에 돌리고 걸린 목재문제를 풀기 위해 군 자체의 힘으로 구천산을 점령하기 위한 어려운 전투를 벌리고있는 사실을 료해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구천산은 짐승도 밟을 붙이기 어려운곳이라는데 그 동무들이 지금 힘겨운 전투를 벌리고있을것이라고 하시며 이제는 발전소건설도 완공단계에 들어갔으니 우리 부대가 가서 좀 도와주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저희들을 도와주라고 ... 흑 ... 흑...》은정은 너무도 크나큰 격정에 목이 메여 그만 주저앉아 흐느낀다.

책임비서가 흥분하여 말한다.

《위원장동무. 우리가 그처럼 안타까와하던 쇠바줄과 삭도설비들을 만제한 자동차들이 벌써 여기에 도착하고있소!》

구천산에 메아리치는 자동차들의 동음과 만세의 환호성!

전투지휘부천막앞에 서서 아래를 굽어보는 은정의 얼굴에 뜨거운것이 하염없이 흘러내린다.

맑게 개인 하늘가에 목화송이같은 흰구름이 두둥실 떠간다.

#### 며칠이 지난뒤

은정이 지휘부천막앞에서 대공전화로 말한다.

선바위... 선바위, 도시경영과장동무요?... 나 위원장이에요. 잠시후에 삭도시운전을 시작하겠어요.... 아니 다 되었다구만 하지 말구 한번 더 검토하세요... 예... 예.》

#### 천막안

은정이 천막안에 들어서자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토의하고있던 지휘성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선다.

이때 전화종소리가 울린다. 은정이 수화기를 든다.

《량부위원장동무예요? .. 뭐라구요? ...에 ...에 그래서요?... 예. 알겠어요.》

은정이 수화기를 든채 갑자기 긴장이 풀린듯 그자리에 주저앉는다.

《위원장 동지 무슨 일입니까?》

지휘성원들이 모두 긴장해서 은정을 본다.

《성공이에요. 버겨보이라가 드디어 성공했다말이에요.》 하며 은정은 더 말을 못하고 책상 위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먹인다.

아아한 구천산의 산정에서 내리는듯 통나무를 만제한 삭도들이 줄줄이 내려온다. 산밑에서 그를 쳐다보며 군대와 인민들이 서로 어깨를 겨내고 불을 비비며 만세를 웨친다.

화염에 널름거리는 보이라를 돌아보는 은정과 방인철, 주연희, 량수환, 탄실

#### 삼일역 광장

군대렬차들이 출발준비를 갖추고 서있다. 환송 나온 군대 인민들과 군인들이 한데 어울려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

#### 공원

은정과 박철이 공원의자에 나란히 앉아있다.

《박철동무, 이번에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우리야 뭘요, 응당 할일을 한걸요. 그런데 이젠 위원장동무도 귀밀머리가 희었구만요.》

《나이가 있잖아요. 한일 없이 정말 나이만 먹었지요.》

《저... 위원장동무, 제 이렇게 묻는다고 달리 생각진 마십시오, 제 이번에 여기에 와서 정말 많은걸 느꼈습니다. 위원장동문 해놓은 일두 많구 사람들은 저저마다 위원장어머니 위원장어머니 하면서 따르구 존경하구, 그러니 그만큼 보람두 크겠지요.》

《아이 무슨 말을 하자는거예요?》

《그런데 전 어쩐지 위원장동무와 헤어지자니 마음 한구석이 개운칠 않습니다. 빈구석이 있는 것 같아서말입니다.》

《호호... 박철동무답지 않게 갑자기 인생철학을 풀자는거예요?》

《아니 전 우리끼리니 생각되는걸 기탄없이 말하는겁니다.》

《개인생활이라... 질문을 받았으니 대답을 하긴 해야겠는데.

하긴 저두 인간인데 그런 생각을 왜 전혀 하질 않겠어요. 하지만 박철동무두 아다실이 육아원때는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 기르느라구 다른 생각을 할 짬이 없었구, 그다음엔 너무도 아름다운 신설군살림살이를 맡아안구 어떻게 하면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삼일군 인민들의 살림살이를 두고 더는 심려하시지 않게 해드릴가 하는 생각만 줄곧 하다가니... 아이 어떻게 말을 해야 할가?... 박철동무가 묻는 말은 이게 아닌것같은데...》

《아니 됐습니다. 제 우수한 소리를 한마디 하랍니까? .. 전에 우리 주영준소대장동무가 말

입다. 육아원에 가서 위원장동무를 만나구 와서 고민을 하기에 내가 위원장동무가 약속한 대상자가 있다는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당장 가서 들이대자고 하니

까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니까? <여, 박철이 그만두라구. 지금 그 동무의 가슴속엔 부모없는 스물세명의 고아들밖에 없어. 더는 그 동무를 괴롭히지 말자구.> 하더라 말입니다.》

《호호... 그 동무가 정말 저를 정확히 보았어요. 난 아마 천성적으로 한가지 생각밖에 못하는 그런 성격을 타고났는가봐요.》

이때 《위원장어머니》하고 찾는 소리.

《아이 날 또 찾는군요. 그저 잠시두 가만있질 못하게 한다니

까...》

《어서 가보십시오.》

《그럼 이따 또 만나요.》 하며 은정이 종종히 걸어간다.

박철의 생각깊은 마음의 소리,

《아 ... 우리 당에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충성과 효성을 다한다는것은 바로 저런 일군을 두고 말하는것이 아닌가...》

#### 다시 삼일역광장

은정이가 처녀1에게 이끌려 사람들속을 헤쳐가는데 《어머니!》하며 남철이가 달려온다.

《아니 네가 이게 어떻게 된거냐?》

《어머니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뭘. 방금 기차에서 내렸어요.》

《부총국장아저씨랑 함께 왔어요.》

주영준이 다가온다.

《위원장동무한테 진 빚을 갚으려고 왔습니다. 자 받으십시오.

자채탄광을 무기한으로 삼일군에 돌려준다는 계약서입니다.》

하며 주영준이 삼면가방에서 문건을 꺼내준다.

《고맙습니다. 부총국장동무, 우리때문에 도중소탄광관리국엘 우정 들렸겠구만요.》

탄실이가 앞에서 빈정댄다.

《아이 고마울게 뭐 있어요? 이제 멀지 않아 버겨중합보이로서면 그것두 다 필요없게 되겠는데요.》

《앗따. 그거야 이제 우리 이 사위한테 달렸지요.》 하며 주영준이 방인철의 어깨를 두드린다.

그의 옆에 서있던 연희가 부끄러운듯 주영준의 등을 때린다.

《아버진 정말...》

은정이 탄실을 본다.

《아, 빠르기두 하다. 탄실이가 어느새 다 말했구나.》

《어이구 내가 말하기전에 편지루 벌써 〈동의함〉 하구 승낙을 했던데요 뭐.》

《그래?! 호호...》

주영준이 웃으며 말한다.

《위원장동무, 이제 이애들한테 집이나 한칸 마련해줘야하겠습시다.》

《호호... 부총국장동무가 사위 료해를 잘못하였구만요. 그 집 사위는 도소재지 사람이랍니다.》

《무슨 말씀을... 이 애들은 삼일군에 아예 뿌리를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요?! 탄실동무 이거 우리 삼일군에 호박이 넝쿨채 떨어졌구만 응?》

《말할게 있어요. 하루아침에 쟁쟁한 새 세대 과학자가 돌썩이나 생겼는데요.》

주영준이 남철의 어깨를 치며 말한다.

《위원장동무네 이 남철인 셈에 안넣습니까?》

《우리 사위가 돌아온거야 응당한거지요 뭐.》

《하하...》

이때 《영준동지!》 하며 박철이 다가온다.

《박철동무!》 주영준이 그의 손을 뜨겁게 잡는다.

《위원장동무, 우리 또 이렇게 넷이 만났군요.》

은정이 웃으며 말한다.

《우리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신 혁명의 한길에 함께 있으니까요.》

이때 출발신호를 알리는 나팔소리.

박철이 작별인사를 나누고 승용차에 오른다.

군인들의 대렬차들이 떠나간다.

그들을 바라우는 은정과 군내 인민들.

한자리에 굳어진듯 오래도록 서서 손을 흔드는 은정의 얼굴 위에 흐르는 화면들.

- 구천사를 내리는 삭도바가지들.

- 흐름선을 타고 기름병들이 줄줄이 흐르는것을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는 은정.

- 새로 개축된 학교에서 개학식이 한창인 교원들과 학생들 속에 서있는 은정.

은정은 여전히 손을 흔들고 서 있다.

-끝-

## 어머니의 고통앞에

박세일

모진 고통을 참아내느라  
한나산 백록담엔 눈물만 고였는가  
처절씩... 남해의 물결도  
아픔의 비명을 토하는것인가

아 조선이여  
우리 겨레 한명한명  
태를 받아 품어준 어머니시여

그 맴시나는 허리가  
살을 찢는 가시줄에 움매인채  
그우에 또 천근만근  
뼈를 바스는 장벽에 짓눌린채

오, 그렇게 반세기  
분렬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지구촌에 오직 한분  
우리 어머니

이대로 내버려두면  
어머니의 허리는 영영  
피가 안통해 싸늘히 식을게다

부드러운 몸은 그에  
처참히 두동강 나고말게다

피롭구나  
한조상땅에서 5천년을 곳곳이  
한피줄을 지켜온 단군의 후손들이  
우리 대에 와서 이 무슨 수치이나

오, 우리 더이상  
어머니의 고통앞에 실천은 없이  
말로만 걱정하며 가슴만 췌뜰는  
무뎡한 자식이 되고싶지 않나니

씩은 호박넝쿨 걷어내듯이  
녹쓴 저 철조망 말짱이 걷어내자  
쏘는 이발을 뽑아치우듯  
아픔의 저 장벽 뿌리채 들어내자

아아 그러면 우리 어머니  
백두의 머리우에 푸른 정기 날리시며  
남해의 물결속에 시원히 발 잠그고  
굽어들던 허리 다시 쭉-욱 펴실게다